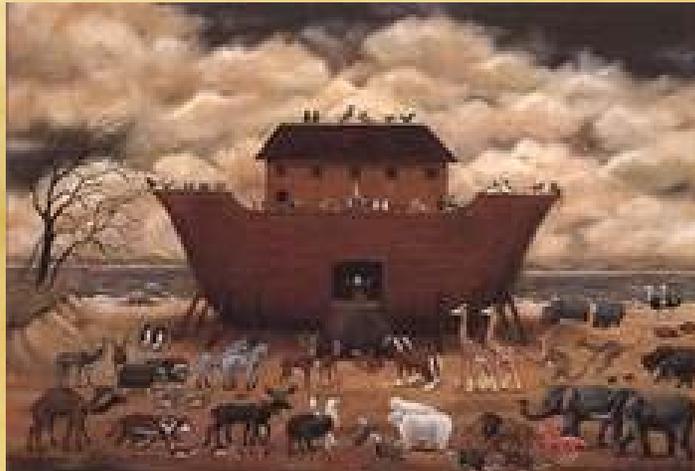


성경 공과

제1권

기초2반 (Basic Class 2)



노아가 방주를 짓다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책

아니타 돌 지음 / 배제형 편역

도서 출판 벽옥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성경 공과

제1권

Basic Class 2



아니타 에스. 돌 지음
배제형 편저

도서 출판 벽옥



ANITA STURGES DOLE

(Mrs. Louis A. Dole)

1889-1973

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은 성경의 깊은 뜻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신 스스로 이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2-6명 정도의 성경 그룹 모임이라면 혼자 만의 이해보다는 비슷한 연령, 비슷한 학력, 또는 비슷한 전문 직업이 모이는 관계로 각자의 의견 교환으로 인해 보다 더 빠른 이해의 속도와 흥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영문판인 Anita S. Dole여사의 Bible Study Notes는 기념 출판용인지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6권의 책으로 편집되고 있으나 한국어판은 저자의 취지 그대로 매주 1회 4년을 성경 공부의 한 주기가 되도록 4권으로 재편집하였는데, 다시 각 권에는 6반(수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1권 제2반, junior class만을 가지고 기초2반, Basic Class 2로 명칭을 바꿔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책을 잠깐 읽었을 때 자기의 수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책을 먼저 읽기 바랍니다.

기초2반의 성경공부의 중점은 해당 본문을 중심으로 역사, 지리, 인물, 시대 환경 등등 글자적 수준에서의 성경을 머리 속에 남아있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성서 이야기의 기억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말씀(the WORD)은 세 겹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중에서 글자가 그릇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권능은 성서 글자를 통해서 발휘되며 가장 직접적으로 주님을 뵈는 것은 성서 글자 안에서(하늘의 구름에...) 이루어집니다.(마태복음 24장 30절).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성서, 즉 율기, 잠언...바울 서신 등등은 여러분 스스로의 이해의 범주에 있어 선견자의 도움이나 여느 누구에 의한 별도의 강론이 필요 없는바 각자 열심을 내어 읽어 숙지하기 바랍니다.

이 책은 공동 번역 성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읽기가 더 수월할 것 같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러나 상응적인 해석과 이해를 위해 개역 성경 또는 영문 성경을 병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역이 심할 경우 그것에 상응하는 해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www.baysidechurch.org 사이트를 방문하면 보다 많은 자료를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오로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마가복음 2장 22절

차례

** 이 책에 대하여.....

1. 창조에 관하여	창세기 1장; 2장 1-3절	9
2. 에덴의 동산	창세기 2장 8-25절	14
3. 노아가 방주를 짓다	창세기 6장	18
4. 아브람을 부르심	창세기 11장 27-30절; 12장 1-10절	23
5. 이삭의 출생	창세기 21장 1-21절	27
6. 야곱과 에사오	창세기 25장 19-34절; 27장	32
7. 요셉과 그 형제들	창세기 37장	39
8. 모세의 출생	출애굽기 1장; 2장 1-10절	43
9. 홍해를 건너다	출애굽기 13장 17-22절; 14장	48
10. 십계명	출애굽기 19장 16-25절; 20장 1-21절	53
11.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 10장	58
12. 발람	민수기 22, 23, 24장	63
13. 예리고성의 정복	여호수아 6장	73
14. 드보라와 바락	판관기 4장	78
15. 사무엘의 출생	사무엘상 1장; 2장 1-11절	83
16. 사울을 선택함	사무엘상 9, 10장	89
17. 다윗을 기름붓다	사무엘상 16장	95
18. 솔로몬의 지혜	열왕기상 3장	100
19. 엘리야와 아합	열왕기상 17; 18장	104
20. 아사왕의 통치	열왕기상 15장 9-24절	113
21. 시편에 관해서	열왕기하 23장 1-2절; 시편 1편	117
22. 이사야를 부르심	이사야 6장	121
23. 활활 타는 화덕	다니엘 3장	126
24. 예언자 미가	미가 6장	131
25. 성전의 재건	하깨 1장	135

26. 주님이 세상에 오시다	마태복음 1:18-25; 2:13-23	139
27. 동방박사의 방문	마태복음 2장	144
28. 세례를 받으신 주님	마태복음 3장	149
29. 시험을 받으신 주님	마태복음 4장 1-11절	153
30. 주님의 첫 제자들	마태복음 4장 12-25절	157
31. 산 위에서의 설교	마태복음 5, 6, 7장	161
32. 주님의 공생애	마태복음 8장	169
33.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13장	174
34.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마태복음 17장	180
35. 종려주일	마태복음 21장 1-27절	184
36. 주님의 지상 마지막 주간	마태복음 26, 27장	188
37. 부활하신 주님	마태복음 28장	199
38. 요한의 환상	요한 계시록 1장	204
39.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	요한 계시록 2, 3장	209
40. 거룩한 성	요한계시록 21, 22장	216

1

창조에 관하여

머리말

성경은 세상의 어느 책과도 다르다. 주님께서 그 저자이시며 그 속에 주님 자신에 관한 것과 우리가 천국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가서 살기 위해 알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이 책의 첫 권은 「창세기」로써 “시작”이라는 뜻이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1장, 2장 1-3절

1장: 1.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셨다. 2.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 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3.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4. 그 빛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5.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이 밤, 낮 하루가 지났다.

6. 하느님께서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7.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창공을 만들어 창공 아래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을 갈라 놓으셨다. 8. 하느님께서 그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이튿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9.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0. 하느님께서서는 마른 땅을 물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기 참 좋았다.

11. 하느님께서 “땅에서 푸른 움이 돋아나거라! 땅 위에 낱알을 내는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돋아나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2. 이리하여 땅에는 푸른 움이 돋아났다. 낱알을 내는 온갖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돋아났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13. 이렇게 사흘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14. 하느님께서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밤과 낮을 갈라 놓고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15. 또 하늘 창공에서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6.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만드신 두 큰 빛 가운데서 더 큰 빛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17. 하느님께서서는 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걸어 놓고 땅을 비추게 하셨다. 18. 이리하여 밝음과 어둠을 갈라 놓으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19. 이렇게 나흘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20. 하느님께서 “바다에는 고기가 생겨 우글거리고 땅 위 하늘 창공 아래에는 새들이 생겨 날아 다녀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21. 이리하여 하느님께서서는 큰 물고기와 물 속에서 우글거리는 온갖 고기와 날아 다니는 온갖 새들을 지어 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22. 하느님께서 이것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말씀하셨다. “새끼를 많이 낳아 바닷물 속에 가득히 번성하여라. 새도 땅 위에 번성하여라!” 23. 이렇게 다섯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24. 하느님께서 “땅은 온갖 동물을 내어라! 온갖 짐짐승과 길짐승과 들짐승을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25.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온갖 들짐승과 짐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길짐승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26.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짐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 내시고 28.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 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29. 하느님께서 다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온 땅 위에서 낱알을 내는 풀과 씨가 든 과일나무를 준다. 너희는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30.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도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31.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옛셋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2장: 1. 이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2. 하느님께서 옛셋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3. 이렇게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새로 지으시고 이렛날에는 쉬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해설

다음 질문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자.

- *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무엇입니까?
- * 그 책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 성경의 첫 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 * 누가 성경의 저자입니까?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말해 준다. 하느님은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리고 사람을 내적으로도 완전하게 되도록 만드셨는데 이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사람이 내적으로 완전하게 되기까지의 준비 기간이 “날” 이라고 불리며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창조의 첫 단계가 「빛」이라는 것에 주목하자. 창세기에 따르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었다”라고 쓰여 있다. 여기서의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스웨덴북은 강조한다. 그러면 물리적인 빛 외에 어떤 다른 빛이 있는 것일까? 영어로 “I see”라는 표현이 있다. 이것은 직역하면 “나는 본다”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은 관용구로서 이해가 된다 또는 알았다는 의미로서 “아, 그렇구나”라는 의미로 쓰인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그 순간은 마치 암흑처럼 어둡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해가 되기 시작할 때면 마치 마음속에

빛이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빛은 바로 주님께서 비롯된 진리와 그 진리가 담긴 지식이다. 그래서 빛이 첫 날에 창조 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날에는 물이 나뉘고 하늘과 땅에 구분이 생겼고, 셋째 날에는 물에서 마른 땅이 나타나고 풀과 곡식과 과일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이 나타났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이 창조되고 드디어 여섯째 날에 동물들이 창조되었고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 되었다. 27절을 읽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 동물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리고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고 즐기며 세상의 모든 것을 잘 보살피도록 명령하셨다. 만약 인간이 주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은 그 누구보다 먼저 스스로를 해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그것들을 잘 보살피고 잘 사용하면, 주님께 더욱 신뢰받고 보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2장 3절을 읽어 봅시다. 「복되다」는 것은 행복을 의미하며, 「죄를 씻음」 또는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거룩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주일이 어떤 날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주일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평안하고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날은 남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주일은 주님과 주님에 대한 신앙심을 배우는 기회와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날이기도 하다.

창조 이야기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것은 모두가 상징적인 것이다. 이러한 시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암흑과 같은 무지에서 태어나 이해력이 성장함에 따라 조금씩 발달하며 선한 행실이라는 과일이 열리게 되는 과정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 진정한 남자 또는 여자의 모습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제 각 날에 있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더욱 잘 기억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7일 동안의 일들을 간단히 적어 보자.

- * 첫날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 하셨다.
- * 이튿날에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셨다.

- * 사흘날에 하느님은 씨 있는 풀과 과일나무를 만드셨다.
- * 나흘날에 하느님은 해, 달 그리고 별을 만드셨다.
- * 다섯날에 하느님은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다.
- * 엿새날에 하느님은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다.
- * 이렛날에 하느님은 쉬셨다.

질문 정리

- 1) 우리는 어떤 책을 공부하고 있는가?
- 2)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
- 3) 우리는 성경을 또 다르게 무엇이라고도 부르는가?
- 4) 성경의 처음 말씀은 무엇인가?
- 5) 첫 장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6) 세상과 모든 것이 창조 되는데 며칠이 걸렸을까?
- 7) “날”은 24시간 단위의 하루를 의미하는가?
- 8) 첫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 9) 이튿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 10) 사흘날에 물은 어떻게 되었을까?
- 11) 사흘날에 무엇이 새로 창조 되었을까?
- 12) 나흘날에 무엇이 나타났을까?
- 13) 다섯날에 무엇이 창조 되었을까?
- 14) 몇째 날에 동물이 만들어졌을까?
- 15) 무엇이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을까?
- 16) 인류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 되었을까?
- 17)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말하셨을까?
- 18) 주님은 이렛날에 무엇을 하셨을까?

질문의 답

- 1) 성경 2) 하느님 3) 주님의 책, 말씀, 생명의 책 4) 한 처음에 5) 창조
- 6) 육일 7) 아니다 8) 빛 9) 창공 10) 바다와 마른 땅 11) 풀, 나무들
- 12) 해, 달, 별들 13) 물고기, 새들 14) 여섯째 날 15) 사람 16) 하느님
- 17)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18) 쉬셨다

2

에덴의 동산

머리말

창세기의 1장부터 7장까지는 고대 언어의 표현이 그대로 전해진 것이며 상징성이 강하다. 이 부분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기에 적합한데 그 이유는 어린이들은 단순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생생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기 때문이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2장

2장: 8. 야훼 하느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마련하시고 당신께서 빛어 만드신 사람을 그리로 데려다가 살게 하셨다. 9. 야훼 하느님께서 보기 좋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그 땅에서 돌아나게 하셨다. 또 그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돌아나게 하셨다.

10.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 나와 그 동산을 적신 다음 네 줄기로 갈라졌다. 11. 첫째 강줄기의 이름은 비손이라 하는데, 은과 금이 나는 하월라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12. 그 땅은 좋은 금뿐 아니라 브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 같은 보석이 나는

곳이었다. 13. 둘째 강줄기의 이름은 기혼이라 하는데, 구스 온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14. 셋째 강줄기의 이름은 티그리스라 하는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고, 넷째 강줄기의 이름은 유프라테스라고 하였다. 15.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돌보게 하시며 16. 이렇게 이르셨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 먹어라. 17.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 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18. 야훼 하느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들 짝을 만들어 주리라”하시고, 19.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다.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붙여 준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20. 이렇게 아담은 짐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붙여 주었지만 그 가운데는 그의 일을 거들 짝이 보이지 않았다. 21. 그래서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시고는 22.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 아담에게 데려 오시자 23. 아담은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어미라고 부르리라!” 24. 이리하여 남자는 아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었다. 25. 아담 내외는 알몸이면서도 서로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해설

다음 질문에 답해 보면서 시작해 보자.

- * 성경의 맨 첫 권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창세기의 의미는 무엇일까?
- * 창세기 1장은 무엇에 관한 것일까?
- * 모든 것이 창조되는데 며칠이 걸렸을까?
- * 모든 것을 만들기 시작할 때 주님은 맨 처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 * 무엇이 맨 마지막에 창조 되었을까?
- * 7일째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 *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성경의 몇 장일까?
- * 강은 몇 줄기로 나뉘어 졌을까?
- * 누가 동산에 살고 있었을까?
- * 아담은 동산에서 무엇을 했을까?

앞서 설명했듯이 히브리어에서 아담은 사람을 뜻한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6절에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이다. 따라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는 두 명의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그분을 따를 만큼 충분히 발달된 태고 시대의 인류를 말하는 것이다. 에덴의 동산은 지상에 존재했던 최초의 교회로 스웨덴북은 이를 태고교회(Most Ancient Church)라고 이름한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평화롭고 아름답게 살고 있었다.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던 그들의 상태를 상징하는 “에덴”은 히브리어로 “기쁨”을 뜻한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의존했으며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가 더욱 그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게 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앞장에서는 빛이 진리를 의미한다고 배웠는데, 본장에서는 진리의 또 다른 표현인 ‘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여러분은 “지식에 목말라 있다. -a thirst for knowledge-”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에제키엘 47장 1절부터 5절까지와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읽어 보자. 여기에 묘사된 강은 에덴의 동산에 물을 공급하던 그 강과 같은 것으로 그 강의 물은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4절까지도 읽어보도록 하자.

- * 동산의 한가운데 무슨 나무가 있었을까?
- * 그 외에 또 어떤 나무에 대해서 쓰여 있는가?
- * 하느님이 아담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한 한 가지 일은 어떤 것일까?

아주 옛날의 사람들은 순진하고 행복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했으며 또한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아름다운 상태인 동산의 한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만 나옴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서

주신 선물들을 잘 보살피며 그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그들은 동산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과일 나무 중 그 열매를 먹지 말도록 명령하신 나무가 있었는데 이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란 선과 진리가 주님이 아닌 우리 스스로에게서도 비롯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과일을 먹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다음의 질문을 통해 말씀 안에 있는 몇 가지 비유를 더 살펴보도록 하자.

* 아담이 잠들었을 때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 주님은 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을까?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이야기 또한 비유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의 하나는 외로움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매우 해롭다는 것이다. 주님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 하셨다. 그러므로 결혼은 처음부터 주님의 뜻에 의해 신성한 것으로 특별히 구별되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차차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것이다.

질문 정리

- 1) 성경은 누구의 말씀인가?
- 2) 성경의 첫 번째 책 이름은 무엇인가?
- 3) 창세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 4) 첫 장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5) 주님은 며칠 동안 모든 것을 창조 하셨을까?
- 6) 무엇이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을까?
- 7) 사람은 누구와 닮게 창조되었을까?
- 8) 주님은 7일째 무엇을 하셨을까?
- 9) 주님은 첫 사람들을 어디에 살게 하셨을까?
- 10) 첫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이 주어졌을까?
- 11) 아담은 무엇을 의미할까?

- 12)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까?
- 13) 물은 동산에 어떻게 공급되었을까?
- 14) 강은 몇 개의 물줄기로 나뉘었을까?
- 15) 무슨 나무로부터의 것을 먹지말라고 말해졌는가?
- 16) 아담은 무엇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
- 17) 아담이 잠들었을 때 주님은 그로부터 무엇을 빼내셨을까?
- 18) 주님께서 그 갈비뼈로 무엇을 만드셨을까?

질문의 답

- 1) 하느님 2) 창세기 3) 시작 4) 창조 5) 육 일 6) 사람 7) 하느님 9) 에덴의 동산 8) 쉬셨다 10) 아담 11) 인류 12) 돌보고 가꾸는 일 13) 강 14) 네 개 15) 선악에 관한 지식 16) 동물들과 새들 17) 갈비뼈 18) 여자

3

노아가 방주를 짓다

머리말

뱀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들은 인간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자아와 스스로의 욕망에만 집착함으로써 순진함, 천적인 상태 그리고 선행에 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 즉 악의 근원에 대해 알려 주고 있다. 본장을 통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것 그리고 인간이 주님께 첫 번째로 불순종한 것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자.

성 서 본 문: 창세기 6장

6장: 1. 땅 위에 사람이 불어나면서부터 그들의 딸들이 태어났다. 2. 하느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대로 아리따운 여자를 골라 아내로 삼았다. 3. 그래서 야훼께서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사람은 백 이십 년밖에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4. 그 때 그리고 그 뒤에도 세상에는 느빌림이라는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옛날부터 이름난 장사들이었다. 5. 야훼께서는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마다 못된 생각만 하는 것을 보시고 6. 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싶으시어 마음이 아프셨다. 7. 야훼께서는 “내가 지어 낸 사람이지만, 땅 위에서 쓸어버리리라. 공연히 사람을 만들었구나.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는 것과 공중에 새까지 모조리 없애 버리리라. 공연히 만들었구나”하고 탄식하셨다. 8. 그러나 노아만은 하느님의 마음에 들었다. 9.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 당시에 노아만큼 올바르고 흠없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 10. 노아는 썸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11. 하느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너무나 썩어 있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12. 하느님 보시기에 세상은 속속들이 썩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땅 위에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 13.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은 이제 막판에 이르렀다. 땅 위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저것들을 땅에서 다 쓸어버리기로 하였다. 14. 너는 전나무로 배 한 척을 만들어라. 배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여라. 15. 그 배는 이렇게 만들도록 하여라. 길이는 삼백 자, 나비는 오십 자, 높이는 삼십 자로 하고, 16. 또 배에 지붕을 만들어 한 자 치켜 올려 덮고 옆에는 출입문을 내고, 상 중 하 삼층으로 만들어라. 17. 내가 이제 땅 위에 폭우를 쏟으리라. 홍수를 내어 하늘 아래 숨 쉬는 동물은 다 쓸어버리리라. 땅 위에 사는 것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18. 그러나 나는 너와 계약을 세운다.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 들어가거라. 19. 그리고 목숨이 있는 온갖 동물도 암컷과 수컷으로 한 쌍씩 배에 데리고 들어 가 너와 함께 살아남도록 하여라. 20. 온갖 새와 온갖 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온갖 길짐승이 두 마리씩

너한테로 올 터이니 그것들을 살려 주어라. 21.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온갖 양식을 가져다가 너와 함께 있는 사람과 동물들이 먹도록 저장해 두어라.” 22. 노아는 모든 일을 하느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해설

아래 질문으로 공부를 시작해보자

- * 주님은 최초의 사람을 어디에 놓으셨는가?
- * 에덴의 동산은 어떻게 물이 공급되었을까?
- * 동산의 중앙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을까?
- * 주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아담과 이브가 주님께 불순종한 후 그들에게 내려진 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닌 그들 안에 존재하던 아름다운 순진함을 잃게 된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것으로 상징된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잘못 또는 실수를 한 후 그것들에 대해 제때에 용서를 받지 않거나 변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다가 일을 더욱 나쁘게 한 경험이 한 번 정도는 있을 것이다. 어릴 때의 우리들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여 분노를 사게 하거나 누군가를 상하게 한 후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도둑이나 살인자들 또한 한 때는 순진한 아이들이었다. 그들이 어떻게 나쁜 길로 빠져 구제불능에 이르게 되는지 생각해 보자. 누구도 단번에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이와 같이 태고교회의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에 존재하던 에덴의 동산이 닫힌 후 점진적으로 나빠지게 되어 그들의 지성과 심정에 주님이 아무 것도 해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그들은 이기적인 것 외에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이기심에서 비롯된 거짓들이 인간의 모든 것을 뒤엎어 버리는 것이 홍수로 묘사된다.

하지만 태고교회의 사람들 중에 소수의 선한 이들이 있었고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안에서 살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배로 그것을 상상한다. 그러나 사실 방주(Ark)라는 단어의 뜻은 궤 또는 상자이다. 노아의 방주를 제외하고도 유명한 궤(Ark)가 두 개 더 있다. (출애굽기 2장 3절과 25장 10절) 노아

의 방주는 우리의 이기적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나쁜 사고와 욕심들인 홍수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스웨덴북은 방주는 주님의 섭리에 따라 지어진 강한 인격을 상징한다고 한다. 우리가 성경을 더욱 자세히 읽고 공부하면, 노아의 방주의 세세한 부분이 상징하는 의미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에 앞서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이 방주의 세세한 구조를 살펴보자.

- * 방주는 무엇으로 지어졌을까?
- *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했을까?
- * 배는 몇 층으로 되었을까?
- * 배의 내부 구조는 어떠했을까?
- * 문은 어디에 있었을까?
- * 창문은 어디에 있었을까?

방주를 공부하는 데 있어 창문과 문의 상응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은 결국 인격이라는 마음이 거주하는 집을 수단으로 서로 교류하는 것이다. 이렇게 남과 교류하는 것이 바로 방주에 있는 문으로 상징된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을 항상 순수하고 친절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주님께 소망해야 하는데, 그것은 순수하고 친절한 마음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천국과 교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섭리에 의해 우리의 마음 안에는 천국을 향해 항상 열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방주의 위쪽에 있는 창문이다. 이 창문이 상징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심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심인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새들과 동물들은 우리의 마음을 이루는 모든 생각들과 애착들을 상징한다. 주님께서 왜 방주의 문만을 닫으셨을까? 공항에서 큰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보자. 모든 사람이 비행기에 탑승한 후 그 문이 닫혀진다. 이는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때까지 탑승객이 비행기 밖으로 뛰어 내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예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데 그것은 방주 안에 있는 좋은 생각들과 애착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방주의 크기는 큐빗으로 측량되고 있다. 「큐빗」은 원래 “구부림”을 의미하는 단어로

팔을 구부리는 것 또는 팔꿈치를 의미하게 되었다. 측량도구가 없었던 고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팔로 그것을 대신했다. 1큐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뜻한다. 그것은 실제 1.5feet보다 약간 적은 것으로 방주의 길이는 450feet, 넓이는 75feet, 높이는 45feet 정도가 된다. 큐빗 단위로 보면 길이는 300큐빗, 넓이는 50큐빗, 높이는 30큐빗이다. 성경에 있는 숫자들은 모두 의미가 담겨 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숫자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 또한 쉽게 깨닫게 된다.

질문 정리

- 1) 주님은 첫 사람을 어디에 놓으셨을까?
- 2) 첫 사람들은 그 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 3) 에덴의 동산에 물은 어떻게 공급되었을까?
- 4) 에덴의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는 무엇일까?
- 5) 에덴의 동산에는 어떤 나무들이 있었을까?
- 6) 주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금하셨을까?
- 7) 주님은 아담이 잠들어 있는 동안 그로부터 무엇을 취하셨을까?
- 8) 주님은 그것으로 무엇을 만드셨을까?
- 9) 첫 사람은 어떻게 주님께 불순종 했을까?
- 10) 주님께 불순종한 그들은 어떤 벌을 받았을까?
- 11) 그들은 회개했을까?
- 12) 주님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셨을까?
- 13) 주님은 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을까?
- 14) 주님은 노아에게 무엇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 15) 우리는 방주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까?
- 16)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였을까?
- 17)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18) 노아는 방주로 무엇을 들어오게 했을까?

질문의 답

- 1) 에덴의 동산 2) 지키고 잘 돌보았다 3) 강 4) 생명나무 5)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 6) 지식의 나무로부터의 것을 먹는 것 (eat of tree of knowledge)
- 7) 갈비뼈 8) 여자 9) 금지된 열매를 먹었다 10) 동산으로부터 쫓겨남 11) 아니다 12) 인류를 멸하기로 13) 그들은 선했기 때문에 14) 방주 15) 전나무, 역청, 3층, 칸막이 방들, 창문, 문 16) 아내, 아들, 며느리 17) 썸, 함, 야벳 18) 창조물의 쌍들

4

아브람을 부르심

머리말

시간이 흐르자 노아의 후손들 또한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처럼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다. 결국 그들은 함께 어울려 살 수 없을 정도로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어 지상의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도덕적 교훈은,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의 일원이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 집단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균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서 본문: 창세기 11장 27-30절, 12장 1-10절

11장: 27. 데라의 후손은 다음과 같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28. 하란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29.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았는데,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래요, 나홀의 아내는 밀가였다. 밀가는 하란의 딸로서 이스가와는 동기간이었다. 30. 사래는 잉태를 하지 못하는 몸이었으므로 자식이 없었다. 31.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아들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길을 떠나다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다 자리잡고 살았다. 32. 데라는 이백 오 년을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

12장: 1.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2.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네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 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3.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네 덕을 입을 것이다.” 4. 아브람은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함께 떠났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람의 나이는 칠십 오 세였다. 5. 아브람은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다. 6. 아브람은 가나안 땅을 거쳐 모래의 상수리나무가 있는 세겜 성소에 이르게 되었다. 그 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7.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다. 아브람은 야훼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아 야훼께 바쳤다. 8. 아브람은 그 곳을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악지대로 옮겨 가서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기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아브람은 거기에 제단을 쌓아 야훼께 바치고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를 드렸다. 9. 아브람은 다시 길을 떠나 네겟 쪽으로 옮겨 갔다. 10. 마침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이 너무나 심하여 아브라함은 에집트에 몸붙여 살려고 옮겨 간 일이 있었다.

해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공부해 보자.

- * 태고 교회 사람들에게 일어난 마지막 일은 무엇이었나?
- * 누가 구원되었는가?
- * 어떻게 구원되었는가?
- * 노아는 가족 외에 무엇을 방주에 들었나?
- * 비는 얼마나 오랫동안 내렸을까
- * 데라가 살았던 곳은 어디인가?
- * 데라는 아들을 몇이나 두었나?
- * 데라의 아들 중 누가 우르에서 죽었나?
- * 데라의 아들 중 누가 떠나지 않고 남았나?
- * 주님은 데라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 아브람은 왜 더 여행했을까?
- * 주님은 아브람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
- * 누가 그와 함께 갔을까?
- * 그들은 어떤 땅에 있었을까?
- * 아브람이 처음 도착한 거룩한 땅은 어디인가?
- *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어디인가?
- * 아브람은 도착지에서 무엇을 만들었을까?
- * 아브람은 처음 도착지에서 왜 정착할 수 없었을까?
- * 흉년은 무엇인가?
- * 아브람은 흉년으로 인해 어디로 갔는가?

홍수가 끝난 뒤 지상에 새로 정착한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들이었다. 그들은 처음엔 매우 선했지만 점점 스스로의 욕망을 선택해서 사는 것을 원했고 결국 그들 자신의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보다 우월한 것으로 착각했다. 창세기 11장 1-9절에 나오는 바벨탑의 이야기는 인간이 스스로를 높이 세우려고 애쓰는 모습을 묘사한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스스로의 이기심 때문에 멸망되지 않도록 그들을 흩어 버리신 것이다. 바벨탑 사건 다음의 성경 말씀은 족보와 같다. 우리는 그 기록을 보고 당시의 사람들이 현대인보다 더 오래 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그 이름들은 하나의 집단을 상징하는 것으로 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한 아브람과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성서 지도를 통해 살펴보자. 그 당시는 오늘날과 같은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행은 아주 길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들은 걸거나 혹은 나귀를 타고 여행했고 가족들을 몰고 가야했기에 자주 쉴 수밖에 없었고 밤이 되면 텐트를 치고 가족들을 지켜야 했다. 나홀과 그의 가족은 여행을 끝내기로 결정한 뒤 그들이 정착한 곳을 우르에서 죽은 하란의 이름을 따서 '하란'이라고 불렀다. 그곳은 종종 나홀성이라고도 불리는데 우리는 이 성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한다.

우리는 아브람(Abram)을 아브라함(Abraham)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주님 스스로 여호와(Jehovah)중의 “h”를 아브람의 이름에 붙여 바꿔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아브람의 아내 「사래(Sarai)」를 「사라(Sarah)」로 바꿔 이름 지으셨다. 주님이 이들의 이름을 바꾸신 이유는, 이들이 흉년이 들어 이집트에 갔다가 되돌아와 가나안 땅에 영구적인 고향을 만들어 과거 보다 더 주님과 가까이 교류했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 1) 성경의 첫 11장까지는 역사적 사실인가?
- 2) 성경에 언급된 첫 실제 인물은 누구인가?
- 3) 지상에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은 누구인가?
- 4) 아브람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 5) 아브람의 형제는 누구인가?
- 6) 아브람의 아내는 누구인가?
- 7) 그들은 어디에서 살았는가?
- 8) 주님은 그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는가?
- 9) 그들이 첫 번째 멈춘 곳은 어디인가?
- 10) 누가 하란으로부터 떠나 계속 여행을 했는가? 롯은 누구인가?
- 11) 주님은 아브람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 12)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머문 곳은 어디인가?
- 13) 아브람이 두 번째 멈춘 곳은 어디인가?

- 14) 아브람은 멈춘 두 장소에서 무엇을 지었는가?
15) 그 후, 아브람은 어디로 갔으며 왜 그곳으로 갔는가?

질문의 답

- 1) 아니다 2) 에벨 3) 아브람 4) 데라 5) 하란, 나홀 6) 사래 7) 갈대아의 우르 8) 가나안 9) 하란(나홀의 성) 10) 아브람과 롯, 아브람의 조카 11)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12) 세겔 13) 베델 근처 14) 제단 15) 에집트, 흉년 때문에

5

이사악의 출생

머리말

첫 번째 합리성을 의미하는 이스마엘과 두 번째 합리성을 의미하는 이사악의 대조를 위해 먼저 이스마엘의 출생에 관한 재검토와 상속자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보자.

성 서 본 문: 창세기 21장 1-21절

21장 1. 야훼께서는 약속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2. 사라가 임신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3.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 준 아들을 이사악이라 이름지어 불렀다.
4. 하느님의 분부를 따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사악이 태어난 지 팔 일만에 할례를 베풀었다. 5. 아브라함이 아들 이사악을 얻은 것은 백 살이 되던 해였다. 6. 사라가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모두들 나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구나. 7.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리라고 말할 꿈이나 꾸었더냐? 그런데 그 노력에 아들을 얻으셨구나.” 8. 아기가 자라나 젖을 뗄 때가 되었다. 이사악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9. 그런데 사라는 에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사악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10.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 계집종과 아들을 내쫓아 주십시오. 그 계집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사악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11.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이스마엘도 자기 혈육이었기 때문이다. 12. 그러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애와 네 계집종을 걱정하여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어 주어라. 이사악에게서 난 자식이라야 네 혈통을 이룰 것이다. 13. 그러나 이 계집종의 아들도 네 자식이니 내가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14.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양식 얼마와 물 한 부대를 하갈에게 메어 주며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하였다. 하갈은 길을 떠나 얼마쯤 가다가 브엘세바 빈들을 헤매게 되었다. 15. 부대의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덩불 한 구석에 아들을 내려 놓고 16. “자식이 죽는 것을 어찌 눈 뜨고 보랴”고 탄식하며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아 이스마엘을 바라 보았다. 하갈은 이스마엘이 소리내어 우는데도 주저앉아 그저 바라만 보았다. 17. 하느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천사를 시켜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셨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나? 걱정하지 말아라. 하느님께서 저기서 네 아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18. 어서 가서 아이를 안아 일으켜 주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19. 하느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 주시니, 그의 눈에 샘이 보였다. 하갈은 큰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20.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셨다. 그는 자라서 사막에서 살며 활을 쏘는 사냥꾼이 되었다. 21. 그는 바란 사막에서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며느리감을 에집트 땅에서 골라 맞아 들였다.

해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거룩한 땅을 물려받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며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주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일부다처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옳지 않은 것을 행한 것이 아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더욱 상세히 공부해 보자.

- * 아브라함과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사라는 왜 하갈을 내쫓으려고 했는가?
- * 주님은 어떻게 하갈을 구원하셨는가?
- *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이사악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은 몇 살이었나?
- * 이스마엘의 어떤 행동이 사를 화나게 했는가?
- * 주님은 하갈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셨는가?
- * 자기보다 더 나은듯 싶은 사람들을 시기하고 조롱하고 싶었던 적이 있는가?
- *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해 달라고 했는가?
- *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에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 *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 * 이스마엘은 자라서 무엇이 되었는가?
- * 이스마엘의 아내는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 *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하갈은 주님께 순종하고 자기 주인에게 되돌아갔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그를 얻어 매우 흡족 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며 사라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그때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다.

임신했음을 알게 된 하갈의 거만한 행동과 이사악을 조롱했던 이스마엘의 어리석은 행동을 상기해 보자. 그들의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가 사물의 겉만 보고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성급함이나 어리석음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여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젊은 시절에 더 많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라는 하갈의 거만함과 이스마엘의 어리석음에 대해 화를 냈다. 부모가 자녀들이 더 이상 타일리지

지 않으면 매를 드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의 영적 불순종이 도를 넘으면 우리에게 더 힘든 시험을 허용하신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순종적이고 바를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들을 언제나 보호해 주신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물과 양식을 주어 그들을 멀리 떠나보냈고 그들은 또다시 광야로 쫓겨났다. 그 후 하갈은 자기 스스로 샘을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죽게 된다고 생각하며 통곡했다. 성경에 "하느님(God)께서 그 아이(lad)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의 눈에 샘이 보였다."는 구절이 있다. 이것은 하갈이 눈을 감고 광야를 배회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눈(eyes)"은 일반적인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으며 여기서 눈은 마음의 「눈」을 뜻한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의도적으로 마음의 눈을 감기도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실로 옳은 것을 행하는 대신 우리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 행하고자 할 때 마음의 눈을 닫아 버린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만을 위했던 행동으로 인해 큰 시험에 부딪치게 되면 도움을 청하는 애원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 진다. 이것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통곡하는 순간이다. 주님께서 하갈에게 샘을 보여 주신 것같이 그분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진리를 볼 수 있게 하신다.

질문 정리

- 1) 지상의 두 번째 교회의 종말을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는 무엇인가?
- 2) 그 속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일어났는가?
- 3)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 어느 가정을 택하셨는가?
- 4) 그들은 어디서 살았는가?
- 5)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6)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던 중 멈춘 곳은 어디인가?
- 7) 누가 가나안으로 계속 갔는가?
- 8) 아브람이 제단을 쌓은 가나안의 두 장소는 어디인가?
- 9) 왜 그는 이집트로 갔는가?

- 10) 그는 이집트에서 돌아 온 후 어디에 정착했는가?
- 11)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 12)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었는가?
- 13) 사라는 아브라함의 대를 어떻게 잇게 했는가?
- 14) 하갈의 아들 이름은 무엇인가?
- 15) 주님께서 이스마엘에 관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 16)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였는가?
- 17) 사라의 아들 이름은 무엇인가?
- 18) 이스마엘의 어떤 행동이 사라를 불쾌하게 했는가?
- 19)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는가?
- 20)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 21)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디로 갔는가?
- 22) 천사는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가?
- 23) 이스마엘은 무엇이 되었는가?
- 24) 이스마엘은 어느 나라에서 자기의 아내를 구했는가?

질문의 답

- 1) 바벨탑 2) 흠트려짐 3) 아브람(에벨, 데라) 4) 갈대아의 우르
- 5) 가나안으로 가라 6) 하란 7) 아브람, 사라, 롯 8) 세겜, 베델 9) 기근
- 10) 헤브론 11) “바다의 모래같이 불어나리라” 12) 아들 13) 하갈을 그의 아내로
 줌 14) 이스마엘 15)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16) 백 세 17) 이사악 18)
 이사악을 조롱했다 19)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 20) 사라의 말을 따라라 21) 사막(광야) 22)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 23) 활 쏘는 자 24) 이집트

6

야곱과 에사오

머리말

본장에서는 쌍둥이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보고 아브라함이 이사악의 아내를 하란에서 취해오는 과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25장 19-34절, 27장

25장: 19. 아브라함의 아들 이사악의 역사는 아래와 같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 이사악이 태어났는데, 20. 이사악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을 때 그의 나이는 사십 세였다. 리브가는 바딤아람에 사는 아람 사람 브두엘의 딸로서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였다. 21.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 못하였으므로 이사악은 야훼께 아기를 갖게 해 달라고 빌었다. 야훼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주시어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22. 뱃속에 든 두 아이가 서로 싸우므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디 살겠는가!”하면서 야훼께 까닭을 물으러 나갔다. 23. 야훼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태에는 두 민족이 들어 있다.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두 부족으로 갈라졌는데,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억누를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24. 달이 차서 몸을 풀고 보니 쌍둥이였다. 25. 선동이는 살결이 붉은데다가 온 몸이 털투성이였다. 그래서 이름을 에사오라 하였다. 26. 후동이는 에사오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은 것은 이사악이 육십 세 되던 해였다. 27. 두 아들이 자라나, 에사오는 날쌔 사냥꾼이 되어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질이 차분하여 천막에 머물러 살았다. 28. 이사악은 에사오가 사냥해 오는 고기에 맛을 들여 에사오를 더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 29. 하루는 에사오가 허기져 들에서 돌아 와 보니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30.

에사오가 야곱에게 “배고파 죽겠다. 그 붉은 죽 좀 먹자”하였다.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고도 부르는 데는 이런 사연이 있다. 31. 야곱이 형에게 당장 상속권을 팔라고 제안하자 32. 에사오는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상속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였다. 33. 그러나 야곱은, 먼저 맹세부터 하라고 다그쳐 요구하였다. 에사오는 맹세하고 장자의 상속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겼다. 34. 그리고 에사오는 야곱에게서 떡과 불콩죽을 받아 먹은 후에 일어나 나갔다. 이렇게 에사오는 자기의 상속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27장: 1. 이사악은 늙어 눈이 어두워졌다. 어느 날 그는 큰아들 에사오를 불렀다. “얘야!” “예, 어서 말씀하십시오.” 2. “너도 보다시피 내가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 3. 그러니 너는 사냥할 때 쓰는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에 나가 사냥을 해다가 4.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정성을 쏟아 너에게 복을 빌어 주리라.” 5. 리브가는 이사악이 아들 에사오에게 하는 이 말을 엿듣고는 에사오가 사냥하러 들에 나간 틈을 타서 6. 아들 야곱에게 귀뜸해 주었다. “아버지가 네 형 에사오에게 7. 사냥해다가 별미를 만들어 오라시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것을 잡수시고 에사오에게 복을 빌어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8. 그러니 야곱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여라. 9. 양떼들한테 가서 살진 염소 새끼 두 마리만 끌어 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아버지 구미에 맞게 잘 요리해 줄 터이니 10. 그것을 아버지께 갖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잡수시고 세상을 뜨시기 전에 너에게 복을 빌어 주실 것이다.” 11.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형 에사오는 털이 많고 저는 이렇게 털이 없습니다. 12. 아버님이 저를 만져 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아버님을 놀리거나 한 것처럼 되어 복은커녕 도리어 저주를 받을 것 아닙니까?” 13.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야곱아,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으며,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어서 가서 염소 새끼나 끌어 오너라.” 어머니의 말대로 14. 야곱은 염소 새끼 둘을 어머니에게 끌고 왔다. 어머니는 남편 구미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15. 리브가는 집에 보관해 두었던 큰아들 에사오의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16. 염소 새끼 가죽을 매끈한 손과 목에 감아 준 다음, 17. 장만해 놓은 별미와 구운 빵을 아들 야곱의 손에 들려주었다. 18. 야곱은 아버지한테 들어 가 “아버지!”하고 불렀다. 아버지

이사악이 “오냐, 네가 누구냐?”하고 묻자 19. 야곱이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님의 맏아들 에사오입니다. 아버님 분부대로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해다가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사악이 아들에게 물었다. “에사오야! 무슨 수로 이렇게 빨리 잡아 왔느냐?” “아버님의 하느님 야훼께서 짐승을 금방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사악은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사오인지 만져 보아야 겠다”하면서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22. 가까이 온 야곱을 만져 보고 이사악은 중얼거렸다. “말소리는 야곱의 소린데 손은 에사오의 손이라!” 23. 그는 야곱의 손에 형 에사오의 손처럼 털이 많았으므로 야곱인 줄 모르고 그에게 복을 빌어 주기로 하였다. 24. 이사악은 “네가 틀림없는 내 아들 에사오냐?”하고 다짐하였다. 야곱이 “예, 그렇습니다”하고 대답하자 26. 이사악은 “에사오야! 사냥한 것을 이리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정성을 쏟아 너에게 복을 빌어 주리라”하였다. 야곱이 가져다 바치는 요리와 술을 먹고 마신 뒤 26. 아버지 이사악은 야곱에게 “에사오야, 이리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 다오”하였다. 27. 그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자 이사악은 야곱이 입은 옷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고 복을 빌어 주었다. “아! 내 아들에게서 풍기는 냄새, 야훼께 복 받은 들 향기구나.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이슬로 땅이 기름져 오곡이 풍성하고 술이 넘쳐 나거라. 못 백성은 너를 섬기고 못 족속들은 네 앞에 엎드리리라. 너는 네 겨레의 영도자가 되어 네 동기들이 네 앞에 엎드리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빌어 주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30. 야곱이 아버지 이사악이 빌어 주는 복을 받고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형 에사오가 사냥에서 돌아 왔다. 31. 그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들고 들어 가 권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해 다가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32. 아버지 이사악이 “대체 너는 누구냐?”고 물었다. “저는 아버님 맏아들 에사오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33. 이사악은 그만 기가 막혀 부들부들 떨며 말하였다. “누군가가 벌써 사냥해다가 만든 요리를 나에게 가져왔었다. 네가 오기 전에 나는 그 요리를 받아 배부르게 먹고 그에게 이미 복을 빌어 주었다. 그 복은 어쩔 수 없이 그의 것이다.” 34. 에사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통곡하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35. “네 동생이 와서 속임수로 너에게 돌아 갈 복을 가로챘구나.”

36. 이 말을 듣고 예사오는, “나를 두 번씩이나 뒷발질하라고 그 녀석의 이름이 야곱이었던가? 저번에는 내 상속권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내가 받을 복마저 가로채는구나!” 하며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은 하나도 남겨 두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37. 이사악이 예사오에게 대답하였다. “도리에는 어긋나지마는 나는 야곱을 너의 상전으로 삼고, 모든 동기를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그에게는 곡식과 술도 떨어질 날이 없을 것이다. 예사오야,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을 해 줄 수 있겠느냐?” 38. 그러나 예사오는 거듭 애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빌어 주실 복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입을 다문 채 말이 없는 이사악 앞에서 예사오는 목 놓아 울었다. 39. 아버지 이사악이 아들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살 땅은 기름지지 않은 땅,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이다. 칼만이 너의 밭줄이 되리라. 너는 아우를 섬겨야 할 몸 너 스스로 힘을 길러 그가 썩워 준 멍에를 목에서 떨쳐 버려야 하리라.” 41. 예사오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복을 빌어 준 일로 야곱을 미워하였다. 예사오는 속으로 “아버지 상을 입을 날도 멀지 않았으니, 그 때 동생 야곱을 없애 버리리라”고 마음먹었다. 42. 리브가는 큰아들 예사오가 한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놓고 일렀다. “큰일 났다. 형 예사오가 너를 죽이지 않고는 속이 풀리지 않을 모양이다. 43. 그러니 야곱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곧 하란으로 몸을 피해 라반 아저씨를 찾아 가거라. 44. 네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잠시 외삼촌 댁에 가 있거라. 45. 네 형의 노여움이 풀려 네가 한 일을 잊을 만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데려 오마. 한꺼번에 너희 두 형제를 잃고서야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46. 리브가가 이사악에게 호소하였다. “헛 여자들이 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만일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저 따위 헛 여자를 아내로 맞는다면 무슨 살 맛이 있겠습니까?”

해설

다음의 질문을 통해 본장을 공부해 보자.

- * 이사악은 누구와 결혼했는가?
- * 이사악의 아내는 어디 출신인가?

- * 이사악과 리브가의 쌍둥이 형제 이름은 무엇인가?
- * 그들 중 누가 큰 아들인가?
- * 그들은 서로 어떻게 달랐는가?
- * 이사악은 아들 중 누구를 좋아했는가?
- * 리브가는 아들 중 누구를 더 예뻐했는가?
- * 이사악은 에사오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
- * 리브가는 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기를 원했는가?
- * 리브가는 어떻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도록 했는가?
- * 하란은 어디에 있는가?
- *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었는가?

에사오는 “털이 많음”을 뜻하며, 에사오의 다른 이름인 에돔(Edom)은 붉음을 의미한다. 그는 성경에서 몇 차례 이스라엘의 적으로 등장하는 에돔족의 조상이기도 하다.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을 보면 에사오와 야곱이 어떤 나쁜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영어 성경(King James Version)에는 우리에게 친숙치 않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중 진한 스프(pottage)란 냄비에 요리된 어떤 것 즉 죽(soup) 또는 몽글하게 끓인 음식(stew)을 뜻한다. 또한 소-드(sod)는 씨쓰(seethe)의 옛 과거 시제이며 “끓은(boiled)”을 뜻한다. 「장자 상속권」은 가정의 아버지가 죽게 되면 가족 중 만아들이 물려받게 되는 권리로서, 만아들이 그 가족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뜻한다. 렌틸(lentils)은 콩 또는 팥류에 속한 붉은 것의 하나이다.

야곱은 형의 배고픔과 성격적 약점을 이용해 큰 이익을 취하는 나쁜 행동을 했고 에사오는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기의 중요한 권리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우리가 순간적인 궁핍함을 위해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우리는 “팔죽 한 그릇을 위해 나의 특권(birth right)을 팔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특권이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 31-34절까지 읽어 보자. 우리는 주님께 관해 배우고 순종함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inheritors)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르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때 그분의 뜻에 비추어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나쁜 지를 판단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와 달리

동물은 오로지 본능에 따라서만 움직인다. 따라서 우리가 자연적 욕구로 스스로를 통치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를 동물의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며 이는 곧 “우리의 특권을 파는 것”이다.

이사악이 아주 늙어 앞을 못보게 되자 그는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았다. 그래서 이사악은 장자에게 주는 특별한 축복을 예사오에게 주려고 했다. 이것은 고대인들의 특별한 관습이었고 그에 관련된 몇 가지 예들은 성경에도 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사악에게 가까이 갔을 때 이사악은 매우 의아해 하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예사오의 손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이사악은 야곱에게 축복을 내렸으며, 야곱이 물러가고 예사오가 사냥한 사슴고기 요리를 가지고 왔을 때 비로소 야곱이 그를 속인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사악은 정말로 축복을 주시는 분은 주님 한 분 뿐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내린 축복을 취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곱은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 쓴 속임에 대해 아버지로부터 어떤 벌도 받지 않았지만, 그는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쳐야 했고 오랜 세월동안 고향에서 떠나 있어야 했다. 먼 훗날 야곱은 결국 그의 형에게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빌었다.

주님께서는 각각의 연령과 비슷한 상태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교훈을 주시며 우리의 잘못된 행위들도 선용되도록 하신다. 우리는 본장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설령 누군가가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더라도 그가 행한 모든 것을 옳다고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 약삭빠르게 행동했던 것과 그러한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예사오의 화급함을 볼 때, 주님의 축복하심이 꼭 그 사람의 인격에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들을 축복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야곱을 구하려는 리브가의 계획 역시 선용하셨다. 야곱은 화가 난 예사오에게서 구해지기는 하지만 아주 멀리 떠나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여 행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 시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명하고 올바른 삶을 선택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더 어렵고 긴 여정을 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질문 정리

- 1) 이사악은 누구와 결혼했는가?
- 2) 그 여자는 어디 출신이었나?
- 3) 이사악과 리브가의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4) 형은 누구인가?
- 5) 그들의 생김새는 어떻게 달랐는가?
- 6) 에사오는 야곱에게 무엇을 팔았는가?
- 7) 그는 무엇을 얻었는가?
- 8) 이사악이 예뻐한 아들은 누구인가?
- 9) 리브가가 예뻐한 아들은 누구인가?
- 10) 리브가는 이사악이 늙자 야곱이 그를 어떻게 속이도록 도왔는가?
- 11) 이사악은 에사오에게 주었어야 할 것을 야곱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 12) 이에 대해 에사오의 감정은 어떠했는가?

질문의 답

- 1) 리브가 2) 하란 3) 에사오와 야곱 4) 에사오
- 5) 에사오는 털이 많고 붉음, 야곱은 매끈매끈 했음 6) 장자의 권리
- 7) 팔죽 8) 에사오 9) 야곱
- 10) 맛있는 고기 요리를 준비 시키고 야곱의 손에 염소 가죽을 씌워 주었다
- 11) 장자의 복 12) 야곱을 죽이길 원했다

7

요셉과 그 형제들

머리말

야곱이 20년간 하란에 머물면서 있었던 일 즉 레아와 라헬에 대한 이야기, 아들들의 출생, 베델에서의 주님의 약속, 그리고 가나안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야곱의 간절함을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37장

37장: 1. 한편 야곱은 자기 선친이 유랑민으로서 머문 적이 있던 땅 가나안에 자리를 잡았다. 2.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요셉은 열 일곱 살이 되어 형들과 함께 양을 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두 소실 빌하와 질바의 아들들을 거들어 주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그들을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 3. 이스라엘은 요셉을 늘그막에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어느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장신구를 단 옷을 지어 입히곤 하였다. 4. 이렇게 아버지가 유별나게 그만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형들은 미워서 정다운 말 한 마디 건넬 생각이 없었다. 5. 한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는데 그 때문에 형들은 그를 더 미워하게 되었다. 6. “내가 꾸 꿈 이야기를 들어 봐요”하며 그는 이야기를 꺼냈다. 7. “글쎄, 밭에서 우리가 곡식 단을 묶고 있는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단이 둘러 서서 내가 묶은 단에게 절을 하지 않겠어요?” 8. “네가 정말 우리에게 왕 노릇할 셈이냐? 네가 정말 우리에게 주인 노릇할 셈이냐?”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9. 그 후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는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또 했다. “글쎄, 내가 꿈을 또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 열 하나가 내게 절을 하더군요.”

10. 그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가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네가 꾸 꿈이 대체 무엇이나? 그래,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너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11. 형들은 그를 질투했지만, 아버지는 그 일을 마음에 두었다. 12.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러 세겜으로 갔을 때, 13.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일렀다. “얘야,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네가 갔다 와야 하겠다.” 그가 대답하였다. “네, 가지요.” 14. “네 형들도 잘 있고 양들도 잘 있는지 알고 싶으니 가서 보고 오너라.” 그는 이렇게 이르고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 보냈다. 요셉은 세겜에 이르러 15. 들판을 헤매다가 한 사람을 만났다. 그가 “누굴 찾느냐?”고 요셉에게 물었다. 16. “저의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형들이 어디서 풀을 뜯고 있는지 알거든 알려 달라고 했다. 17. 그가 대답하였다. “벌써 여기를 떠났다. 도다인으로 가자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도다인으로 찾아 가 거기에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다. 18. 형들은 멀리서 알아보고 그가 다다르기 전에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19. “야, 꿈장이가 오는구나. 20. 저 녀석을 죽여 아무 구덩이에다 처넣고는 들 짐승이 잡아 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보자.” 21. 그러나 르우벤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그들의 손에서 그를 건져 낼 속셈으로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고 하였다. 22. “피만은 흘리지 말아라. 그 녀석을 이 빈들에 있는 구덩이에 처넣고 손만은 대지 말아라.” 르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 내어 아버지께로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다. 23. 이윽고 요셉이 다다르자 그들은 요셉에게서 옷을 벗겼다. 그것은 장신구를 단 옷이었다. 24. 그리고는 그를 잡아 구덩이에 처넣었는데 그 구덩이는 물 없는 빈 구덩이였다. 25.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는데, 마침 길르앗으로부터 낙타를 몰고 오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향고무와 유향과 몰약을 낙타에 싣고 예집트로 가는 길이었다. 26.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그래도 우리 동기인데 그를 죽이고 그 피를 덮어 버린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니? 27. 그러니 그 애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버리고 우리는 손을 대지 말자. 아무래도 우리 동지요, 우리 혈육이 아니냐?”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기로 했다. 28. 그러는 동안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이십 냥에 팔아 넘겼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29. 르우벤은 구덩이로

돌아 와 요셉이 그 안에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30. 형제들에게로 돌아 가 “그 애가 없어졌다.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하고 부르짖었다. 31. 그러자 그들은 염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져다 그 피를 문혔다. 32. 그리고 그 장신구로 꾸민 옷을 아버지께 보내며 말을 전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주웠습니다. 이것이 아버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잘 보십시오.” 33. 그는 그것을 곧 알아보고 외쳤다. “내 아들의 옷이다. 들짐승이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짐승들의 밥이 되다니!” 34. 야곱은 옷을 찢고, 베옷을 몸에 걸친 채 아들을 생각하며 날이 가도 달이 가도 울기만 했다. 35.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일어나 위로했지만 그는 위로를 받지 않고 다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니다, 나는 지하로 내 아들한테 울면서 내려가겠다.” 이렇게 아버지는 요셉을 생각하여 울었다. 36.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그를 팔아 넘겼다.

해설

본장의 공부를 위한 질문정리

- * 야곱은 요셉에게 무엇을 입혔는가?
- * 본문 2절은 무엇인가?
- * 요셉이 꾸민 꿈 두개는 무엇인가?
- * 두 꿈의 의미는 무엇인가?
- * 야곱은 요셉을 어디로 심부름을 보냈는가?
- * 우리는 세겜을 기억하고 있는가?
- * 요셉은 그의 형들을 어디서 찾았는가?
- *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은 무엇을 토의 했는가?
- * 누가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다른 형제들을 설득했는가?
- * 그들은 요셉을 결국 어떻게 했는가?
- *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이며 이스마엘족의 선조는 누구인가?
- * 요셉은 결국 누구에게 팔렸는가?
- * 이스마엘 상인은 요셉을 얼마에 샀는가?

* 요셉의 형들은 그들의 죄를 어떻게 감추려 했는가?

야곱은 약 20년 동안 하란에서 살았고 또 거기서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라반의 딸과 결혼했고 하란을 떠나기 전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가졌는데, 그 중에서 르우벤이 맏형이고 요셉이 막내이다. 그 후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에사오와 재회했고 아버지 이사악도 만났다. 그의 12번째 아들 베냐민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태어났다. 야곱은 12아들 중 베냐민과 요셉을 가장 사랑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함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가 되었고 그들은 또 다른 이유로 요셉을 미워했었다.

요셉의 형들이 아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우리 역시 자신의 의견에 상반되는 의견을 내세우며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를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다 결국 그를 미워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1-22절과 요한 1서 3장 15절을 읽어 보자. 살인이라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도 그 시작은 작은 시기심, 분노, 또는 미움에서 비롯되며 이런 것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해소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인식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이것들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질문 정리

- 1) 하란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인가?
- 2) 아들 중 맏형은 누구인가?
- 3) 하란에서 태어난 아들 중 막내는 누구인가?
- 4) 가나안에 돌아온 후 태어난 아들은 누구인가?
- 5) 라헬의 아들은 누구인가?
- 6) 야곱은 어떤 아들을 가장 사랑했는가?
- 7) 야곱은 요셉에게 무엇을 입혀 주었는가?
- 8) 요셉의 형들은 왜 그를 미워했는가?

- 9) 요셉이 꾸 두 가지 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가?
- 10) 야곱은 요셉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켰는가?
- 11) 요셉은 어디서 형들을 찾았는가?
- 12)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는가?
- 13) 누가 요셉의 생명을 구해 주었는가?
- 14) 형들은 결국 요셉을 어떻게 했는가?
- 15) 요셉은 어느 나라로 팔려 갔는가?

질문의 답

- 1) 열한 명 2) 르우벤 3) 요셉 4) 베냐민 5) 요셉과 베냐민
- 6) 요셉 7) 다양한 색깔의 채색 옷 8) 아버지가 특별히 예뻐했고 그의 꿈 때문이다
- 9) 곡식 단, 해, 달, 별들 10) 형들을 찾아보라고 11) 도다인 12) 죽이기로
- 13) 르우벤
- 14) 구덩이에 집어넣었다 15) 이집트로

8

모세의 출생

머리말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난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이집트에 안락하게 정착했고 또 요셉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경외심이 살아 있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되어 히브리족의 숫자가 불어나자 이집트인들의 경계심이 고조되었고, 마침내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등장하여 히브리인들에게서 난 모든 사내아이를 죽이라는 명령까

지 떨어지게 됐다.

성서 본문: 출애굽기 1장, 2장 1-10절

1장: 1. 야곱을 따라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 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2.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3. 이싸갈, 즈불룬, 베냐민, 4. 단, 납달리, 가드, 아셀. 5.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칠십 명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내려 가 있었다. 6. 얼마 뒤에 요셉이 죽고 그의 동기들과 그 시대 사람들도 다 죽었으나 7. 이스라엘 백성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 찰 만큼 무섭게 불어났다. 8. 그런데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왕이 새로 이집트의 왕이 되어 9.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일렀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듯 무섭게 불어나니 큰일이다. 10. 그들이 더 불어나지 못하게 기회를 보아 손을 써야겠다.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원수의 편에 붙어 우리를 치고 나라를 빼앗을지도 모른다.” 11. 그리하여 그들은 공사 감독들을 두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 파라오의 곡식을 저장해 둘 도성 비돔과 라므세스를 세웠다. 12. 그러나 이렇게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불어났다.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13.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14. 그들은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과 밭일 등, 온갖 고된 일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 15. 한편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 한 사람은 시브라였고 또 한 사람은 부아였다-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16.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 사타구니를 보고 아들이 거든 죽여 버리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 17. 그러나 산파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 주었다. 18. 에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 들여 “사내아이들을 살려 두다니,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꾸짖었다. 19.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과는 달리 기운이 좋아 산파가 가기 전에 애기를 낳아 버립니다.” 20. 하느님께서 산파들을 잘 돌보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날로 무섭게 불어 나갔다. 21. 산파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후손을 일으켜 주셨다. 22. 마침내 파라오는 온 백성에게 명을 내렸다. “히브리인들이 계집 아이를 낳으면 살려

두되 사내아이를 낳으면 모두 강물에 집어넣어라.

2장: 1. 레위 가문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같은 레위 가문의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 2. 아내가 아기를 배어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나도 잘 생겨서 석 달 동안을 숨겨서 길렀다. 3. 그러다가 더 숨겨 둘 수 없게 되자 왕골상자를 얻어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속에 아기를 뉘어 강가 갈대숲 속에 놓아두었다. 4. 그리고 아기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형편을 살피고 있었다. 5.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나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공주가 갈대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하나를 보내어 건져다가 6. 열어 보았더니, 사내 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이 아기는 틀림없이 히브리인의 아기다” 하고 중얼거렸다. 7. 그 때 아기의 누이가 나서서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였다. “아기에게 젖을 빨리게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유모를 하나 데려다 드릴까요?” 8. 파라오의 딸이 “그래, 어서 다녀 오너라”하고 대답하자 소녀는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 왔다. 9.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부탁하였다. “내가 샅을 줄 터이니 이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여 길러다오.” 그리하여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여 키웠다. 10. 아기가 꽤 자란 뒤에 어머니는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 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고, 물에서 건져 냈다고 하여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해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장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자.

- * 성경 이야기들에서 요셉 외에 누가 이집트로 갔는가?
- * 파라오가 내린 아주 잔인한 명령은 무엇이었나?
- * 어떻게 그의 어머니는 모세를 구하려고 했는가?
- * 케란 어떤 귀중한 것을 보관하기 위한 일종의 상자(chest)인데, 성경에서의 첫 번째 케는 무엇인가?
- * 세 번째 케는 무엇인가?
- * 누가 강에서 모세를 발견했는가?
- * 공주는 어떤 결정을 했는가?

* 그 누이는 모세에게 젖을 빨리기 위해 누구를 데려 왔는가?

처음에 요셉은 이집트에서 아주 심한 고생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와 동행하셔서 그가 이집트 왕에 다음가는 통치자로 군림하는 큰 인물이 될 때까지 그를 도우셨다. 요셉의 형제들은 흉년이 들자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갔으며 그들이 죽이려 했던 요셉이 그곳의 통치자임을 발견하고 매우 두려워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고 파라오의 동의하에 그의 전 가족을 흉년동안 이집트에서 머무르도록 초대했다.

파라오는 야곱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살기 좋은 지역을 주었고 그들은 그것에 아주 만족했다. 그래서 그들은 번성하고 흉년이 끝났음에도 돌아가는 것을 잊어 그들의 인구가 굉장히 많아질 때까지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창세기 46장 26-27절을 보면, 요셉의 초청으로 66명의 남자가 이집트로 갔는데 그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는 (출애굽기 12장 37-40절) 성인 남자만 약 60만 명이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집트에 있던 히브리인들의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다. 본 장을 보면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왕이 새로 이집트의 왕이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은 대대로 세워진 왕들의 전체에 해당되는 말이다. 새 왕들은 히브리인들을 더 이상 친근하게 대하지 않았다. 그것은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인이 아니며 언젠가는 그들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파라오들은 히브리인들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피라미드와 같은 큰 무덤이나 신전들의 건축은 히브리인들을 사용해 세웠다. 그 당시는 현대의 기구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무거운 건축 자재들을 스스로 운반해 쌓아야만 했다.

히브리 사람들이 갖은 방법으로 그들의 자녀를 살리려고 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며 주님 또한 그들을 도우셨다. 주님께서는 이집트로부터 히브리인들을 해방 시키시는데 훈련된 사람이 필요하시자 파라오의 거칠고 사나운 명령을 역으로 이용하셨다.

성경에는 세 개의 유명한 궤가 있으며 그 중에서 모세를 살리는 궤는 두 번째에 해당된다. 아기 모세를 담은 궤는 파피루스라는 식물의 줄기인 왕골로 만들어졌는데 이 식물로는 종이도 만들었다. 노아의 방주처럼 모세를 살리는 궤도 역청을 발라 물에 잘 뜨도록 되어 있었다. 모세의 누이는 멀찍이 서서 그 궤를 살폈다.

모세는 성장하면서 그의 친어머니로부터 히브리의 전통과 그의 족보에 대한 지식을

얻었으며 그 당시의 최고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배웠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 내시고 그들을 하나의 국가 형태로 조직화시켜 그들의 고향인 가나안으로 되돌아가도록 섭리 하셨다.

질문 정리

- 1)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처음 정착할 때 이집트인들의 대접은 어떠했는가?
- 2) 해가 거듭될수록 그 대접은 어떻게 변했는가?
- 3) 파라오는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 4)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의 증가를 어떻게 막으려 했는가?
- 5) 구원된 아기의 이름은 무엇인가?
- 6) 그의 어머니는 그를 구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 7) 누가 아기를 발견했는가?
- 8) 그 여자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는가?
- 9) 모세를 젖 먹이기 위해 누가 불리어졌는가?

질문의 답

- 1) '존경하는 손님' 2) 노예가 되는 쪽으로 변화 3) 히브리족이 강해짐을 두려워했음 4) 새로 태어난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 5) 모세 6) "상자를 만들고, 갈대 숲 속에 놓아 둬" 7) 파라오의 딸 8) 그를 양자로 삼는 것 9) 모세의 친 어머니

9

홍해를 건너다

머리말

홍해를 건너는 광경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나 과월절에 관한 것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과월절(Passover)이란 단어가 이집트로부터의 해방과 연결되어 머리 속에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13장 17-22절, 14장

13장: 17. 파라오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곧장 불러 새 땅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닥쳐 올 전쟁을 내다보고는 후회가 되어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염려하셨던 것이다. 18.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바다에 이르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단히 무장하고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19. 이 때, 모세는 요셉의 유헤를 모시고 떠났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찾아오실 터이니, 그 때 너희는 내 뼈를 여기에서 옮겨다오”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단히 다짐해 두었던 것이다.

20. 그들은 수곳을 떠나 광야 접경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다. 21. 야훼께서는 그들이 주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이렇게 22.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14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던 길을 돌이켜 므딕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비하히룻으로 돌아 와 그 근처 바알스본 앞 해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3. 그러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이 막혀 아직도

이 땅에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4.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면 그가 그들의 뒤를 추격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쳐서 내 영광을 드러내어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내가 야훼임을 알게 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5.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정보가 이집트 왕의 귀에 들어갔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부려 먹지 않고 풀어 보내다니, 안 될 일이다.”라고 하였다. 6. 파라오는 병거에 말을 매워 백성을 거느리고 나섰다.

7. 특수 병거 육백 대로 편성된 정예부대를 앞세워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총동원해 가지고 나섰다. 8. 야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으므로 그는, 의기양양하게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되었다. 9. 이리하여 파라오의 병거와 기마, 기병, 보병 등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뒤쫓아 비하히롯 근처 바알스 본 앞 해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 잡았다.

10. 파라오가 다가 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 이집트인들이 덮칠 듯이 뒤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은 질겁을 하고 야훼께 부르짖으며 11. 모세를 원망하였다. “이집트에는 물론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 여기에서 죽이려는 것이냐?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렇게 만드느냐? 12.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이집트에서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더냐?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편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13. 모세가 백성들에게 소리쳤다. “두려워 말라. 움직이지 말고 오늘 야훼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아라. 너희가 오늘 눈앞에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되리라. 14.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터이니 모두들 진정하여라.”

15.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16. 너는 너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뻗쳐 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건너가게 하여라. 17. 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너희를 뒤따라 들어서게 되면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을 쳐서 영광을 드러내리라. 18.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이 비로소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19. 이스라엘을 앞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천사가 뒤로 돌아 가 호위하자 그들 앞에서 있던 구름 기둥도 뒤로 돌아

가 20. 이집트의 진과 이스라엘의 진 사이에 섰다. 그러자 구름 때문에 캄캄해져서 서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밤을 새웠다. 21. 모세가 팔을 바다로 뻗치자, 야훼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바람을 일으켜 바닷물을 뒤로 밀어 붙여 바다를 말리셨다. 바다가 갈라지자 22.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23. 이집트인들이 뒤쫓아 왔다. 파라오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그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섰다. 24. 새벽녘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자 이집트 군대는 갈팡질팡하였다. 25. 또한 야훼께서는 그들의 병거 바퀴들을 얽어 놓아 꼼짝도 못하게 하셨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려두고 도망가자. 야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군대를 치신다”하고 소리쳤다. 26.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에 물이 도로 덮이게 네 팔을 바다 위로 뻗쳐라.” 27. 모세는 팔을 바다 위로 뻗쳤다. 날이 새자 바닷물이 제 자리로 돌아 왔다. 이집트인들은 물결을 무릅쓰고 도망치려고 했으나, 야훼께서 이집트인들을 바다 속에 처넣으셨다. 28. 물결이 도로 밀려오며 병거와 기병을 모두 삼켜 버렸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바다에 들어섰던 파라오의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29.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30. 그 날, 야훼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 군대로부터 건지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인들이 해변에서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31.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께서 그 큰 팔을 펴시어 이집트인들을 치시는 것을 보고 야훼를 두려워 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해설

질문 정리

- *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념한 축제가 왜 과일절(passover)이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 * 이 축제를 일 년에 몇 번 기념하도록 명령받았는가?
- * 이 축제를 어떻게 기념하였는가?

- * 그들은 과월절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 먹었는가?
- * 그들은 어디로 행군했는가?
- * 이스라엘 후손들이 위의 것들 외에 또 무엇을 가지고 떠났는가? (출애굽기 12:37)
- * 파라오는 그들을 어떻게 추격했는가?
- * 파라오는 어디서 이스라엘인들을 따라 잡게 되었는가?
- * 그들은 누구를 원망했는가?
- * 모세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 *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 *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 그 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 *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가?
- * 이집트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이집트에 내려진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었으며 특별히 열 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는 특별한 방법으로 피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는 과월절의 달이 매 년 첫 달이 되도록 그들의 달력을 바꾸라고 말씀하셨다. 이 첫 달은 봄철에 속하며, 이 달력은 달의 변화에 따라서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태양력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태양력으로 보면 과월절은 3월이나 4월 중에 해당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때가 과월절 주간이었기 때문에 부활절은 특정날짜를 정하는 대신 유대인들의 과월절이 끝난 직후에 기념하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광야 여행 동안 인도하기 위해서 낮의 구름기둥과 밤의 불기둥을 설비하셨다. 이 기둥은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는데, 이것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고 이것이 움직이면 그들도 따라 움직였다. 이 지역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지중해를 따라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과하면 그들의 여행 거리가 단축됨을 발견 할 수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은 요새화된 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투력 또한 강해보였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이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출애굽기 13장 17-18)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이 떠나는 것을 무척 기뻐해 그들에게 금, 은, 보석, 먹을 것, 입을 것 까지 내주었다. 그러나 파라오는 노예인 히브리인들을 잃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그들이 출발한 직후 마음을 바꾸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많은 짐 보따리, 가축 떼, 부녀자, 그리고 어린이들과 함께였으므로 빨리 행군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 군대와 홍해 사이에 놓이는 곤경에 처했고 그들은 배마저 없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항상 보호될 것이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있었듯이, 주님의 진리는 우리와 악 사이에 존재한다. 우리는 간혹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를 때 지적 받기도 한다. 우리의 삶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시험 혹은 위험을 겪게 될 때 홍해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신다.

질문 정리

- 1)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파라오에게 히브리인들을 가게 해달라고 했는가?
- 2)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출발하는 저녁에 했던 큰 축제는 무엇인가?
- 3) 히브리인들이 떠날 때, 이집트인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 4) 주님은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 5) 히브리인들이 떠난 후 파라오는 무엇을 했는가?
- 6)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을 어디서 따라 잡았는가?
- 7) 주님은 히브리인들을 밤새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 8) 아침에 히브리인들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가?
- 9) 히브리인들을 바다 안까지 뒤쫓던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되었는가?

질문의 답

- 1) 재앙들을 내림 2) 과일절 3) 금, 은 그리고 의복 등을 주었음 4)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
- 5) 히브리인들을 뒤쫓았다 6) 홍해 근처에서 7) 양 진영 사이에 기둥을 두심

8)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 건넌음 9) 물에 빠져 죽음

10 십계명

머리말

먼저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광경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검토해 보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하며 많은 곤란과 위험에 직면할 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심과 그들이 이집트를 떠난 3개월째에 시나이 반도에 도착했음도 기억하자. 본장의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출애굽기 제 15장부터 19장까지를 자세히 읽어 두자. 본장은 19장에서 언급된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19장 16-25절, 20장 1-21절

19장: 16. 셋째 날 아침, 천둥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시나이산 위에 짙은 구름이 덮이며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진지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17.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만나 보게 하려고 진지에서 데리고 나와 산기슭에 세웠다. 18. 시나이산은 연기가 자욱하였다. 야훼께서 불 속에서 내려 오셨던 것이다. 가마에서 뿜어 나오듯 연기가 치솟으며 산이 송두리째 뒤흔들렸다. 19.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느님께 말씀을 올리자 하느님께서 천둥소리로 대답하셨다. 20. 야훼께서 시나이산 봉우리에 내려 오셔서 모세에게 산봉우리로 오르라고 하시자 모세가 올라갔다. 2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이 백성에게, 야훼를 보려고 마구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일러 두어라. 22. 야훼에게 가까이 올 사제들도 몸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훼가 내려가 그들을 마구 칠 것이다.” 23. 모세가 대답하였다. “이 백성은

시나이산으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이 산 둘레에 표시를 해서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24. 야훼께서 그에게 “그러면 어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 오너라. 그러나 사제들이나 백성은 야훼를 보러 마구 올라 와서는 안 된다. 올라오면 야훼가 내려 가 그들을 마구 칠 것이다”하고 말씀하시자 25. 모세가 백성에게로 내려 가 그 말씀을 전하였다.

20장: 1. 이 모든 말씀은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2. “너희 하느님은 나 야훼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하느님이다. 3.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4.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 따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5.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못한다. 나 야훼 너희의 하느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버의 죄를 그 후손 삼 대에까지 갚는다. 6.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7. 너희는 너희 하느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야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9. 옛세 동안 힘써 네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 10. 이렛날은 너희 하느님 야훼 앞에서 쉬어라. 그 날 너희는 어떤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뿐 아니라 가축이나 집 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11. 야훼께서 옛세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레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훼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한 날로 삼으신 것이다. 12.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13. 살인하지 못한다. 14. 간음하지 못한다.

15. 도둑질하지 못한다. 16.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못한다. 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네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못한다.” 18. 온 백성은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에 자욱한 연기를 멀리서 바라보고 두려워 떨며 19. 모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잘 들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20.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주었다. “두려워 말아라. 하느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하느님 두려운 줄 알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21. 모세가 하느님께서 계시는 떡구름 쪽으로 나아가는 동안 백성은 멀리 서 있었다.

해설

질문정리

- * 석 달 째에 이스라엘 민족이 도착한 산 이름은 무엇인가?
- * 그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어떤 유명한 법이 그 산에서 주어졌는가?

십계명은 주님의 법으로 주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법이다. 이러한 십계명을 사람들은 마치 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였지만 사실 사람들은 이 법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님을 잊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시나이산의 꼭대기에서 직접 생생한 목소리로 이 계명들을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 계명을 우리 마음에 잘 보관할 때만이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으므로 심령으로 이 계명들을 알고 늘 스스로 그것들을 되새겨야 한다. 이 계명은 두 돌판에 새겨졌다.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계명은 첫 돌판에 (출애굽기 20:1-11) 속하고 다섯째(제 12절) 계명은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 양쪽에 속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1-4 계명까지는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치며 6-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다섯째 계명은 이 두개의 의무를 묶고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상에서의 부모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천국적 아버지와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 즉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2장 34-40절을 읽어 보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의 어구 “하지 말라”에 불평을 하곤 한다. 하지만 이렇게 강제적으로나마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주님께서 이사야서에서(1:16-17) “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착한 길을 익혀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진정으로 옳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나쁜 행실이 먼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계명을 글자 그대로 우리 안에 간직해야 한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이 계명의 깊은 의미를 찾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된다. “도적질 하지 말라”는 계명을 떠올려 보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돈이나 소유물을 취하는 행동을 도적질로 여긴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나쁘게 말하거나 옳은 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동료를 조롱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그 사람들의 명예를 흠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행해진다고 여기고 뽐내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흠치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힘은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계명들은 잘못된 행동으로 가려는 우리를 보호해 주므로 계명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둘째 돌판의 계명은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사랑하라는 첫째 돌판의 계명은 소홀히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 선해질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주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 자기만족에 도취되어 옳고 그름을 배우는 것까지 멈추게 될 것이다. 첫째 계명이 처음에 있는 이유는 모든 다른 계명들을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다음의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자.

질문정리

- * 열 계명이 시나이 산에서 어떻게 주어졌는가?
- * 어디에 이 계명들은 쓰여졌는가?
- * 첫째 돌판에 쓰여진 계명은 무엇인가?
- * 위의 계명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 * 어느 계명들이 둘째 돌판에 새겨졌는가?
- * 이 계명들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 * 다섯째 쓰여진 계명은 무엇이며, 왜 다섯 번째에 쓰여 졌는가?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지역을 통해 가나안으로 여행해야만 했는가?

- 2) 그들이 배고팠을 때 그들은 이집트에서 먹었던 무엇을 그리워했는가?
- 3)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
- 4) 석 달 쯤에 그들은 어느 산에 도착했는가?
- 5) 주님으로부터 계명이 내릴 때 그들은 산에 올라가도록 허락 되었는가?
- 6) 셋째 날 아침 그들을 무섭게 만든 광경은 무엇인가?
- 7) 그들은 누구의 소리를 들었는가?
- 8) 맨 처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9) 그 다음 주님은 무엇을 그들에게 주셨는가?
- 10) 계명은 어떻게 두 그룹으로 구분되는가?
- 11) 첫째 돌판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 12) 둘째 돌판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 13) 이러한 계명은 본문 시대 이전에도 있었는가?
- 14) 주님은 왜 시나이산으로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광야 혹은 사막 2) 양식(고기), 물 3) 만나, 메추라기, 바위로부터 물 4) 시나이산 5) 아니다 6) 천둥과 번개 7) 하느님의 음성 8)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 9) 십계명 10) 첫째 돌판은 1-5계명; 둘째 돌판은 6-10계명 11) 하느님에 대한 의무 12) 이웃에 대한 의무 13) 예 14) 이 계명들이 하느님의 법임을 보여 주시려고

11

나답과 아비후

머리말

본과에 앞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나이 산 밑에서 머무는 동안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과 제사장들에 관한 내용 특히 주님께서 예배 의식에 관한 법을 주셨음을 기억한다면, 본과의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는 보다 쉽게 이해될 것이다. 또한 성막에 관한 내용, 성막에 두개의 제단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어긴 분향에 관한 법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성 서 본 문: 레위기 10장

10장: 1.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저마다 들고 있는 향로에 불을 담고 그 불에 향을 피우며 야훼께 바쳤다. 그러나 그 불은 야훼께서 지시하신 것과는 다른 불이었다. 2. 야훼 앞으로부터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자 그들은 야훼 앞에서 죽었다. 3. 이것을 보고 모세가 아론에게 일렀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까이에서 나를 섬기는 자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리라. 온 백성 앞에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아론은 다만 입을 다물고 있었다. 4. 모세는 아론의 삼촌 우찌엘의 두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놓고 “어서 가서 너의 조카들을 성소에서 진지 밖으로 끌어내어라” 하고 일렀다. 5. 그들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들어가서 조카들의 속옷을 잡고 진지 밖으로 끌어내었다. 6. 모세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 엘르아잘과 이다말에게 일렀다.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마시오. 그러다가는 죽을 것이요. 야훼께서 분노하신 것은 온 회중에게 하신 것이니, 야훼께서 태워 죽이신 자들을 위하여 한 겨레인 이스라엘 온 가문이 곡해야 할 것이요. 7. 그대들은 만민의 장막

문간 밖으로 나가지 마시오. 나가면 죽을 것이요. 그대들은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성별해 주신 사람들이 아니오?” 그들은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8. 야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9. “네가 아들들을 거느리고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 갈 때에는 포도주와 술을 마시지 마라. 마시면 죽으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정이다. 10.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간할 때에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간할 때에도 마시면 안 된다. 11. 또 야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칠 때에도 마시면 안 된다.” 12. 모세는 아론과 그의 살아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일렀다. “야훼께 살라 바치고 남은 곡식예물을 가져다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것을 제단 옆에서 먹으시오. 그것은 더없이 거룩한 것이요. 13. 거룩한 자리에서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야훼께 살라 바친 제물 중에서 이것이 형의 몫이요, 형의 아들들의 몫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지시를 나는 받았소. 14. 또 흔들여 바친 갈비와 받들어 바친 뒷다리는 형의 아들과 딸들이 형과 함께 깨끗한 자리에서라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친교제물에서 형과 형의 아들들에게 돌아 갈 몫이요. 이것이 야훼께서 지시하신 영원히 지킬 규정이요.” 16. 모세는 그들이 속죄제물로 바친 수염소가 어찌 되었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이미 불에 태워 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며 추궁하였다. 17. “어찌하여 속죄제물을 거룩한 자리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더없이 거룩한 것으로서 그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회중의 죄악을 치위 버리고 야훼 앞에서 그들의 죄를 벗겨 주려는 것이었다. 18. 그것은 성소 안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 가는 제물이 아닌 까닭에 너희는 내가 하라는 대로 그것을 성소에서 반드시 먹었어야 했다.” 19. 아론이 모세에게 변명하였다. “그 아이들이 바로 오늘 야훼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쳤다. 그런데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데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야훼께서 좋게 보아 주시겠느냐?” 20. 모세는 이 말을 듣고 그도 그렇겠다고 생각하였다.

해설

주님은 모세에게 시나이 산에서 각 개인, 사회, 그리고 사람들의 종교생활을 통치할

법을 주셨다. 또한 성막을 짓고 그 안의 가구를 만드는데 따르는 특별한 지시도 내리셨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에서의 각종 임무와 예배를 위해 따로 구분되어 졌다. 모세의 형인 아론은 제일 높은 제사장으로 임명되었고 그의 아들들은 그를 보조했다. 그의 네 아들의 이름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잘과 이다말이다. 시나이산에서 주어진 많은 법들은 레위기 책 안에 보존되어 있으며, 성막에서의 모든 예배절차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출애굽기 30장 1,7,8절 그리고 레위기 16장 12절을 통해 분향을 위한 법을 알 수 있다.

향로란 향을 피울 불을 운반하는 그릇이다. 그 당시에는 지금의 성냥 같은 재료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행을 하면서 불도 계속 운반해야 했다. 큰 제단에 있는 불은 그들이 제물을 바치는 것에 상관없이 언제나 켜져 있도록 보존했다. 레위기 6장 6절 (혹은 개역 성경의 6장 13절)을 읽어 보자. 불은 사랑을 상징하며, 특히 제단 위에 있는 늘 타고 있는 불이란 매사에 있게 되는 동기(motive) 속에는 반드시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향이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기도를 표현한다. 계시록 5장 8절을 읽어 보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 외에 때로 자신의 이기적인 이유로 교회에 참석한다. 즉 우리의 운택한 생활, 이성과의 만남, 혹은 자신의 사업 선전을 위함 같이 순수한 예배 이외의 어떤 것을 병행하여 교회에 참석하기도 한다. 자아를 사랑함은 주님을 사랑함과는 정반대이며, 이것은 “이상한” 불 또는 거룩하지 않은 불을 뜻한다.

우리는 예배의 의미가 고대 히브리인의 외형적 제례행위로 표현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은 구약성서를 기록하시기 위해 아주 외적인 것만을 집요하게 고집하는 고대 히브리인들을 선택하신 것이다. 그들 예배의 모든 상세한 절차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것과 똑같이 지켜졌다. 이것은 그 상세함이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의 내적 의미가 형식이 변함으로 인해서 상실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 당시 그 외적 질서를 보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주님의 목적을 위한 용도에 맞지 않아 존재할 가치가 없었으므로, 나답과 아비후가 불순종했을 때 참혹한 변이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지휘자에 호흡을 맞추지 못하는 연주자가 몇 번의 연습을 거친 후에도 시정되지 못할 때, 결국은 지휘자가 그 연주자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과 같다. 우리가 이기적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참석한다면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 주신다. 하지만 우리의 이기심은 주님의 사랑을 자기 사랑으로 바꾸어 버린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생각의 결과는 스스로의 편리나 스스로가 좋아하는 대로 해석해 행동에 옮겨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영적 삶은 파괴되어 진다. 어떤 사람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행한 일이 화형을 당할 정도로 심각한 것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주님에 대한 불순종임을 알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된 것을 시도했던 것이 결국 그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들의 친척이 죽으면 슬픔의 표현으로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를 깎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참혹하게 타 죽은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 슬퍼했어야 하나 주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른 사람이 슬퍼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옷을 걸치고 기름 부어 성별(聖別)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벌을 받게 될 때 불행하게 느낀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받은 벌로 인해 불행해 하지 않으며 잘못으로 인해 받는 벌을 당연하게 여긴다.

악한 행동은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할 때에도 늘 일련의 대가(벌)를 치른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의 지성과 심정이 받는 피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보다 더 심각하다. 주님이 우리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동들의 결과가 곧 벌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간직하여 주님이 보시기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질문 정리

- 1) 성막이란 무엇인가?
- 2) 대제사장은 누구였는가?
- 3) 아론의 보조자들은 누구였는가?

- 4) 본문에 나오는 두 개의 제단은 무엇인가?
- 5) 성막의 어느 곳에 큰 제단이 있었는가?
- 6) 큰 제단은 어떤 때에 사용되었는가?
- 7) 성막의 어느 곳에 분향단이 있었는가?
- 8) 하루에 몇 번씩 분향하였는가?
- 9) 향을 피우기 위한 숯불을 운반하는 그릇은 무엇인가?
- 10) 숯불은 어디서 취했는가?
- 11) 아론의 보조자 중 첫째, 둘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 12) 그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 13) 불이 “이상하다”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4) 나답과 아비후에게 무슨 변이 발생했는가?
- 15) 죽은 그들의 몸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 16) 모세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었는가?
- 17) 모세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도록 했는가?

질문의 답

- 1) 운반용 교회 2) 아론 3) 그의 네 아들들 4) 큰 제단(번 제단, great bronze); 분향단 (incense)
- 5) 성막 뜰 (Outer Court) 6) 제물을 바칠 때 (Sacrifices) 7) 성소 (Holy Place)
- 8) 아침과 저녁에 한번씩 9) 향로 (a censor) 10) 큰 제단 11) 나답과 아비후
- 12) “이상한” 불 또는 거룩치 않은 불을 드렸음 13) 타당치 않음 14) 불이 그들을 죽임 15) 진영 밖으로 끌어내졌음 16) 슬퍼하지 말라 17) 불에 타 죽은 자들을 위해 통곡하라고

12

발람

머리말

본과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며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었다는 것,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생활을 마치게 되는 것, 별을 가지고 점을 쳤던 것, 발람과 동방박사가 같은 고향 출신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고대 말씀을 계속 받아왔다는 것 등을 알아본다.

성 서 본 문: 민수기 22, 23, 24장

22장: 1. 이스라엘 백성은 또 길을 떠나 예리고 근방, 요르단 건너편 모압평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2. 시뵐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3. 모압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효가 너무나 많아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몹시 겁에 질려 4. 미디안 장로들에게 대책을 물었다. “소가 들풀을 뜯어 먹듯이 이제 이 무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모조리 먹어 버리겠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때 모압 왕은 시뵐의 아들 발락이었다. 5. 그는 큰 강 가, 아마윗 사람들의 땅 브돌로 사절을 보내어 브울의 아들 발람을 불러 오게 하였다. “이집트에서 나온 한 민족이 지금 나의 접경에까지 와서 온 땅을 뒤덮고 있소. 6. 어찌나 많은지 나로서는 당할 수가 없으니, 곧 와서 그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대가 복을 빌어 주는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줄을 나는 아오.” 7.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복채를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들은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하자 8. 발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에서 하룻밤 묵으시오. 야훼께서 나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가부간 대답해 드리리다.” 그래서 모압의

고관들은 발람과 함께 묵었다. 9.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오시어 물으셨다. “너를 찾아 온 이 사람들이 누구냐?” 10. 발람은 “시뵘의 아들인 모압 왕 발락의 보냄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하며 하느님께 아뢰었다. 11. “한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뒤덮었으니 어서 와서 그들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그들을 쳐서 쫓아 낼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12.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셨다. “그들을 따라 가지 말라. 또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면 안 된다.” 13.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일렀다. “어서들 고국으로 돌아가시오. 야훼께서는 나에게 당신들을 따라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소.” 14. 그리하여 모압의 고관들은 길을 떠나 발락에게 돌아 와서 발람이 따라 와 주지 않겠다고 보고하였다. 15. 발락은 다시 그들보다도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

16.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을 전하였다. “시뵘의 아들 발락의 전갈입니다. ‘나의 청을 거절하지 말고 부디 와 주시오. 17. 잘 대우해 드리리다.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해 줄 터이니 부디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18.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그의 궁궐에 가득 찬 금과 은을 준다고 하여도 나는 갈 수가 없소.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나는 절대로 나의 하느님 야훼의 명령을 어길 수 없소. 19. 그러나 허룻밤만 여기에 묵어 보시오. 야훼께서 다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알아보리다.” 20. 그 날 밤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오시어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 21.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엮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 나섰다. 22. 하느님은 발람이 가는 것을 보시고 몹시 화가 나셨다. 야훼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의 길을 가로막고 섰다. 마침 발람은 나귀를 타고 두 종을 거느리고 있었다. 23. 야훼의 천사가 칼을 빼든 채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나귀가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자 발람은 나귀를 때려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24. 그러자 야훼의 천사는 다시 포도밭 사이 길을 막고 섰다. 길 양쪽에는 담이 있었는데, 25. 나귀가 야훼의 천사를 보고 벽에 몸을 비비는 바람에 발람의 다리가 벽에 긁히자 그는 다시 채찍질을 하였다. 26. 야훼의 천사가 더 다가서며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몸을 뺄 수 없는 좁은 골목으로 몰아 세웠다. 27. 나귀가 야훼의 천사를 보고 발람을 태운 채 털썩 주저앉자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28. 마침내 야훼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주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항의하였다. “내가 무슨 못할 짓을 했다고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리십니까?” 29. 발람이 나귀에게 “네가 이렇게 나를 놀리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만 있었으면 당장 쳐 죽였을 것이다.”하고 말하자 30.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의 나귀가 아닙니까? 오늘날까지 당신은 나를 줄 곧 타고 다니셨는데 내가 언제 주인께 이런 일을 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없었다.” 31. 그 때에 야훼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주셨다. 그제야 야훼의 천사가 칼을 뽑아 든 채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본 발람은 고개를 숙이며 땅에 엎드렸다. 32. 야훼의 천사가 입을 열었다. “어찌하여 너는 네 나귀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렸느냐? 너는 지금 내 눈에 거슬리는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와 너를 막아 선 것이다.

33. 나귀가 나를 보고 세 번이나 내 앞을 피했기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나는 나귀만 살려 주고 너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34. 발람이 야훼의 천사에게 아뢰었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당신께서 저의 길을 막아서 계셨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눈에 거슬리는 길이라면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35. 야훼의 천사가 발람에게 “이 사람들을 따라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해야 한다”하고 말하자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을 따라 발길을 옮겼다.

36.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르논강 가 국경 도시 아르모압에 이르러 그를 맞으며 37.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모시려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는데도 왜 오지 않으셨소? 내가 당신을 잘 대우해 드리지 못할 줄 아셨소?” 38.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못합니다.” 39. 발람은 발락과 동행하여 후셋 마을에 이르렀다. 40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발람과 그를 따라 온 고관들에게도 보내 주었다.

41. 아침이 되어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지가 끝까지 내려다보이는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다.

23장: 1.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제단 일곱을 쌓고 중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양 일곱 마리를 잡아 오시오.” 2. 발락은 발람이 시키는 대로 제단마다에 중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3.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부탁하였다. “자리를 뜨지 마시고 이 번제물들 옆에 서 계시오.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야훼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여 주시든지 그대로 알려 드리리다.” 그리고 그는 꼭대기로 올라갔다. 4. 마침 하느님께서 발람을 찾아 오셨다. 발람이 아뢰었다. “일곱 제단을 쌓았고 제단마다에 중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5. 야훼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면서 이르셨다. “발람에게로 돌아 가 이리이러하게 일러라.” 6. 발람이 발람에게 돌아 와 보니, 그는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번제물 옆을 떠나지 않고 지켜 서 있었다. 7. 그는 푸념하듯이 읊었다. “발람이 나를 아람에서 데려 왔겠다. 모압 임금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 왔겠다. 와서 제 편이 되어 야곱을 저주해 달라고, 와서 제 편이 되어 이스라엘을 욕해 달라고 하였지만 8. 하느님께서 저주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야훼께서 욕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욕하랴. 9. 이 바위 봉우리에서 내려다보고 이 언덕에서 굽어보니, 아, 저 백성, 남과 섞여 살지 않는 민족, 과연 만방에 견줄 데 없는 민족이구나. 10. 야곱은 티끌 같아 헤아릴 수 없고 이스라엘은 먼지 같아 셀 수도 없구나. 내 목숨이 올바른 사람처럼 끝났으면! 내 여생도 그들과 같았으면!” 11. 발람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웬일이오?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청해 왔는데 도리어 복을 빌어 주다니!” 12. 발람이 발람에게 “야훼께서 내 입에 담아 주신 말씀 말고 무슨 말을 하란 말이오?” 하고 대답하자 13. 발람은 그에게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였다. “저자들이 다 보이지 않고 조금만 보이는 곳으로 갑시다. 거기에서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14. 그러면서 그는 비스가산 꼭대기 감시소가 있는 곳으로 발람을 데리고 갔다. 거기에서도 그는 제단 일곱을 쌓고 제단마다에 중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15. 발람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저리로 가서 야훼께서 나타나 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자리를 뜨지 말고 이 번제물들 옆에 서 계시오.” 16. 야훼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시어 그의 입에 말씀을 담아 주시면서 “발람에게로 돌아가서 이리이러하게 말하여라”하고 일러 주셨다. 17. 발람이 그에게로 돌아 와 보니, 그는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번제물을 떠나지 않고 지켜 서 있었다. 발람은 야훼께서 뭐라고 하시냐고 발람에게 물었다. 18. 그는 푸념하듯이 읊었다. “발람이여, 일어나 들으시오. 시뵐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19. 하느님께서 사람은 사람처럼 거짓말하실 리도 없고 사람의 아들처럼 번덕을 부리실 리도 없으시다오. 말씀만 하시고 그대로 하지 않으실 리 없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지 않으실 리

없으시다오.

20. 그런데 여보시오. 그가 복을 주시는데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그가 복을 주시는데 뒤엎을 수 없는 노릇 아니오?

21. 야곱에게 재앙일량 보이지도 않는군요. 이스라엘에게 불행일량 비치지도 않는군요. 그들을 보살피시는 야훼 하느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소리 우렁차군요. 22.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신 하느님께서 들소 빨처럼 그들을 지켜 주시는군요. 23. 야곱을 꺾을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칠 술법이 없소이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에게 말하리다. ‘하느님께서 이렇듯이 큰일을 하셨구나’하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리다. 24.보아라, 사자처럼 일어나는 백성을! 사자처럼 한번 몸을 일으키면 잡아먹지 않고는 눕지 않는구나.

잡은 짐승의 피를 다 핥지 않고는 눕지 않는구나.” 25.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내었다. “좋소! 그들을 저주하지 마시오. 그러나 축복도 하지 마시오.” 26.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야훼께서 일러 주시는 것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7. 발락이 발람에게 다시 청하였다. “내가 당신을 다른 데로 모시겠소. 그리고 갑시다. 행여 그 곳이 하느님의 눈에 들어, 그들을 저주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소?” 28.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브올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29. 발람이 발락에게 일렀다. “여기에 일곱 제단을 세우고 중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양 일곱 마리를 마련해 오시오.” 30. 발락은 발람의 말대로 제단마다에 중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24장: 1.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 주는 것을 야훼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전처럼 징조를 찾아 나서지를 아니하고 그대로 광야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2. 발람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때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3. 그는 푸념하듯이 이렇게 읊었다. “브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천리안을 가진 사내의 말이다. 4. 하느님의 말씀들을 듣고 하는 말이다. 전능하신 하느님을 환상으로 뵈고 엎어지며 눈이 열려 하는 말이다.

5. 야곱아, 너의 천막들이 과연 좋구나! 이스라엘아, 네가 머문 곳이 참으로 좋구나!

6. 굽이굽이 뻗은 계곡과 같고

강물을 끼고 꾸며진 동산 같구나. 야훼께서 손수 심으신 느티나무와 같고 물가에서

자라는 송백 같구나. 7. 물통에서는 물이 넘쳐 나와 땅에 뿌린 씨가 물을 듬뿍 먹는구나. 임금은 아각을 누르리니 국위를 널리 떨치겠구나. 8.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것들을 이끌어 내신 하느님께서 들소 빨처럼 지켜 주시어 적국을 집어 삼키고 그 뼈들을 짓부수고 옆구리를 찌르는 구나.

9.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는데 그 사자 같은 자들을 누가 감히 건드리랴! 누구든지 너에게 복을 빌어 주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10. 발락은 율화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너를 불러 왔는데, 너는 이렇게 세 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11. 당장 너 살던 데로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잘 대우해 주겠다고 했지만, 너는 야훼 때문에 부귀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12.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나에게 보낸 사절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해 두지 않았습니까? 13. 발락이 궁궐에 가득 찬 은과 금을 준다고 하여도 나는 그것이 좋든 싫든 간에 야훼께서 몸소 주시는 말씀을 어기면 서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4. 이제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마당에, 후일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나 알려 드리리다.” 15. 그리고 나서 그는 푸념하듯이 읊었다. “브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천리안을 가진 사내의 말이다. 16.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다. 지존하신 이의 생각을 깨치고 하는 말이다. 전능하신 하느님의 환상을 뵈고 엎어지며 눈이 열려 하는 말이다. 17. 이 눈에 한 모습이 떠오르는구나. 그러나 당장 있을 일은 아니다. 그 모습이 환히 보이는구나. 그러나 눈앞에 다가 온 일은 아니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솟는구나. 이스라엘에게서 한 왕권이 일어나는구나. 그가 모압 사람들의 관자놀이를 부수고 셋의 후손의 정수리를 모조리 부수리라. 18. 에돔은 그의 속국이 되고 세일은 그의 차지가 되리라. 이스라엘은 힘이 뻗치고 19. 야곱은 원수들을 지배하며 아르에서 빠져 나온 피난민을 멸절시키리라.”

20. 그는 아말렉을 바라보며 푸념하듯이 읊었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 첫째라더니, 결국은 아주 망하고 말겠구나.”

21. 또 그는 켈족을 바라보며 푸념하듯이 읊었다. “네가 사는 곳은 견고하건만, 바위틈에 보금자리를 틀어 올렸건만,

22. 카인은 타 죽고 말리라. 끝내 아시리아에게 털리고 말리라.” 23. 그는 또 푸념하듯이 읊었다. “아, 누가 과연 살아 남으랴! 24. 함대가 기뻐 쪽에서 온다. 그들은 아시리아를 누르고 에벨을 누르겠지만 그들도 결국 망하고 말리라.”

25. 그리고 발람은 길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갔다. 발락도 자기 길을 갔다.

해설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긴 여행의 마지막 시기에 해당된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40년간 그들의 광야여행을 인도했다. 민수기 33장에는 그들이 광야여행 동안 진을 친 장소가 열거되어 있다. 그들은 사해 바다의 꼭대기에서 멀지 않은 요르단 강의 동쪽이며 강만 건너면 예리고인 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곳은 원래 모압족의 땅이었으나 아모리족이 빼앗아 차지했던 땅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족과 싸워 이겼으나 혈연관계상 암몬, 에돔족, 그리고 모압족과는 싸우지 말라고 주님으로부터 명령 받았다. 에돔은 예사오의 또 다른 이름 이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두 아들이다. 모압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평화스런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려워했다.

발람은 아람 즉 시리아에 살았다.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라고도 불리는데, 의미는 “강들 사이에”이며 강들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뜻한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고대 말쑈(Ancient Word)을 갖고 있었고 그것에 쓰인 말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상응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었다. 이 지식의 일부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그들 중 일부는 이 지식의 빛을 이기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발람은 악인이었다.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하자, 발람은 발락이 제공한 보수에 솔깃하여 그것을 수행하고 싶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힘은 주님으로부터만 오며 그분이 반대하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발람의 여행 도중에 일어난 사고를 통해 상기되고 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가는 동안 발람의 나귀는 천사를 보았다. 나귀는 우리의 자연적 총명(natural intelligence)을 상징한다. 나귀란 동물은 길을 걸을

때 느리지만 실수 없이 걷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의 자연적 총명 역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수 없도록 해주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발람은 천사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 그 이유가 그가 나귀를 타듯이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자연적 총명을 충분히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기적 마음이 가자고 하는 대로 그의 마음이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가 가는 길에 세 번씩이나 장애물을 놓아서 그로 하여금 멈추어 생각하도록 했지만, 그는 그것에 귀 기울이기를 원치 않았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그릇된 일임이 분명함에도 그것을 행하려는 쪽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람이 그의 나귀가 다른 길로 들어설 때 원하는 길로 가라고 그것을 때리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릇된 방향으로의 자기합리화이다. 그 후 주님은 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나귀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리고 발람은 그 때에야 천사를 보게 되었다.

주님은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해야만 한다고 강요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강요로 인해 행하게 되면 노예와 같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발람을 막았던 것처럼 길에 장애물을 놓아 우리로 하여금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해 보도록 배려하신다. 이런 때에 우리는 단순히 장애물을 넘기 위해 애쓰는 대신 다시 한 번 우리가 행하려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모나 친구들을 주시고 그들이 본문의 천사처럼 우리가 행하려는 것이 옳은지 혹은 그릇된 것인지 알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신다.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주님은 그 행동이 야기하는 결과를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의 대상을 위한 축복으로 바꾸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을 초래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신다.

높은 곳에서 계곡을 바라보던 발람과 발락은 이스라엘의 진영을 훤히 볼 수 있었다. 발람은 숫자, 동물들 그리고 제물에 관한 상응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영계와의 연결을 구축하여 주님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이 구원된 것은 이스라엘 진영의 질서 때문이었으며 특히 그 진영의 중심에 성막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도는 천국 또는 천국적 인격의 진정한 질서를 뜻한다. 질서란 스스로의 중심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두면서 그 외의 다른 애착 과 사고가 그 중심과 상호 연결되어 적당한 위치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질서대로 살아간다면 그 어떤 악도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 없을 것이다.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 과식 즉 마구 먹고 싶어 하는 유혹 같은 아주 단순한 악을 예로 들어 보자. 우리의 육체는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되도록 주어져 있다. 육체는 적당히 돌보아 주어야 하고 잘 쓸 수 있도록 양분도 공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좋은 애착 중의 하나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다. 그러나 이 애착 (먹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에 왜 먹어야 하는가와 먹는 것의 진정한 목적을 늘 염두에 두면, 맛있는 음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의 한쪽 혹은 적당한 위치에 있게 되어 과식하게 되는 유혹 자체가 없어 진다. 우리의 모든 다른 애착도 이처럼 설명될 수 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라도 빼내서 우상숭배나 다른 악으로 빠지게 되도록 하는 정보를 발라에게 주었다. (요한 계시록 2:14) 이것으로 인해 발람은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싸움 중에 살해되었다. (민수기 31:8)

본문 24장 17절에 있는 예언들을 살펴보자. 여기서 떠올리게 되는 것은 베들레헴과 별이다. 아주 오랜 후에 별을 따라 온 동방박사도 이 지역 출신이다. 그래서 이들 역시 고대 말씀으로부터 온 지식의 일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별이 갖는 예언의 의미도 알고 있었다. 동방박사들은 이 지식을 주님을 발견하며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사용했다.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기 위한 질문들

- * 모압왕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는가?
- * 발람은 발람에게 몇 번이나 사신을 보냈는가?
- * 발람은 길을 가는 도중 왜 멈췄는가?
- * 발람은 천사를 보기 전 몇 번 멈췄는가?
- * 발람은 발라에게 무엇을 지시했는가?
- * 발람은 몇 번이나 발라가 원하는 것을 해보려고 했는가?
- * 그때 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질문 정리

- 1) 광야 여행에서 이스라엘 후손들을 인도한 것은 무엇인가?
- 2) 이스라엘 후손들은 몇 년간 광야에서 배회했는가?
- 3) 광야에서의 마지막 진영 지는 어디인가?
- 4) 이스라엘 후손들이 오는 것에 두려워했던 왕은 누군가?
- 5) 발락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는가?
- 6) 발락은 발람에게 무엇을 요청했는가?
- 7) 발람은 그의 힘을 누구에게서 구했는가?
- 8) 주님은 발람에게 맨 처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9) 발락이 두 번째 사신을 발람에게 보냈을 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10) 길을 가는 도중 발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11) 발람은 발락에게 어떤 준비를 하라고 했는가?
- 12) 발람은 이러한 제단이나 제물을 바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 13) 발람은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저주하려 했는가?
- 14) 그때 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15) 발람은 이스라엘을 왜 저주할 수 없었는가?
- 16) 발람은 어떤 특별한 예언을 했는가?
- 17)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피해를 줄 수 있었는가?
- 18) 발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가?

질문의 답

- 1) 구름기둥과 불기둥 2) 40년간 3) 모압 평야 4) 발락(모압왕) 5) 발람
- 6)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7) 하느님으로부터 8) 저주하러 가지 말라고 9) 내가 주는 말만 말하라고
- 10) 천사가 그의 나귀를 놀라게 했다 11) 일곱 제단과 제물로서 증송아지와 수양들

12) 상응에 관한 지식으로 13) 세 번 14) 저주가 축복으로 바뀜 15) 악한 의도 속에는 진정한 힘이 없기 때문 16) 별에 관한 예언 17) 이스라엘이 시험에 빠져드는 계략을 발락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18)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싸움 와중에 살해 됨

13

예리고 성의 정복

머리말

요르단 강을 건너는 광경을 홍해를 건너는 것과 비교해 본다. 길갈에서 돌을 세우는 것, 과월절 축제 그리고 만나의 공급이 중지된 것 등도 염두 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1장부터 5장까지를 읽어 두면 본과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성서 본문: 여호수아 6장

6장: 1. 예리고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굳게 닫혀 있어 드나드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없었다. 2.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예리고와 그 왕을 네 손에 붙인다. 굳센 용사들아, 3. 너희 모든 군인들은 날마다 이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엿새 동안 돌아라. 4. 사제 일곱이 각기 수양뿔 나팔을 들고 궤 앞에 나서라. 이렛날에는 이 성을 일곱 번 돈 다음 사제들이 나팔을 불어라. 5. 그 수양뿔 나팔 소리가 나면 백성은 다 같이 힘껏 고함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 때 전군은 일제히 쳐들어 가거라.” 6.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사제들을 불러서 일렀다. “계약궤를 메고 나서시오. 일곱 사제는 수양뿔 나팔 일곱 개를 가지고 야훼의 궤 앞에 나서시오.” 7. 그리고나서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행동을 개시하여라. 이 성을 돌아라. 정예부대는 야훼의 궤 앞에 나서라.” 8.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에

게 명령한 대로, 일곱 사제가 수양 뿔 나팔 일곱 개를 가지고 야훼 앞에 나서서 불었다. 그 뒤를 야훼의 계약궤가 따랐다. 9. 나팔을 부는 사제들 앞에는 정예부대가 행군하고 그 궤 뒤를 후위부대가 따라 가는데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10.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고함을 지르지 말라. 작은 소리도 내지 말라. 한 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고 있다가 내가 고함을 지르라고 하거든 그 때 고함을 질러라.” 11. 그는 야훼의 궤를 모시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 진지로 돌아와 그 밤을 진지에서 보내게 하였다. 12.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면 사제들은 야훼의 궤를 메고 나섰다.

13. 일곱 수양 뿔 나팔을 가진 일곱 사제가 야훼의 궤 앞에서 행진하며 나팔을 불면, 정예부대가 그들 앞에 서서 행군하였고 후위부대는 야훼의 궤 뒤를 따랐다.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14. 둘째 날도 그들은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지로 돌아왔다. 이렇게 하기를 엿새 동안 하였다. 15. 이렛날이 되어 새벽 동이 트자 그들은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일곱 바퀴 돌았다. 그 날만 성을 일곱 바퀴 돈 것이다. 16. 일곱 번째 사제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쳤다. “고함을 질러라. 야훼께서 저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17. 저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야훼께 바쳐 없애 버려라. 다만 창녀 라합의 목숨과 그의 집에 있는 사람만은 살려 두어라. 그 여자는 우리의 사명을 띠고 갔던 사람들을 숨겨 주었다. 18. 너희는 깊이 명심하여라. 없애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라. 없애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지 말라. 그랬다가는 전멸당하는 운명을 이스라엘 진영에 스스로 불러들이게 된다. 19. 은이나 금이나 동제품이나 철제품은 모두 야훼께 드릴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야훼의 금고에 넣어야 한다.” 20. 백성들은 고함을 지르고 나팔 소리는 울려 퍼졌다. 나팔 소리가 울리자 백성은 “와”하고 고함을 질렀다. 그 순간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자 백성은 일제히 성으로 곧장 쳐들어 가 성을 점령하였다. 21.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소견 양이건 나귀건 모조리 칼로 쳐 없애 버렸다. 22. 여호수아가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일렀다.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려 오너라.” 23. 정탐원으로 갔던 젊은이들이 그 집에 들어가 라합과 그의 부모와 오빠들뿐 아니라 그에게 딸린 일가친척을 모두 이스라엘 진 바깥 안전한 곳으로 데려 내 왔다. 24. 그리고는 성에 불을

질러 그 안에 있는 것을 모조리 태워 버렸다. 그러나 은과 금, 동제품과 철제품은 야훼의 금고에 넣었다. 25. 창녀 라합과 그의 가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만은 여호수아가 목숨을 살려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 여자가 예리고를 정찰하라고 여호수아가 보낸 사람들을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26. 그 때 여호수아가 맹세하였다. “이 성을 다시 짓겠다고 나서는 자는 야훼께 저주를 받으리라. 만아들을 죽이지 않고는 기초를 놓지 못하고 막내아들을 죽이지 않고는 성문을 달지 못하리라.” 27. 야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시니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해설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 도착하여 첫 진영을 쳤다. 그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요르단 강에 있는 열두 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과일절을 기념했다. 길갈(Gilgal)이란 이름은 “말아 올림, 벗김(a rolling)”이란 뜻이다.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면 이 이름이 왜 주어졌는지 알 수 있다. 그들은 40년간 먹었던 만나를 받지 못하게 되어 “그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했다.

예리고는 거룩한 땅을 소유하려는 과정에 있던 첫 번째 성이었다. “거룩한 땅(Holy Ground)” 라는 책에서 워체스터(William L. Worcester) 목사는 이 성에 대해 “복음 시대 때의 예리고는 켈트(Kelt)시냇가와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이 언덕으로 보이는 그 평야의 끝을 뒤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 때의 예리고는 북쪽으로 1마일 가량 더 멀리 위치해 있었다. 아직도 거기에는 엘리사의 샘이라고 불리는 샘이 있다. 이 샘은 옛 성이 황폐되어 부분적으로 형성된 언덕의 발꿈치에 해당되는 곳에 드러나 보인다. 이 황폐된 언덕에서는 넓은 평야를 보게 된다. 그리고 그 뒤에는 수도자가 사는 동굴을 가진 절벽이 있는데, 그것은 비바람에 단련되어 있었다.”라고 말한다. 예리고는 이스라엘족이 공격해야만 했던 첫 번째 성으로 단단한 성벽을 가진 성이었다. 주님은 이 단단한 성벽을 이용하셔서 그들의 승리가 그들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인한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매년 알려 주셨다.

창조의 이야기에서 주님은 육 일 동안 일하셨고 칠 일째에는 쉬셨다. 따라서 숫자 6은 시험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투쟁을 표현하며 숫자 7은 시험을 극복한 후 오게 되는 평화로움, 행복함, 그리고 거룩한 상태를 표현한다.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일곱 번 하도록 명령되는 것은 옳은 것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혹은 옳은 것을 행하되 끝까지 그것이 지속되어야 함을 뜻한다. 예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하여 숫자 일곱이 몇 번 사용되었는지 찾아보자. 계명이 시나이 산에서 주어진 후 유대인들과 더불어 주님이 직접 쓰신 두 돌 판은 궤 안에 놓여졌다. 주님의 권능은 이 궤를 통하여 발휘될 수 있었다. 우리는 계명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심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제 2장을 보면, 이스라엘 후손들이 모압 땅 시뻘에 진을 쳤을 때 두 명의 스파이를 예리고 지역을 살피기 위해서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발각되어 죽음에 처하게 됐을 때, 창녀 라합은 쌓아놓은 지붕 위 삼대 속에 이들을 숨게 해주었다. 라합의 집은 성벽 쪽에 지어져 있었다. 그녀는 어두워진 후 창문을 통해 밧줄을 내려서 그들을 도망가게 해 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라합에게 예리고가 함락될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지키는 구절을 찾을 수 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여기서의 라합(Rahab)이 바로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다윗의 선조 라합(Rachab)이라고 한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저주가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 졌는지 알 수 있다. 예리고를 나타내는 두 이야기를 신약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누가복음 19장 1-10절 그리고 본문의 18절을 자세히 읽어 보자.

본문의 내용공부를 위한 질문정리

- * 이 축제는 무엇을 기념하는가?
- * 그들은 성 주위를 무엇을 가지고 돌았는가?
- * 누가 궤 앞에 섰는가?
- *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 * 그들은 6일 동안 하루에 몇 번씩 성 주위를 돌았는가?
- * 일곱(7)이란 숫자는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처음 나오는가? 라합과 그녀의 가족 외에 무엇이 보존되었는가?
- * 보존된 것들은 어디에 쓰였는가?

- * 이 외에 성에 있던 모든 것은 어떻게 했는가?
- * 이 성에 어떤 저주가 내렸는가?

질문 정리

- 1) 어떤 강이 이스라엘백성을 거룩한 땅으로부터 분리시켰는가?
- 2) 그들은 어떻게 이 강을 건넜는가?
- 3) 거룩한 땅에서의 그들의 첫 진영은 어디인가?
- 4) 그곳에서 어떤 축제가 있었는가?
- 5) 그들이 먹던 음식은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 6) 그들이 정복해야 하는 첫 번째 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 7) 그 성 주위를 돌 때 무엇을 메고 돌도록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 8) 케 앞에 선 사제들은 몇 명이었는가?
- 9) 사제들은 무엇을 들고 있었는가?
- 10) 육일 동안 하루에 몇 번 성을 돌았는가?
- 11) 칠일 째 되는 날 성을 몇 번 돌았는가?
- 12) 마지막으로 그들이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르자 어떻게 되었는가?
- 13) 그 성안에서 살아남은 것은 무엇인가?
- 14) 그 밖의 성에 있는 것을 어떻게 되었는가?
- 15) 여호수아에 의하여 말해진 저주의 내용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요르단강 2) 기적에 의하여 3) 길갈 4) 과월절 5) 만나가 중지되고
그 땅의 소출을 먹음
- 6) 예리고 7) 케 8) 일곱 명 9) 수양 뿔 나팔 10) 하루에 한번 11) 일곱
번
- 12) 성벽이 무너짐 13) 라합과 그녀의 가족 및 금속들 14) 파괴해 버렸음

15) “이 성을 다시 짓는 자는 두 아들을 잃을 것이다”

14

드보라와 바락

머리말

여호수아의 지휘 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자취를 살펴보고 판관기 시대의 특성을 설명한다. 본장을 공부하면서 꼭 배워야 할 중요한 점은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진리를 꾸준히 배우지 않고도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나는 충분히 알고 있음”은 남녀노소를 불문 하고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성 서 본 문: 판관기 4장

4장: 1. 에훗이 죽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 2. 그래서 야훼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겨 주셨다. 그의 군대 지휘관은 하로셋하고임에 사는 시스라라는 자였다. 3. 야빈은 철병거를 구백 대나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이십 년 동안 심하게 억압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께 울부짖었다. 4. 그 때 이스라엘을 다스린 판관은 라삌돏의 아내 여예언자 드보라였다. 5. 그가 에브라임 산악지대 라마와 베텔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밑에 자리 잡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6. 이 드보라가 납달리 케데스에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 놓고 일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즈불론 지파에서 만 명을 뽑아 다불산으로 이끌고 가거라. 7. 그러면 나는 야빈의 군대 지휘관 시스라를 키손강으로 유인해 내겠다. 내가 그의 전군을 병거대까지 유인해 내다가 네 손에 붙이리라.’” 8. 바락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이 저와 함께 가신다면 가겠지만, 함께

가지지 않는다면 못 가겠습니다.” 9. 드보라는 “내가 꼭 함께 가겠소. 하지만 이번 길에서 그대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만은 알아 두시오. 야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오”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케테스로 갔다. 10. 바락이 즈불룬과 납달리 지파를 케테스로 출동시켰다. 만 명이나 되는 부대가 그의 뒤를 따라 올라 가는데,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11. 모세의 장인 호باط의 자손 가운데 켄 사람 헤벨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문중에서 떨어져 나가 케테스 근처 사아난님 상수리나무 곁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

12.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갔다는 것을 전해들은 시스라는 13. 구백 대나 되는 철병거까지 합친 전 군대를 하로셋하고임에서 키손강으로 출동시켰다. 14.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렀다. “행동을 개시하십시오. 이 날은 야훼께서 시스라를 그대 손에 붙이시는 날이오. 정녕 야훼께서 그대 앞에 서서 전진하실 것이오.” 그리하여 바락은 만 명 부대를 이끌고 다볼산에서 쳐 내려갔다. 15. 야훼께서 시스라가 거느린 그의 전병거대와 군대를 바락 앞에서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러자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쳤다. 16. 바락은 그 병거대와 군대를 하로셋하고임까지 따라 가며 추격전을 벌였다. 시스라의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칼에 맞아 쓰러졌다. 17. 한편 시스라는 켄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을 향해 뛰어 도망쳐 갔다. 하솔 왕 야빈과 켄 사람 하벨 가문은 서로 우호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18. 야엘이 시스라를 나와 맞으며 말하였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나리. 어서 들어오십시오. 마음 놓으십시오.” 시스라가 그의 천막에 들어오자 야엘은 담요로 그를 덮어 주었다. 19. 시스라는 목이 마르니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청하였다.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부대를 열어 좀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 주자, 20. 시스라는 야엘에게 부탁하였다. “천막 문에 섰다가 누가 와서, 여기에 누가 없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해 주오.” 21. 헤벨의 아내 야엘은 천막 말뚝과 망치를 가지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말뚝이 땅에 꽂히도록 그의 관자놀이에 들이박았다. 시스라는 기진맥진하여 정신없이 자다가 참변을 당하고 말았다. 22. 때마침 바락이 시스라를 추적하여 왔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입을 열었다. “들어 와 보십시오. 장군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락이 들어 가 보니 시스라는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힌 채 죽어 쓰러져 있었다. 23.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그 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의

기세를 꺾으셨다. 24. 그 후로 가나안 왕 야빈은 점점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눌리다가 마침내 망하고 말았다.

해설

본문 공부를 위한 질문정리

- * 본문에서는 어떤 적이 위협했는가?
- *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는 민족은 어느 구역의 땅에 살었는가?
- * 그 당시의 판관은 누구였는가?
- * 그 여판관은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 * 드보라는 누구에게 야빈을 대항해서 싸우도록 요구했는가?
- * 어느 지파로부터 드보라는 군대를 편성했는가?
- * 바락은 드보라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가?
- * 그 여자는 바락에게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말했는가?
- * 야엘은 어떤 사람의 후손인가?
- * 그 당시 이 여자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왔는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거룩한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줄 때까지 그들을 이끌었다. 성서 지도를 보면, (성서 뒷면 참조) 각 지파가 자리 잡은 장소를 알 수 있다. 두 지파 반이 요르단 강의 동쪽에 자리를 잡았다. 요르단 강 서쪽의 거룩한 땅은 각 지파에서 뽑힌 남자들이 조사했고 열 부분으로 구획되었다. 이후에 이렇게 구획된 땅의 주인을 제비뽑기를 해서 결정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전통으로 주님께서 각 지파가 정착할 적당한 장소를 결정하셨음을 의미한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 성심껏 주님을 섬기며 남아있는 모든 적이 소탕될 때까지 각 지파가 각자의 영토 안에서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약속대로 정복을 계속해 나갔다. 그러나 다른 지파들은 할당 받은 땅에 정착하는데 집착하여 전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그들에게는 주님에 대한 의무를 일깨워 줄 지도자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의 적들은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진 채로 남아 있었으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과 협정을

맺고 그들과의 결혼도 허용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적들의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까지 있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따르는 것을 더 쉽게 여기는 것과 같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적이 섬기는 신을 숭배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적은 강해져서 결과적으로 그들을 복종 시켜 간섭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전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주님은 각 지역 지파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돌아설 때까지 각 지역에서 적들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허용하셨다. 하지만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스라엘 지파가 주님께 울부짖으면, 주님은 각 지파가 겪는 고난을 해결해 줄 지도자를 세우셨다. 이들은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의 민족 모두 위에 세워진 지도자가 아닌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지도자로 판관(Judge)이라고 불렸다. 주님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섭리하셔서 도움을 주시고자 하신다. 즉, 주님은 우리가 겪게 될 시험에 대비하여 우리를 이끌어 줄 특수한 진리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양육되도록 하신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허점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허점과 싸우기 위해 우리를 분발시킬 필요가 있기 전에도 곤경에 처한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않으신다. 제 2장 20-23절을 읽어보면 이 진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판관인 오드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에 대항하여 사람들을 이끌었다. 두 번째 판관은 베냐민 지파의 에훗으로 모압왕 에글론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냈다. 그리고 세 번째 판관인 삼갈은 블레셋 사람과 싸워 승리했다. 지도에서 베텔과 라마를 찾아보자. 베텔은 아브라함이 거룩한 땅에 들어섰을 때 두 번째로 멈췄던 지역이며 야곱이 사다리에 관한 꿈을 꾸었던 곳이다. 라마는 사무엘이 태어난 고향이다.

이스르엘(Esdraelon)평야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지도를 보면, 스블론 지파의 남쪽 경계선에 있는 해안선을 따라 꼭지같이 나와 있는 갈멜(Carmel)산을 찾을 수 있다. 이 산으로부터 키손강이 남동쪽으로 흘러 이스르엘 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이스르엘 평야는 거룩한 땅의 소유권을 얻기 위해 군대들이 접전하기 좋은 장소로 많은 전투가 그곳에서 있었다. 이 평야 지대에서 키손강의 물줄기가 끝난다.

본문의 못(nail)은 나무로 된 천막 말뚝이었다. 여인이 말뚝을 사람의 머리에 박아 죽였다는 행동은 매우 잔인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주님은 말씀의 상응적 의미를

위해 이렇게 가혹한 행위를 사용하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 하나는 주님께서는 무지에서 오는 잘못된 행위는 나무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야엘의 행위는 살인이라는 잘못된 것이었으나 그녀의 동기는 이스라엘을 돕기 위함이었으며 그녀는 미디안 사람으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을 몰랐다. 주님은 언제나 동기(motives)로서 우리를 판단하신다. 17-22절을 읽고 주님께서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것을 허용하신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주님은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는 그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님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보여 주시려고 언제나 노력하셨다.

질문 정리

- 1) 여호수아는 일생동안 무엇을 성취했는가?
- 2) 거룩한 땅은 어떻게 지파 별로 분할 되었는가?
- 3) 여호수아를 바로 계승한 지도자가 있었는가?
- 4)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가?
- 5) 그 결과는 무엇인가?
- 6) 그들이 주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하셨는 가?
- 7) 주님께서 일으켜 세운 지도자를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 8) 여판관은 누구인가?
- 9) 여판관 당시 어떤 적이 공격했는가?
- 10) 그 적의 대장은 누구였는가?
- 11) 드보라가 세운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의 이름은 무엇인가?
- 12) 어떤 조건하에 그는 군대를 이끌었는가?
- 13) 어떤 지파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뽑았는가?
- 14) 전투는 어디서 벌어졌는가?
- 15) 누가 승리했는가?
- 16) 시스라는 어디로 피신하여 누구에게 숨겨 달라고 했는가?
- 17) 그 여자는 시스라를 어떻게 했는가?

질문의 답

- 1) 거룩한 땅을 정복했다 2) 제비 뽑아서 나누어짐 3) 없다 4) 주님을 잊어버림
- 5) 많은 적들이 그들을 괴롭힘 6) 지도자를 세워 주셨다 7) 관관 8) 드보라
- 9) 야빈 10) 시스라 11) 바락 12) 만일 드보라가 함께 간다면 13) 납달리, 스블론 14) 키손강 근처 15) 이스라엘 16) 야엘 17) 그를 죽였음

15

사무엘의 출생

머리말

관관시대의 일반적 특성을 간략히 재정리한다. 관관시대의 마지막 관관으로서 이스라엘 전 지파가 인정한 관관은 사무엘 이었음을 기억하자. 또한 어린 시절 사무엘의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의 후기 업적들이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음도 유의하자.

성서 본문: 사무엘상 1, 2장 1-11절

1장: 1.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엘카나라는 수브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라마다임 출신으로서 에브라임 사람 수브의 현손이요, 도후의 중손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여로함의 아들이었다. 2. 그는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그런데 브닌나는 자식을 두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3. 엘카나는 해마다 자기의 성읍을 떠나 실로로 올라 가 만군의 야훼께 제사를

드려 예배하였다. 실로는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야훼를 모시고 사제 일을 보고 있는 곳이었다. 4. 제일이 되면 엘카나는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 제물을 뭉뚱이 나누어 주었다. 5. 그러나 엘카나는 한나를 사랑하면서도 그에게는 한 뭉뚱에 줄 수가 없었다. 야훼께서 한나로 하여금 잉태하게 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6. 게다가 적수 브닌나는, 야훼께서 잉태하게 해 주시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는 한나를 더욱 괴롭혔다. 7. 엘카나가 매년 야훼의 신전에 올라 갈 적마다 그렇게 하였으므로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혔고 한나는 목이 메어 먹지를 못했다. 8. 남편 엘카나는 한나를 보고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도 않고 슬퍼만 하오? 내가 당신한테는 아들 열보다도 낫지 않소?”하며 위로해 주었다. 9. 실로에서 젓상을 물리고 나자 한나는 일어나 야훼 앞에 나아갔다. 그 때 마침 사제 엘리가 야훼의 성전 문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10. 한나는 마음이 아파 흐느껴 울며 야훼께 애원하였다. 11. 그는 서원을 하며 빌었다. “이 계집종의 가련한 모습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계집종을 저버리지 마시고 사내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아이를 야훼께 바치겠습니다. 평생 그의 머리를 깎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 한나가 야훼께 오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13. 한나는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가 한나를 술취한 여자로 알고, 14. “언제까지 이렇게 주정을 하고 있을 참이나? 어서 술에서 깨어나지 못하겠느냐?”하고 꾸짖자 15. 한나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사제님! 저는 정신이 말짱합니다. 포도주도 소주도 마시지 않았습니 다. 저는 야훼께 제 속을 털어 놓고 있습니다. 16 사제님, 이 계집종을 좋지 못한 여자로 생각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서럽고 괴로워서 이제껏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7. “그럼, 안심하고 돌아가거라. 이스라엘을 보살피시는 하느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다.” 엘리가 이렇게 말하자, 18. 한나는 “그렇게까지 보아 주시니 고맙기 그지없습니다.”하면서 물러나와 음식을 먹었다. 그 얼굴에는 어느덧 수심이 걷히었다. 19. 엘카나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식구들과 함께 야훼께 예배를 드리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 왔다. 엘카나가 아내 한나와 한자리에 들자, 야훼께서 한나를 마음에 두시어 20. 임신하게 해 주셨다. 한나는 달이 차서 아들을 낳자 “야훼께 빌어서 얻은 야기”라고 하여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다. 21. 엘카나, 그 사람이 식구들을 이끌고

다시 야훼께 주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22. 한나는 따라 나서지 않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기가 젖을 떼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야훼를 뵈겠습니다. 그리고 영영 거기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23. “당신 좋을 대로 하구료. 젖땀 때 까지 집에 남아 있으시오. 야훼께서 부디 당신의 서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는 남편 엘카나의 허락을 받고 아들이 젖을 떼 때까지 집에서 키우게 되었다. 24. 이윽고 젖을 떼자 한나는 아기를 데리고 나섰다. 삼 년 된 황소 한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에다가 죽부대에 포도주를 담아 가지고 실로에 있는 야훼의 성전으로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갔다. 25. 일행은 소를 잡고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려 갔다. 26.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사제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제님께서 지금 살아 계신 것이 틀림없듯이 제가 바로 이전에 여기 사제님 앞에서 야훼께 기도를 드리던 여자입니다. 27. 이 아이는 기도해서 얻은 아이입니다. 제가 야훼께 애원했더니, 야훼께서 소원을 들어 주셨습니다. 28.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야훼께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야훼께 맡기고 싶습니다.” 그러자 일행이 거기 야훼 앞에 엎드리고,

2장: 1.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올렸다. “내 마음은 야훼님 생각으로 울렁거립니다. 하느님의 은덕으로 나는 얼굴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내 가슴에 승리의 기쁨을 안겨 주시니 원수들 앞에서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2. 야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으십니다. 당신밖에는 없으십니다. 우리 하느님 같은 바위는 없으십니다. 3. 잘난 체 지껄이는 자들아, 너무 우쭐대지 말아라. 거만한 소리를 입에 담지 말아라. 야훼는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아시는 하느님, 저울질하시는 하느님이시다.

4. 힘있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비틀거리던 군인은 허리를 묶고 일어나게 되리라. 5. 배불렀던 자는 떡 한 조각 얻기 위하여 품을 팔고 굶주리던 사람은 다시는 굶주리지 않게 되리라. 아이 못 낳던 여자는 일곱 남매를 낳고 아들 많던 어미는 그 기가 꺾이리라. 6. 야훼께서는 사람의 생사를 쥐고 계시어 지하에 떨어뜨리기도 하시며 끌어올리기도 하신다. 7. 야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멸지게도 하시며 쓰러뜨리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신다. 8. 땅바닥에 쓰러진 천민을 일으켜 세우시며 잿더미에 뒹구는 빈민을 들어 높이셔서 귀인들과 한 자리에 앉혀 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땅의 밀동은 야훼의 것, 그 위에 세상을 지으셨으니 9. 당신을 따르면 그 걸음걸음을 지켜 주시지만 불의하게 살면 앞이 캄캄해져서 말문이 막히리

라. 사람이 제 힘으로는 승리하지 못하는 법, 10. 야훼께 맞서는 자는 깨어지리라. 지존하신 이께서 하늘에서 천둥소리로 우렁차게 호령하신다. 야훼는 땅 끝까지 심판하시는 분, 당신께서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의 이름을 떨치게 하신다.” 11. 한나는 사제 엘리 밑에서 야훼를 모시도록 아이를 거기에 남겨 두고 라마로 돌아갔다.

해설

본문을 공부하면서 다음 질문에 답해 보자.

- * 여호수아서 다음의 성경은 무엇인가?
- * 판관들은 누구누구였는가?
- * 본문의 시대와 그 이전 시대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 여호수아는 성막을 어디에 세웠는가?
- * 사무엘이 출생할 당시는 누가 제사장이었는가?
- * 누가 최초의 제사장이었는가?
- * 한나는 주님께 무엇을 소원했는가?
- *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는 그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였는가?
- * 한나는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겠다고 서약했는가?
- * 그녀는 약속을 어떻게 지켰는가?

판관시대의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다. (판관기 17:6) 따라서 판관기에서는 궤와 성막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주님께 향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향해 있었다. 우리가 선 혹은 악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충분히 현명하다고 착각하게 되면, 주님과 교회는 우리들 마음에서 떨어져 버린다. 따라서 주님과 교회에 속한 모든 것은 우리들의 심정과 지성 깊숙한 곳에 감추어져 있게 된다. 궤와 성막이 아직 거룩한 땅의 중앙인 실로에 있는 것으로 시작되는 사무엘상서는 우리 깊숙이 감춘 듯이 놓인 하느님의 법을 우리가 재발견하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주님을 잊어 버렸지만, 그들 중 소수는 모세의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며 정기적으로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다. 사무엘의 부모가 바로 그 소수의 사람들에 속했다.

한나가 아이 낳기를 오랫동안 기다려 겨우 낳은 아이를 포기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을 거라고 짐작된다. 2장 18-21절을 보면, 한나가 그녀의 아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주님께 정성으로 예배를 드렸는지를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주님이 어떤 축복을 더해 주셨는지 알 수 있다.

「거룩한 땅(On Holy Ground)」라는 책에서 워체스터(William L. Worcester)는 사무엘서의 실재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다음에 오는 내용이 바로 그러하다: “우리 스스로 실로를 상상해 보아야 한다. 실로란 ‘쉬는 곳(the place of rest)’이란 뜻이며,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이다. 실로는 풀밭을 가진 작은 언덕으로 높은 언덕들에 둘러 싸여 있고 여행자들의 발길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언덕 위는 황폐하다. 당시에는 조그만 읍이 그곳에 있었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한 후에 성막을 세웠다. 성막은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만들어진 거룩한 천막 즉 성막(tabernacle)임을 기억할 것이다. 바깥뜰에는 큰 번제단과 놋그릇이 놓여있고, 성막벽은 곧게 세운 널빤지로 되어있다. 그 안은 커튼으로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the most Holy Place)에는 계명을 적은 두 석판을 담은 궤가 놓여있다. 늙은 제사장 엘리가 그 성막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는 90세가 넘는 고령으로 눈이 아주 어두웠다. 일부 사람들은 해마다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으로 왔는데, 그때는 과일절이 있는 봄철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제인 엘리의 아들들은 선하지 않아서 사람들로부터 제물을 착취했다. 어린 소년이 성막에서 늙은 제사장을 돕고 있었다. 그는 머리카락이 길고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어서 사제복과 같은 차림새였다. 그는 제단에서의 일들을 돕기 위해 성막 안에 들어가서 테이블 위의 빵을 정리했다. 또한 등불을 정돈하고 저녁에는 등에 불을 켜서 어두운 동안 주님의 집이 밝을 수 있도록 하였다. 등불이 타는 동안 엘리와 사무엘은 성막에서 잠들었다. 그리고 아침이 밝으면, 사무엘은 문을 열거나 성막의 커튼을 열어 아침 햇살이 들도록 했을 것이다.”

사무엘은 「나지르인(a Nazarite)」이 되었다. 민수기 6장 1-5절을 보면, 나지르인에 대한 법을 알 수 있다. 머리털은 우리의 신체 중 가장 바깥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성서의 가장 바깥 즉 글자에 해당된다. 성서의 글자는 하느님의 말씀의 가장 바깥

쪽에 해당된다. 나지르인은 머리카 수염을 깎지 말도록 명령되었다.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데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주어진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사무엘은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면서 성장했다. 그는 판관 중에서 가장 위대했으며 마지막 판관이었다. 그는 다른 판관들 같이 용사는 아니었지만 제사장이면서 예언자였다.

질문 정리

- 1) 누가 마지막 판관이었는가?
- 2) 사무엘의 부모는 누구인가?
- 3) 당시에 성막은 어디에 있었는가?
- 4) 제사장은 누구였는가?
- 5) 한나는 어떤 서약을 했는가?
- 6) 그 여자는 그것을 어떻게 지켰는가?
- 7) 사무엘은 어디서 자랐는가?
- 8)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관기 당시 왜 그토록 곤란을 겪었는가?

질문의 답

- 1) 사무엘
- 2) 엘카나와 하나
- 3) 실로
- 4) 엘리
- 5) 만일 아들을 갖게 해 주신다면 주님에게 바치겠다고 서약했음
- 6) 사무엘을 엘리에게로 데려다 주어 살게 했음
- 7) 실로
- 8) 주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16

사울을 선택함

머리말

앞서 했던 성경 공부를 통해 판관시대의 특성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왜 곤란을 겪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무엘상 8장을 읽어 두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사무엘이 나이 많은 노인으로 큰 인물이 되어 주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즉 예언자 또는 선견자가 되었음을 염두 하자.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9:10장

9장: 1. 베냐민 지파에 키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아비아의 현손이요 브고랏의 중손이요 스롤의 손자요 아비엘의 아들이었다. 그는 베냐민 사람으로서 유지였다. 2. 그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을 만큼 깨끗하게 잘생긴 아들이었다. 누구든지 그의 옆에 서면 어깨 아래에 닿았다. 3. 하루는 아버지 키스가 기르던 암나귀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는 아들 사울에게 종 하나를 데리고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하였다. 4. 그는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악지대를 넘어 살리사 지방으로 가 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다시 사알림 지방으로 건너 가 보았으나 역시 보이지 않았다. 5. 수브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 사울은 데리고 가던 종에게 “아버지께서는 암나귀 생각보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고 하며 그만 돌아가자고 하였다. 6. 그러자 종이, “이 성읍에는 하느님의 사람 한 분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어른이신데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다 들어맞는다고 하더군요. 그에게 가면 우리가 찾는 것을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을지 알려 줄지도 모릅니다”하고

말하였다. 7. 사울이 종에게 물었다. “간다면 그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가겠느냐? 먹을 것이라곤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그 하느님의 사람에게 드릴 복채가 없으니, 무엇을 드리면 좋겠느냐?” 8. 종이 대답하였다. “여기 저에게 은 사분의 일 세겔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느님의 사람에게 드리면,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을지 알려 줄 것입니다.” 9. 그러자 사울은 종에게, “됐다. 네 말대로 어서 가자”하며 하느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갔다. 10.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하느님께 물어 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선견자에게 가자고 하였다. 오늘날 예언자라는 사람을 전에는 선견자라고 하였다.

11. 사울은 종을 데리고 언덕에 올라 그 성으로 가다가 물을 길으러 나오는 처녀들을 만나 “여기에 선견자가 한 분 계시는지?” 하고 물었다. 12.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예, 그분이 저 앞에 가십니다. 오늘 산당에서 이 성의 제사가 있어서 방금 도착하였습니다. 13. 성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산당으로 음복하시러 올라가시기 전에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지 않고 그분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복한 다음에야 손님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올라가시면 곧 만나실 것입니다.”

14.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성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성 안에 막 들어서려는데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 가다가 그들과 맞부딪치게 되었다. 15. 그런데 사울이 오기 전날 야훼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당신의 뜻을 밝히셨다. 16. “내일 이맘때 베냐민 지방에서 사람 하나를 너에게 보낼 터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성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수령으로 세워라. 그가 내 백성을 불레셋 사람에게서 구해 낼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17. 사울이 사무엘의 눈에 뜨이는 순간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바로 너에게 말해 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지배할 사람이다.” 18. 사울이 성 문간 안에서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여기 선견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맥이 어딘지 가르쳐 주십시오.” 19. “바로 내가 그 선견자요”하고 사무엘이 말하였다.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눕시다. 내일 아침에, 그대가 걱정하고 있는 일을 다 일러 준 다음 떠나도록 해 주리다. 20.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 일로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시오. 나귀는 찾았소.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가 누구의

어깨에 걸쳐 있는지 아시오? 그대와 그대의 가문에 걸쳐 있소.” 21.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렇지만 저는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저희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저의 문벌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초라합니다. 그런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22.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식당으로 들어 가 삼십 명 가량 모인 손님들의 상좌에 앉혔다. 23.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잘 간수하라고 맡겨 두었던 그 제사 음식을 가져 오너라”하고 이르자,

24. 요리사가 제물의 다리와 꼬리를 들어다가 사울 앞에 차려 놓고 말하였다. “당신께 드리려고 따로 떼어 둔 몫입니다. 어서 잡수십시오. 이 손님들과 함께 잡수시라고 떼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 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25. 그들이 산당에서 성으로 내려 와 보니 사울의 잠자리가 옥상에 마련되어 있어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26. 날이 새자 사무엘이 옥상에 대고 “일어나 길을 떠납시다”하고 사울을 불렀다. 사울은 일어나 사무엘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27. 그들은 성읍의 끝까지 걸어 내려갔다. 거기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일렀다. “종을 먼저 보내고 그대는 잠깐 여기에서 있으시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리다.”

10장 1. 사무엘은 기름 한 병을 꺼내어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이렇게 선언하였다. “야훼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수령으로 성별해 세우시는 것이요. 그대는 야훼의 백성을 지배하시오. 그대는 사방에 있는 적의 세력으로부터 이 백성은 구해 내어야 하오. 야훼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몫인 이 백성의 수령으로 성별해 세우신 표는 이것이요. 2. 오늘 그대는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지역 쉘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그대가 찾아다니던 암나귀를 찾아냈으므로 나귀 걱정은 놓았지만 그대들이 걱정되어 ‘내 아들이 어찌 되었느냐?’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알려 줄 것이요. 3. 거기에서 다시 다볼에 있는 상수리나무 쪽으로 건너가시오. 거기에서 그대는 하느님을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과 마주칠 것이요. 한 사람은 염소새끼 세 마리를 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지고 나머지 한 사람은 술 한 자루를 메고 올 것이요. 6. 그 때 야훼의 기운이 갑자기 내리덮쳐, 그대도 그들과 함께 신이 들려 아주 판사람이 될 것이요. 7.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8. 그대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시오. 나도 뒤따라 그대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번제와 친교제를 드리리다. 나와 만날 때까지 칠 일간 기다리시오. 그 때에 가서 그대가 할 일을 가르쳐 주겠소.”

9. 사울이 사무엘을 뒤에 두고 길을 떠나자 하느님께서 그의 속마음을 새롭게 하였고, 그 날로 이런 조짐이 모두 일어났다. 10. 사울은 종을 데리고 그 언덕에 이르렀을 때 과연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느님의 기운이 사울에게 내리 덮쳐 그도 신이 들려 그들과 함께 신들린 것을 보고는 서로 “키스의 아들이, 저게 어찌 된 일이나. 사울도 예언자들 중의 하나더냐?”하며 수군거렸다. 12. 거기에 있던 사람 하나가 “이들이 도대체 누구네 집 아들이냐?”고 묻는 바람에 “사울도 예언자들 중 하나더냐?”하는 속담이 생겼다. 13. 사울은 이렇게 신이 들렸다가 풀려난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다.

14. 사울이 종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그의 삼촌이 “어디를 갔다 왔느냐?”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암나귀를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하고 사무엘 어른께 갔다 오는 길입니다.” 15. 이 말을 듣고 사울의 삼촌이 다시 물었다. “그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더냐?” 16. 사울은 “암나귀는 이미 찾았다고 알려 주시더군요요”하고 대답하면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사무엘의 말만은 하지 않았다. 17.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야훼 앞에 모아 놓고 18. 일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집트뿐만 아니라 너희를 못살게 구는 모든 나라의 손아귀에서 너희를 구해 주었다.’ 19. 그런데도 당신들은 오늘날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당신들을 살려 주신 당신의 하느님을 저버리고 ‘안 되겠습니다. 왕을 세워 주십시오’하니, 이제 지파별, 씨족별로 야훼 앞에 나와 서시오.”

20.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지파를 내세우고 제비를 뽑자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다시 베냐민 지파를 갈래별로 내세우고 제비를 뽑자 키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래서 그를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22. 사람들이 야훼께,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하고 묻자 야훼께서 “그렇다, 저기 짐작들 틈에 숨어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23. 그래서 사람들이 뛰어 가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서자 그들의

키는 모두 그의 어깨에도 차지 못하였다. 24. 사무엘이 백성에게 “야훼께서 뽑으신 이를 보아라. 이 나라에는 이만한 인물이 없다”하고 선포하자 온 백성이 “우리 임금 만세!”하고 외쳤다.

25. 사무엘은 백성에게 군주제도를 설명하고 그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야훼 앞에 보관해 두었다. 그리고 나서 온 백성을 각기 집으로 돌려보냈다. 26. 사울도 역시 기브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 때 하느님께서 마음을 내키게 하시어 그를 따라 나선 군인들이 있었다. 27. 그러나 “이 친구가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으랴?”하고 멸시하는 못된 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사울을 얹잡아 보고 선물도 바치지 않았다.

해설

본문을 공부하면서 다음의 질문들에 답해 보자.

- * 누가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는가?
- * 첫 왕은 어느 지파에 속했는가?
- *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 사무엘은 사람들을 어디로 모이게 했는가?
- * 사울은 어떻게 뽑혔는가?
- * 사람들은 왜 사울이 뽑힌 것을 기뻐했는가?

사무엘은 주님의 예언자로서 인식되었고, 성장해서는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관의 위치에 섰다. 그는 오랫동안 신실하게 봉사했고 주님께 늘 순종했다. 그는 늙게 되자 그의 아들들에게 직무의 일부를 맡겼다. 그들은 선하지 못하여 돈에 관심을 갖고 뇌물을 받음으로써 사람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지 않았다. 그 결과, 사람들은 다른 국가처럼 되도록 해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했다. 사무엘은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였지만,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도록 그에게 분부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첫 왕이 누가 될지 보여주시겠다고도 말씀하셨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울의 일생을 감독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울이 공개적으로 왕으로 선포되기 전에, 그는 어느 정도 준비 되어져야 했다. 그의 겸손함은 사무엘이 그에게 "네가 뽑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할 때, 그는 자기의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고 그 중에서도 자기는 더 작은 자라고 대답함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은 뒤, 주님은 사울에게 그가 정말로 뽑힌 자임을 입증시켜 주려고 몇 가지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 주셨다. 우리는 제 10장 첫 부분을 통해 그러한 일들을 알게 된다. 주님의 섭리는 옛날 사울에게 있었던 것과 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 우리는 각기 특별한 장소를 채우고 주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들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러한 경험들이 모두 우리가 가지는 어떤 특별한 직분을 위해 준비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울은 제비가 자기에게 떨어질 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해야 할 것은 주님의 선택이 사울이었다는 것이다. 사울 역시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스스로 숨어 있었다는 사실은 그 순간 까지도 사울의 마음은 겸손하여 감히 자기가 높은 직책을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울은 속으로 큰 자가 아니라 겉으로 키가 큰 자였으므로 그의 겸손한 마음은 그리 길게 가지 못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면의 깊은 것을 보기 보다는 쉽게 파악되는 표면만으로 사람의 품성을 판단하는 일이 흔하다.

오늘날도 왕들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예식이 거행된다. 이 예식은 아주 오랜 관습으로서 고대인들이 고대 말씀으로부터 가졌던 상응에 관한 지식에 근원한다. 기름(oil)은 사랑을 상징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은 사울이 왕이 되면 주님과 이웃을 섬김을 원칙으로 삼아 백성을 통치해야 함을 의미한다. 권력자들이 심령에 이러한 원리를 담아 실천해 왔다면, 세상은 지금과는 아주 다른 모습일 것이다.

질문 정리

- 1) 사무엘이 늙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왕을 요구했는가?
- 2) 그 요구에 대해 사무엘은 어떻게 느꼈는가?
- 3) 주님은 사무엘에게 백성의 요구가 무엇을 말한다고 하셨는가?
- 4) 주님이 뽑은 첫 왕은 누구였는가?

- 5)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보았을 때,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6) 사무엘은 주님이 사울을 선택하셨음을 어떻게 입증했는가?
- 7) 기름부음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 8) 주님은 사람들을 어디에 모으라고 하셨는가?
- 9) 사울은 그곳에서 어떻게 뽑혔는가?
- 10) 실제 제비가 뽑혀지도록 한 이는 누구인가?
- 11) 사람들은 왜 사울이 왕으로 됨을 기뻐했는가?

질문의 답

- 1) 사무엘의 아들들이 악했기 때문이다. 2) 불쾌하게 여겨 거절했다. 3) “그들은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 4) 사울 5)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 있었다. 6) 그에게 기름을 부음 (사무엘상 10:2-6)
- 7)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음 8) 미스바 9) 제비로 뽑힘 10) 주님
- 11) 키가 크고 힘이 세게 보였기 때문

17

다윗을 기름붓다

머리말

사울의 약함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을 읽도록 하자. 아주 어린 사람도 사울이 사무엘에게 불순종했던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외모 또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사울의 성향을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지 알아보

자. 사울로부터 다윗으로 가는 변화의 연결점은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16장

16장: 1.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켰다고 해서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셈이냐?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에게로 보낸다. 그의 아들 가운데서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을 하나 보아 두었다.” 2. 사무엘이 “사울이 알면 저를 죽일 텐데 어떻게 갑니까?”하고 여쭙자 야훼께서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거라.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3.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내가 알려 주리라. 너는 내가 지적하여 일러주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성별시켜 나에게 바쳐라”하고 이르셨다. 4. 사무엘은 야훼께서 이르시는 대로 하였다. 그가 베들레헴에 다다르자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안절부절못하고 그를 맞으며 “언짢은 일로 오신 것은 아니겠지요?”하고 물었다. 5. “아니오. 좋은 일로 왔소.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요. 그러니 모두들 목욕재계하고 함께 제사 드리러 갑시다.” 이렇게 일러 놓고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목욕재계시킨 다음 제사에 나오라고 초청하였다. 6. 그들이 나타나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바로 여기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성별하실 자가 있구나”하고 생각하였다. 7. 그러나 야훼께서는 사무엘에게 “용모나 신장을 보지는 말라. 그는 이미 내 눈 밖에 났다. 하느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하고 이르셨다. 8. 다음으로 이새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나와 서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오”라고 하였다. 9. 이새가 다시 삼마를 보여 드렸지만, 사무엘은 그도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라고 하였다. 10. 이렇게 이새가 아들 일곱을 사무엘 앞에 나와 뵈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 가운데는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없소”하고 11. 이새에게 그 밖에 아들은 또 없느냐고 물었다. 이새가 “막내가 또 있긴 하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데려 오시오. 그가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하고 일렀다. 12.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데려 온 그는 볼이 붉고 눈이 반짝이는 잘생긴 아이였다. 야훼께서 말씀을 내리셨다. “바로 이 아이다, 어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13. 그리하여 사무엘은 기름 채운 뿔을 집어 들고 형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야훼의 영이 다윗에게 내려 그 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사무엘은 길을 떠나 라마로 갔다.

14. 야훼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야훼께서 내리신 악령이 그를 공포에 넣자 15. 그의 신하들이 말하였다. “삼가 아뢰니. 하느님께서 내리신 악령이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으니 16. 부디 소인들에게 명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 오도록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악령을 내리실 때마다 그로 하여금 수금을 타게 하시면 마음이 개운해지실 것입니다.”

17.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들이라고 명하였다.

18. 시중들던 한 젊은이가 말하였다. “소인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한 아들을 알고 있는데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씩씩하고 날랜 용사로서 말도 잘하고 풍채도 좋은데다 야훼께서 함께 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19. 그리하여 사울은 이새에게 전갈을 보내어 양을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보내라고 하였다. 20. 이새는 빵을 나귀로 한 바리, 술을 가죽부대로 한 부대 그리고 새끼양 한 마리를 마련하여 아들 다윗 편에 사울에게 보냈다. 21. 이리하여 다윗은 사울을 찾아 와 그를 시중들게 되었는데 사울은 다윗을 몹시 사랑하여 그를 자기의 무기당번으로 삼았다. 22. 그리고 이새에게 전갈을 보냈다. “너의 아들이 마음에 들었다. 다윗으로 하여금 내 앞에서 시중들게 허락하여라.” 23. 하느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내릴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뜯었다. 그러면 악령이 떠나고 사울은 회복되어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해설

사울은 용감하고 호의적이었으나 한편으론 성급하고 인내심이 부족했다. 그는 사무엘이 예언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무엘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하기를 원했다. 따라서 사울은 처음에는 전투에서 승리하지만, 후에는 전투에서 패하였다. 결국 사울의 왕권은 오래가지 못할 것을 사울에게 알리기 위해

사무엘이 보내진다.

주님은 사무엘에게 새 왕을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새 왕은 사울과는 아주 다른 인물로서, 그분의 마음에 드는 자를 선택해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무엘상 13:14) 다윗은 사울보다 더 용감했고, 사울에게 없었던 다른 특성들도 가졌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왜 베들레헴으로 갔는지 알게 된다. 이는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성경에 있는 모든 동물은 우리가 가진 다양한 애착들과 “유사성 (likings)”을 표현하거나 상응하고 있다. 나귀는 바깥쪽에 속한 방법으로 추론하는 것과 유사함을 묘사한다. 양은 순진함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주님을 인도자로 삼고 그분에 의존하려는 마음을 뜻한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부게 됨은 주님의 권능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 감을 표현한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죽기 전까지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야만 했다. 다윗이 사울의 충복으로 있을 때,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게 되어 사울은 그를 시기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사울을 도왔지만, 사울은 그를 미워하여 여러 번 죽이려는 시도를 했다.

본문에는 하프(harp)가 등장하는데, 이는 현악기의 일종이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악기들이 언급된다. 스웨덴북은 악기들이 주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치렀다. 다윗 하에 가나안 땅의 모든 적들은 정복당했고 이스라엘의 국경은 어느 때 보다 넓었다. 또한 예루살렘이 회복되었고, 그곳은 나라의 수도가 되었다. 그리고 궤가 그곳으로 운반되어 시온산에 있는 새로운 성막에 안치되었다. 다윗은 음악가이기도 했고, “달콤한 이스라엘의 시인”으로도 불렸다. 많은 시편들이 그를 통해 주어져서 시편들을 “다윗의 시”라고도 부른다. 우리는 그가 죽을 때, “야훼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시어 말씀하셨다. 당신의 말씀을 내 혀에 담아 주셨다”(사무엘하 23:2)라고 말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본문공부를 위해 다음의 질문에 답하고 몇 가지 요점을 정리해 보자.

- * 다윗의 고향은 어디인가?
- * 오랜 후에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났는가?
- *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보았을 때, 사울은 무엇을 하던 중이었는가?
- * 사무엘이 다윗을 발견했을 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자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 * 이와 더불어 사울에게는 무슨 일이 생겼는가?
- * 다윗이 사울을 도운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 * 예리고성을 점령할 때 사용된 악기는 무엇이었는가?
- * 그 악기는 줄로 된 악기 즉 현악기이었던가?

질문 정리

- 1) 주님은 사울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가?
- 2) 주님은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 사무엘을 어디로 보냈는가?
- 3) 베들레헴에서는 다윗 외에 누가 태어났는가?
- 4) 사무엘이 이새의 큰 아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 5) 그 때 주님은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 6) 주님은 이새의 아들 몇 명을 거절하셨는가?
- 7) 사람들에게 다윗을 데려오게 했을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8) 다윗에게 기름 부어지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9) 이와 동시에 사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10) 다윗의 용모는 어떠했는가?
- 11) 이외에 다윗이 가진 특성은 무엇인가?
- 12) 다윗은 어떤 악기를 연주했는가?
- 13) 다윗은 사울의 관심을 어떻게 샀는가?
- 14) 사울은 어떤 지위를 다윗에게 주었는가?
- 15) 성경의 어떤 책이 다윗을 통해 부분적으로 쓰였는가?

질문의 답

- 1) 그의 왕국을 잃게 될 것 2) 베들레헴 3) 베냐민, 예수 4) “바로 여기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성별하실 자가 있구나” 5) “이 아들도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다”

- 6) 일곱 명 7) 양을 치고 있었다 8)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내림 9) 악령이 그를 괴롭힘 10) 불이 붙고 눈이 반짝이며 잘생긴 아이 11) 용사, 시인, 하느님께 순종 12) 하프(lyre, harp) 13) 음악으로 사울의 머리를 맑게 해줌 14) 무기당번 15) 시편들

18

솔로몬의 지혜

머리말

다윗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사항은 사무엘의 기름부음이 있기 전, 그는 베들레헬에서 목자이고 음악가이며 용사였다는 것이다. 또한 다윗에 의해 시편서의 많은 부분들이 쓰였음도 기억하자.

성서 본문: 열왕기상 3장

3장: 1. 솔로몬은 이집트의 임금 파라오와 결혼동맹을 맺었다. 그는 파라오의 딸을 맞이하여, 자기의 궁과 야훼의 전과 예루살렘의 성곽을 다 짓기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두었다. 2. 국민은 아직 야훼의 이름으로 부를 전이 지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3. 솔로몬은 야훼를 사랑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살았다. 다만 한 가지, 그는 산당에서 제사하고 향을 피웠다. 4. 기브온에는 큰 산당이 하나 있었는데 솔로몬은 늘 그리로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 번제물을 천 마리나 바친 적이 있다. 5. 야훼께서 그 날 밤 기브온에 와 있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면 좋겠느냐?”고 물으셨다. 6.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는 저의 아버지인 당신의 종 다윗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셨고 또 오늘 그에게 주신 이 아들로 하여금 그의 왕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7. 하느님 야훼여, 당신께서는 소인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만 저는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떻게 처신하여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8. 그런데 소인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 살고 있는 몸입니다. 9. 그러하오니 소인에게 명석한 머리를 주시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고 흑백을 잘 가려 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감히 그 누가 당신의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10. 이러한 솔로몬의 청이 야훼의 마음에 들었다. 11.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네가 장수나 부귀나 원수 갚는 것을 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옳은 것을 가려내는 머리를 달라고 하니 12. 자, 내가 네 말대로 해 주리라. 이제 너는 슬기롭고 명석하게 되었다. 너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13. 뿐만 아니라 네가 청하지 않은 것, 부귀와 명예도 주리라. 네 평생에 너와 비교될 만한 왕을 보지 못할 것이다. 14.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이 내 길을 따라 살았듯이 내 길을 따라 살아 내 법도와 내 계명을 지킨다면 네 수명도 길게 해 주리라.” 15.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야훼의 계약 궤 앞에 나아가 서서 번제와 친교제를 드리고 또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16. 그런데 창녀 둘이 왕에게 나와 섰다. 17. 그 가운데 한 여자가 말을 꺼냈다. “임금님, 이 여자와 저는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 이 여자도 집에 있었습니다. 18. 그런데 제가 해산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집에는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19. 그런데 그 날 밤, 이 여자는 자기의 아들을 깔아 뭉개어 죽였습니다. 20. 그리고 나서 이 여자는 한밤중에 일어나 이 계집종이 잠자는 사이에 제 곁에 있던 제 아들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제 아들을 가져다 자기 품에 두고 죽은 자기 아들을 제 품에 놓고 간 것입니다. 21. 제가 아침에 일어나 젖을 먹이려다 보니 아이는 죽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서야 그 아이가 제 몸에서 낳은 아이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22. 그러자 다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 산 아이는 내 아이이고 죽은 아이가 네 아이야”하고 우겼다. 첫 번째 여자도 “천만에! 죽은 아이가 네 아이이고 산 아이는 내 아이야”하고 우겼다. 그렇게 그들은 왕 앞에서 말싸움을 벌였다. 23. 그 때 왕이 입을 열었다. “한 사람은 ‘산 이 아이가 내 아이이고 네 아들은 죽었다’ 하고 또 한 사람은 ‘아니다. 네 아들은 죽었고 내 아들이 산 아이다’라

고 하는구나.” 24. 그러면서 왕은 칼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왕 앞으로 칼을 내오자 25. 왕은 명령을 내렸다. “그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쪽은 이 여자에게 또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26. 그러자 산 아이의 어머니는 제 자식을 생각하여 가슴이 베어지는 듯하여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이를 죽이지만 마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네 아이도 아니니 나누어 갖자”고 하였다. 27. 그러자 왕의 분부가 떨어졌다. “산 아이를 죽이지 말고 처음 여자에게 내주어라. 그가 참 어머니다.” 28. 온 이스라엘이 이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왕에게 하느님의 슬기가 있어 정의를 베푼다는 것을 알고는 모두들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해설

본문을 공부하면서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 * 솔로몬은 주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 어디로 갔는가?
- * 솔로몬은 꿈속에서 무엇을 요구했는가?
- * 주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다윗의 통치기간은 평화롭지는 못했지만, 그는 적들을 다 무찔렀고 영토도 확장했다. 그는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그곳에 수도를 세웠다. 또한 예루살렘 성 내의 두 큰 언덕 중 하나인 시온산에 새로운 성막을 짓고 케를 안치하기도 했다.

주님은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의 승계자가 될 것임을 다윗에게 알리도록 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가 임박하자 솔로몬을 다음 대의 왕으로 기름 부어지도록 했고, 백성들은 이를 기꺼이 받아 들었다.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스러움”을 뜻한다. 솔로몬의 통치기간은 매우 평화스러웠고, 다윗의 통치기간과 같이 40년 동안 지속되었다. 처음 성막은 시나이 산에서 지어졌고, 다음 성막은 실로에 있었다. 본문의 성막은 케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들이 기브온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솔로몬의 요청과 그 성취는 그가 위대해진 원인이다. 본문의 끝부분에 있는 두 어머니의 이야기는 “지혜로운 마음 (understanding heart)”에서 오는 일련의 지혜에

대한 좋은 예다. 우리가 의를 행함을 사랑하지 않고 타인의 선한 바램을 동정하며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슬기로워질 수 없다.

주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다. 다윗 역시 성전을 짓기 원했지만, 주님은 “다윗은 용사이므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성전의 건축이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을 사랑하게 되어 그분이 우리의 인격을 건축하게 됨을 의미한다. 다윗의 전투는 성서의 다른 전투와 같이 우리가 겪는 시험의 시기에 해당된다. 우리는 시험에서 승리한 후에만 주님께 순종함을 진실로 사랑하게 된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복음서에서 나오는 성전은 아니지만, 모리아산 즉 예루살렘의 두 번째 언덕인 똑같은 위치에 지어졌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하기 위해 갔던 곳이다. 시온산은 다윗의 성막이 지어진 곳이며, 아주 견고한 성이다.

주님은 솔로몬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셨다. 열왕기상 일부의 내용은 솔로몬의 부유함과 아름다운 소유물 그리고 그의 영화에 대해 알려준다. 여러 왕들과 여왕들이 솔로몬에게 질문하거나 그를 만나기 위해 멀리서부터 찾아왔다.

질문 정리

- 1) 다윗은 사울과 무엇이 다른가?
- 2) 다윗이 가진 특별한 재능은 무엇인가?
- 3) 성경의 어느 책이 다윗을 통해 주어졌는가?
- 4) 다윗의 통치 때에 성취된 것은 무엇인가?
- 5) 다윗은 궤를 어디에 놓았는가?
- 6)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은 누구인가?
- 7)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인가?
- 8) 솔로몬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9) 솔로몬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어디로 갔는가?
- 10) 기브온에 무엇이 있었는가?

- 11) 기브온에서 껴던 솔로몬의 꿈속에서 말한 이는 누구인가?
- 12) 주님은 솔로몬에게 어떻게 물었는가?
- 13) 솔로몬은 주님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 14)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무엇을 지었는가?
- 15) 솔로몬의 통치는 몇 년간 지속되었는가?

질문의 답

- 1)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들에 순종했다 2) 음악, 시인 3) 시편 4) 평화 5) 예루살렘 6) 솔로몬 7) 다윗 8) 평화스러움 9) 기브온 10) 성막(tabernacle)
- 11) 주님 12)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13) 이해력이 있는 심정 (Understanding heart) 14) 성전(temple) 15) 40년

19

엘리아와 아합

머리말

본과의 역사적 시대는 솔로몬 왕국의 분열 이후이다. 따라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자료는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열왕기상 12장을 통해 왕국의 분열에 관한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왕국이 분단된 이유도 이해하도록 하자.

성 서 본 문: 열왕기상 17, 18장

17장: 1. 길르앗의 티스베에 살고 있던 티스베 사람 엘리아가 아합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비는 물론 이슬도 한 방울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요.” 2.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3. “이 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그릿 개울에서 숨어 지내며 4. 개울물을 마셔라. 음식은 까마귀들을 시켜 날라다 주도록 하리라.” 5. 엘리야는 야훼의 말씀을 따라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그릿 개울로 가서 살았다. 6. 까마귀들이 아침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다. 그는 계곡의 물을 마셨다. 7. 그렇게 얼마를 지내는데 개울의 물마저 말라 버렸다. 온 땅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8.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9. “여기를 떠나 시돈 지방의 사렙다로 가서 그 곳에서 살도록 하여라. 거기에 한 과부가 살고 있는데 내가 그 과부로 하여금 너에게 음식을 주도록 해 놓았다.” 10. 그래서 엘리야는 그 곳을 떠나 사렙다로 갔다. 마을에 들어서 보니 한 여인이 뿔감을 줌고 있었는데 과부였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넸다. “목이 마른데 물 한 그릇 떠 주실 수 없겠소?” 11. 여인이 물을 뜨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말했다. “기왕이면 떡도 한 조각만 가져다 주시오.” 12. 여인이 대답하였다. “군 떡은 없습니다. 있다면 찬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뉘주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몇 방울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뿔감을 조금 주워 다가 저희 모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나 모두 먹을 작정이었습니다.” 13.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오. 집에 들어가서 방금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먼저 한 조각 가져오고 그 후에 아들과 함께 들도록 하시오.

14.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릴 때까지 뉘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15. 이 말을 듣자 과부는 곧 집 안에 들어 가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엘리야와 과부 모자에게는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 16. 엘리야가 전한 야훼의 말씀 그대로 뉘주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도 동이 나지 않았다. 17. 이 일이 있던 후에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눕게 되었는데 병이 매우 심하여져서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18. 여인이 엘리야를 추궁하였다. “오, 하느님의 사람이여! 어른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오시어 내 죄를 일깨워 주시고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19. 그가 말하였다. “부인, 아이를 좀 봅시다.” 그는 과부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잠자리에 누웠다. 20. 그리고 그는 야훼를 소리쳐 불렀다. “오, 나의 하느님 야훼여, 당신께서는 기어이 제가 머무르고 있는 과부의 집에 슬픔을 내리시어 아이를 죽이시렵니까?” 21. 그는 아이 위에 세 번 엎드려 몸과 몸을 맞추고 나서 야훼께 기도하였다. “오, 야훼 나의 하느님, 제가 당신께 기도합니다. 이 아이의 몸에 다시 생명의 호흡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22. 야훼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에게 다시 생명의 호흡을 주시어 마침내 아이는 살아났다. 23.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아이 어머니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부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24. 그러자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과연 하느님의 사람이십니다. 어른께서 전하신 야훼의 말씀도 참이심을 이제 알았습니다.”

18장: 1. 삼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2. 그리하여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갔다. 3. 가면서 보니 사마리아에 기근이 매우 심하였다. 아합은 궁내대신인 오바디야를 불렀다. 오바디야는 야훼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4. 그는 왕후 이세벨이 야훼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예언자 백 명을 오십 명씩 동굴에 숨기고 먹을 것과 물을 날라다 주어 살려 낸 사람이었다. 5. 아합이 그 오바디야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나와 들어서 전국을 다녀 보자. 어쩌다가 풀이 있는 곳을 만날지도 모르니 모든 샘과 계곡을 살살이 뒤져 보자. 어떻게든 말과 노새를 살려야지 그냥 죽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 6. 이리하여 그들은 전 국토를 둘로 나누고 한쪽은 아합 자신이, 다른 쪽은 오바디야가 담당하여 두루 다니면서 물을 찾기 시작하였다. 7. 오바디야는 돌아다니다가 자기를 만나러 온 엘리야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엘리야를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 인사를 하였다. “아니, 엘리야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8.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소. 가서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에 와 있다고 전하십시오.” 9. 그러나 오바디야는 놀라며 말하였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나를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려는 것입니까? 10. 선생님의 하느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말씀드립니다. 왕은 선생님을 찾기 위하여 모든 나라, 모든 왕국을 걸고 선생님이 없다는 것을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11. 그런데 나더러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보고하라

는 말씀입니까? 12. 내가 선생님을 떠난 즉시 야훼의 영이 선생님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옮겨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보고를 듣고 왕이 왔을 때 선생님은 여기 계시지 않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는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야훼를 경외한 사람입니다. 13. 내가 한 일은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전에 이세벨이 야훼의 예언자들을 학살했을 때, 야훼의 예언자 백 명을 오십 명씩 동굴에 숨기고 먹을 것과 물을 날라다 주어 살려 내었습니다. 14.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나더러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있는 곳을 안다고 보고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는 나를 죽일 것입니다.” 15.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내가 기필코 오늘 왕을 만나리다.” 16. 그러자 오바디아는 아합을 찾아 소식을 전하였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다. 17.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말을 건넸다. “그대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장본인인가?” 18.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사람은 바로 왕 자신과 왕의 가문입니다. 왕께서는 야훼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19.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멜산으로 모이게 하여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이세벨 왕비에게서 녹을 받아 살고 있는 바알의 예언자 사백 오십 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사백 명도 함께 모아 주십시오.” 20.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예언자들에게 가르멜산으로 모이라고 하였다. 21.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만일 야훼가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22.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야훼의 예언자로서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요.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사백 오십 명이나 있습니다. 23. 이제 우리에게 황소 두 마리를 끌어다 주시오. 그들에게 한 마리를 잡아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채 그냥 두게 합시다. 나도 한 마리를 잡아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24. 당신들은 당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나는 나의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겠소. 어느 쪽이든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이 참 하느님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두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25.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수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십시오. 황소 한 마리를 택하여 제물로 드리고 당신들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을 붙이지는

마시오.” 26. 그들이 준비한 황소를 받아 잡아 놓고는 아침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오, 바알이여, 대답하소서.” 그러나 대답은커녕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 예언자들은 자기네가 만든 제단을 돌면서 절뚝거리는 춤을 추었다. 27. 한낮이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하였다. “바알은 신중인지 아니면 여행 중인지 혹은 잠이 드셨는지도 모르니 어서 깨워 보아라.” 28. 그들은 더 크게 소리쳤다. 자기네 의식을 따라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어 피까지 흘렸다. 29. 한낮이 지나 제사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신접한 모습으로 날뛰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답은커녕 아무 소리도, 아무 기척도 없었다. 30.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자기 앞으로 다가오라고 말하였다. 백성들이 모두 다가 오자 그는 허물어진 야훼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31. 엘리야는 일찍이 야훼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내려 주신 야곱의 열 두 아들들에게서 나온 지파의 수대로 돌을 열 두개 모았다. 32. 엘리야는 그 돌 열 두 개로 야훼의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는 곡식 두 가마 정도 들어 갈 만큼 큰 도랑을 팠다. 33. 그는 장작을 쌓은 다음 송아지를 잡아 그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나서 물을 네 동이 가득 채워다가 번제물과 장작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대로 하자 34. 그는 그렇게 한 번 더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대로 하자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세 번을 붓자 35.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흘렀고 옆 도랑에 가득 괴었다.

36. 제사 드리는 시간이 되어 예언자 엘리야가 앞으로 나와서 외쳤다. “오,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여, 이제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고 제가 당신의 종이며 제가 한 모든 일이 당신의 말씀을 좇아 한 것임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37. 응답해 주십시오. 야훼여,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야훼께서 하느님이심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분이 당신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38. 그러자 야훼의 불길이 내려 와 제물과 함께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태웠고 도랑에 괴어 있던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말려 버렸다.

39. 온 백성이 이 광경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부르짖었다. “야훼께서 하느님이십니다. 야훼께서 하느님이십니다.”

40.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소리쳤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모조리 사로잡으시오.” 엘리야는 백성들이 사로잡아 온 그 예언자들을 키손 개울로 끌고 가 거기에서 죽였다. 41.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이젠 돌아 가서서 음식을 드십시오. 내 귀에 비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42. 아합이 돌아가서 음식을 드는데 엘리야는 가르멜산 꼭대기에 올라 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양 무릎 사이에 묻었다. 43. 엘리야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서쪽 하늘을 바라보라고 일렀다. 시종이 올라가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와서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엘리야는 일곱 번이나 되풀이하여 가 보라고 명하였다.

44. 시종은 일곱 번째 보고 와서는 바다에서 손바닥 만한 구름이 한 장 떠올랐다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엘리야가 시종에게 명령하였다. “아합에게 가서, 비가 쏟아져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채비하여 내려가시라고 일러라.” 45. 그러는 동안 하늘이 구름으로 덮이어서 캄캄해지면서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아합이 병거를 몰아 이즈르엘을 향하여 가는데 46. 엘리야는 야훼의 힘에 사로잡혀 옷을 걷어붙이고 아합을 앞질러 이즈르엘 어귀까지 뛰어 갔다.

해설

본문을 통해 다음의 질문에 답해 보자.

- * 왕국을 통털어 세 번째 큰 왕은 누구였는가?
- * 그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그는 주님에게 무엇을 요청했는가?
- *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 * 그는 무엇을 지었는가?

솔로몬의 슬기로움도 그가 시험에 빠지게 됨을 막지 못했고, 그는 집권 말기에 왕국을 깨트리는 잘못을 행하였다. 그는 스스로가 아주 위대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했기에 다른 종교를 가진 많은 외국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그는 아내들이 그들의 신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신전을 지어 주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여호와를 예배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나라가

분열되어 국력이 약해졌다. 더불어, 그 스스로도 다른 신들을 숭배하게 되어 많은 재정과 인력이 허비되었고 이를 위한 세금가중으로 백성들의 불평은 늘어만 갔다.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좌에 앉게 되자, 백성들은 그들의 부담을 가볍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나이 많은 대신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수락해야 한다고 왕에게 건의했다. 반면, 젊은 대신들은 그들에게 더 많은 짐을 주어 왕의 권위를 과시하면 그들은 어떠한 불평도 못할 것이라고 왕에게 건의했다. 그리고 왕은 젊은 대신들의 제의를 수락하였다. 그 결과 북부 백성들이 반기를 들어서 결국 왕국은 둘로 분열되었다. 유다라 불리는 남쪽 부분만이 솔로몬의 계보에 순응했고, 예루살렘을 계속 수도로 지키면서 성전에서의 예배를 지속했다. 그러나 열 지파에 해당하는 북쪽지역은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세겜을 수도로 정했으며, 솔로몬의 휘하에 있었던 장군인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감을 막기 위해 두 개의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웠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을 때 하느님께서서는 예언자를 보내 그의 왕권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 예언 하셨고 또 그대로 되었다. 그러나 여로보암 후의 이스라엘 왕들 역시 금송아지에 대한 숭배를 계속하였으며 다른 우상들도 가져왔다. 이스라엘 왕들 중의 많은 이들이 폭동으로 살해되고 왕의 계보는 자주 바뀌었다.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왕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자였다.

아합과 이세벨은 가뭄에 대한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렸다. 그러나 주님은 엘리야를 보살피셨다. 누가복음 4장 25-26절을 보면, 가뭄이 상당히 길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서 지도에서 사렙다 지역을 찾아보면, 솔로몬이 죽은 후 나라가 어떻게 분열되었는지 알 수 있다.

주님은 극심한 고통이나 고난은 사람들로 하여금, 심지어는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던 아합 왕과 같은 사람들까지도 주님께 귀를 기울이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엘리야가 숨었다가 돌아와 오바디아를 만나는 말씀의 구절을 읽어보자. (본문 18:1-16) 아합과 같은 악한 왕도 오바디아라는 좋은 궁내 대신을 거느리고 있었다. 우리의 “좋은 궁내 대신”이란 우리가 이기적 심정상태에 있을 때 이미 배워둔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 특히 말씀으로부터 익힌 것들에 관한 기억을 의미한다. 엘리야는 선한 오바디아를 통해서 아합의 귀를 열리게 할 수 있었다.

성서 지도에서 가르멜 산을 찾아 보자. 이 산은 긴 산등성으로, 한쪽 끝은 바다를 접하고 다른 끝에서는 이즈르엘 평야가 내려다보인다, 그리고 이곳에서 키손 개울물이 시작되는데, 이 개울은 오래 전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들을 물리친 곳이기도 하다.

본문 18장 21-24절을 통해 엘리야가 백성에게 제안한 대결을 알 수 있다. 바알에 대한 예배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앞자리에 자신을 먼저 세우는 것을 표현한다. 사람들은 때로 이기적 목적들을 위해 아주 열심히 일하며 고통까지도 감수한다. 이것이 바로 바알신의 예언자들의 모습이다. 그들은 하루 종일 바알신을 불러대며 절뚝거리는 춤을 추었고, 칼로 몸에 상처를 내기까지 했다. 바알의 예언자란 이기적인 것이 옳다고 믿게 만드는 생각과 논쟁들을 뜻한다.

본문 18장 31-35절을 보면, 엘리야가 제단을 준비한 것에 대해 알 수 있다. 그는 주님의 응답에 아무 것도 간섭할 수 없었음을 백성들에게 입증하기 원했다. 하늘로부터 온 불은 주님의 사랑 즉 이타적인 사랑을 표현한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스스로가 잘 나서 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은총으로 비롯됨을 인식하게 될 때, 이 사랑은 우리의 심정 안에 이르게 된다. 이타적 사랑만이 진실한 행복을 가져다준다. 그러므로 이기적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재미나 그들이 주장하는 삶의 행복은 한시적이고 가시적인 것으로 머지않아 싫증이 나게 되어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게 되는 바, 그 안에는 진실한 만족이 없다.

백성들이 주님을 다시 예배할 준비가 되자 비가 내렸다. 우리는 물이 진리를 의미함을 배웠다. 하늘로부터의 비란 우리에게 내려오는 주님의 진리를 표현한다. 우리가 이기적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을 예배하게 되면, 주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환히 비추게 된다.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본문의 내용을 기억해 보자.

- * 본문의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이 왕의 아내의 이름은 무엇인가?
- * 그들은 어떤 신을 섬겼는가?
- * 어떤 예언자가 아합에게 경고하도록 보내졌는가?
- * 엘리야는 처음에는 어디에 숨었는가?

- * 누가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주었는가?
- * 개울물이 마르자 주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는가?
- * 엘리야는 과부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
- * 그는 과부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
- * 그 여자를 위해 엘리야는 무슨 기적을 베풀었는가?
- *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과 대결 때에 엘리야는 무엇을 지었는가?
- * 그가 주님을 불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질문 정리

- 1) 솔로몬은 무엇을 지었는가?
- 2) 솔로몬은 말기에 어떤 실수를 범했는가?
- 3) 실수의 결과는 무엇인가?
- 4) 분열된 두 왕국의 이름은 무엇인가?
- 5) 어느 왕국에 예루살렘이 있었는가?
- 6) 북쪽 왕국의 왕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감을 막기 위해 어떻게 했는가?
- 7) 역사가들은 북쪽 왕국에서 어느 왕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가?
- 8) 아합의 아내 이름은 무엇인가?
- 9) 아합의 통치기간에는 어떤 재난이 발생했는가?
- 10) 어떤 예언자가 아합에게 경고하기 위해 보내졌는가?
- 11) 아합은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려 했는가?
- 12) 주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돌보셨는가?
- 13) 엘리야가 아합에게 되돌아 와서 어떤 대결을 제시했는가?
- 14) 대결은 어디서 있었는가?
- 15) 바알 예언자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의 하느님을 불렀는가?
- 16) 엘리야는 그의 제단을 어떻게 지었는가?
- 17) 엘리야가 주님을 부르자 어떻게 되었는가?

- 18)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 19) 바알 예언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20) 대결의 결과로 무엇이 왔는가?

질문의 답

- 1) 성전 2) 우상에게 예배했음 3) 왕국이 갈라짐 4) 이스라엘, 유다 5) 유다
- 6) 두 개의 금송아지를 세웠다 7) 아합 8) 이세벨 9) 가뭄 10) 엘리야 11) 죽이려고 했음
- 12) 까마귀가 그를 먹였음 13) “불로 응답하는 하느님...” 14) 가르멜산
- 15) 한 낮이 되기까지 불렀다 16) 열 두 개의 돌로 쌓고, 물 열 두 동이를 부었음
- 17) 불이 내려왔다 18) “야훼가 하느님이십니다” 19) 엘리야가 그들을 죽였다
- 20) 비가 내렸다

20

아사왕의 통치

머리말

본과에 앞서 미리 알아야 할 것은 솔로몬 왕국이 두 왕국으로 분열됨과 그 두 왕국인 이스라엘과 유다의 차이점이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주변의 이야기를 재정리하고, 유다 왕국이 다윗과 솔로몬의 계보에 충실하며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도 지속했음도 언급한다.

성서 본문: 열왕기상 15장

15장: 9.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이십 년에 아사가 유다 왕위에 올라 10. 예루살렘에

서 사십 일 년간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압살롬의 딸인 마아가였다. 11. 그런데 아시는 조상 다윗을 본받아 야훼께서 보시기에 곧바른 일을 하였다. 12. 왕은 전국에서 남창들을 소멸하고 그의 선왕들이 만든 우상들을 없애 버렸다. 13. 왕은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여신에게 바치는 음탕한 것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시는 그것을 토막 내어 키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14. 산당은 그대로 보존되었지만 아시는 일생 동안 야훼께 한결같이 신실하였다. 15. 그는 자기의 부친과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바친 각종 금은집기들을 야훼의 전에 바쳤다. 16.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전쟁을 하였다. 17.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유다를 침략하였다. 또 라마성을 튼튼하게 보수하여 유다 왕 아사로 하여금 군대를 출동시키지 못하게 하였다. 18. 그러자 아사는 야훼의 전과 왕실창고에 남아 있던 은과 금을 모조리 거두어서 사신을 시켜 시리아 왕에게 예물로 보내며 청을 넣었다. 당시 시리아는 헤지온의 손자이고 타브림몬의 아들인 벤하닷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정하고 있었다. 19. “나의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 맺으신 동맹은 나와 당신 사이에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은과 금을 예물로 보냅니다. 부디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으신 동맹을 파기하시고 바아사로 하여금 우리 영토에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20. 벤하닷은 아사왕의 청을 받아들여 군사령관을 불러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게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이온, 단, 아벨벳마아가, 긴네렛, 그리고 납달리 전 지역을 짓부수었다. 21. 바아사왕은 이 소식을 듣자 라마성을 보수하다 말고 다르사 지방으로 철수하였다. 22. 이에 아사왕은 유다 전국에 총동원령을 선포하여 바아사가 라마성을 보수하는데 쓰던 돌과 목재를 옮겨 와서 미스바와 베냐민 지방의 게바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게 하였다. 23. 나머지 행적, 치적 및 그가 축성한 성읍들에 관하여는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왕은 나이가 많아지자 다리를 앓았다. 24. 아사는 열조와 함께 잠들어 조상 다윗의 성에 있는 그의 왕실 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해설

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악했다. 그들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한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더욱 나빠져 결국 아시리아에 정복당했으며, 모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유다 왕국의 역사는 이와 다르다. 유다의 왕들은 모두 다윗의 후손들이었는데, 이는 15장 4절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유다의 모든 왕이 선하지는 않았고, 백성들 또한 다른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는 유혹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유다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고, 그곳에 성전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그들에게 주님을 상기하도록 해주었다. 그들은 때로 성전관리를 게을리하고 보수조차 하지 않았으며, 악한 왕은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때마다 선왕이 등장하여 주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시키고 개혁을 시도했다. 따라서 유다왕국은 이스라엘 왕국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었다. 결국 유다 왕국도 정복당하게 되어 많은 백성들이 바빌로니아로 끌려갔지만, 그 중 일부는 그 땅에 남았고 후에 일부 사람들은 되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기도 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의 유대인들이 바로 이 백성의 후손이다.

제 14절에서는 “아사는 일생동안 야훼께 한결같이 신실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그가 언제나 의를 행하기 원했음을 뜻한다. 본문 후반부에서 그는 실수를 행하지만, 그의 의도는 선한 것이었다. 아브라함의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큰 성안의 백성들은 아주 사악하여 하늘로부터 쏟아진 “불과 유황불”로 멸망되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이후에 그들의 악과 유사한 이들을 소돔같은 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열왕기를 보면 다른 왕들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하게 언급된 경우가 많다. 이는 그 왕들이 우상들을 모두 깨뜨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세워두는 산당은 그대로 방치했음을 뜻한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우상을 다시 세우고자 하면 쉽게 새로운 우상을 섬길 수 있었다. 우상들은 다양한 종류의 형상이다. 그래서 일부 백성들은 여전히 이러한 우상들을 숭배했다. 우리는 어떤 형상도 예배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진정한 우리의 우상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것들이다. 사람들은 각자의 우상을 만든다. 어떤 이는 돈, 권력, 스포츠 혹은 육체적 쾌감 등을 우상으로 섬긴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재미에 빠지거나, 어떤 것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어 그것이 주는 즐거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길지라도, 만약 그것을 우리의 삶의 첫째 자리 즉 높은 곳(산당)에 두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된다. 성장기에 있는 젊은이들은 각자의 우상을 가지며 이와 같이 행동하기도 한다. 젊은이들이 우상을 지지하거나 그것을 섬기도록 하는 유혹들을 방치함은 그들 안의 산당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하나의 우상을 없애면 또 다른 우상이 쉽게 우리 마음속의 높은 장소를 차지하게 된다. 높은 장소들(high places)이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의미한다.

아사는 여로보암의 후손이 아니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겨우 2년동안만 통치했으며, 백성들은 이싸갈 지파의 바아사에 이끌리어 나답을 반역했다. 바아사는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

역대기하서의 14장부터 16장까지는 아사의 통치에 관해 설명한다. 역대기서는 내적 의미는 없지만, 우리는 그 책을 통해 보다 자세한 역사를 알고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아사왕이 주님 대신 시리아 왕을 신임하여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그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과 그의 통치 말기가 초기보다 행복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을 공부하면서 다음 질문들에 대해 보자.

- * 유다왕 중에서 첫 번째 선왕은 솔로몬의 증손자였는데, 그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첫 번째 선왕의 치적은 무엇인가?
- * 그 밖에도 아사왕의 다른 치적도 있었는데, 그는 해야 할 일들 중 무엇을 하지 못했는가?
- * 아사가 왕위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왕국의 왕은 누구였는가?
- * 바아사는 아사를 어떻게 괴롭혔는가?
- * 아사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는가?
- * 아사는 원조하는 대가로 시리아 왕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 * 아사는 얼마동안 통치했는가?
- * 그는 노령에 무슨 병을 앓았는가?

질문 정리

- 1) 오늘 공부에 등장한 유다의 왕은 누구입니까?

- 2) 그는 선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 3) 그가 행한 일 중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 4) 그가 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 5) 이스라엘 왕은 아사왕을 이겨보려고 무엇을 했습니까?
- 6) 누구에게 아사왕은 도움을 청했습니까?
- 7) 아사왕은 무슨 선물을 시리아 왕에게 보냈습니까?
- 8) 노령 때에 아사왕은 무슨 병을 앓았습니까?

질문의 답

- 1) 아사(Asa) 2) 선왕 3) 우상을 파괴한 일 4) 산당의 제거
- 5) 라마를 지었다 6) 시리아왕 벤하닷 7) 성전의 금과 은 8) 발병

21

시편에 관해서

머리말

본과의 내용은 시편 19편과도 연관 된다. 시편서의 역사와 성전 예배 때 시편의 사용에 관한 것들을 언급한다. 그리고 개인 생활에 있어서 시편의 활용 및 시편서의 영적 특성을 강조한다. 사무엘하 23장 1-2절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다윗의 증언과 주님의 말씀을 꼭 읽어 두자.

성 서 본 문: 시편 1편, 사무엘하 23장 1-2절

1편: 1.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2.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3.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 철 따라 열매 맺으리. 4.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블리는 겨와도 같아, 5. 야훼께서 심판하실 때에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 못하리라. 6.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피신다.

사무엘하 23장: 1. 이것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이다. 야곱의 하느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요, 이스라엘의 수호자가 귀여워하시는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 세우신 영웅의 말이다. 2. 야훼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시어 말씀하셨다. 당신의 말씀을 내 혀에 담아 주셨다.

해설

본장에서는 말씀의 부분이면서 그 자체로 볼 때는 역사적이지도 예언적이지도 않은 말씀에 대해서 공부한다. 내적 의미로는 구약의 역사적 책이 열왕기하에서 끝나며, 구약의 예언서는 이사야서에서 시작된다. 열왕기하와 이사야서 사이에는 열 개의 책이 놓여 있는데, 스웨덴봄에 따르면 그 중 한 책만이 내적 의미를 지닌다. 나머지 아홉 권은 룻기서와 같이 시대의 생활상을 표현하고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그것들은 새교회를 위한 말씀(Word for the New Church)에는 속하지 않는다.

시편서는 다윗서라고도 부른다. 이는 많은 시편이 다윗을 통해 주어졌기 때문이다. 히브리 원어로는 시편이라는 시가(詩歌)들이지만, 영어에서는 이러한 시가들이 운문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노래로 불릴 수 있으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노래로 부르거나 하면 영창 형태로 부를 수 있다. 시편은 유대인의 예배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 시편은 솔로몬의 성전에서 다양한 악기와 잘 훈련된 성가대에 의해 찬송으로 불렸다. 시편 150편에서는 연주할 악기의 종류가 언급되고 있다.

시편은 주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 가져야 할 혹은 갖게 되는 감정이나 생각 또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사랑했고, 그 안에서 도움을 발견한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기 원하지만, 우리의 감정 표현 중 많은 것들이 이기적이며 잘못된 것임도 알고 있다. 또한 표현된 우리의 감정들 중에는 우리가 의미하지도 않는 것도 허다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을 읽고 노래로 부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양식에 따라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편 제 1편은 우리에게 양식의 기본을 주고 있다. 우리는 “복 있어라(blessed)”는 “행복함(happy)”을 의미함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간혹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여긴 것들이 실제로는 반대현상을 초래하는 것을 본다. 주님만이 진정한 것을 알고 계시므로, 우리는 이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 경청해야 한다.

마지막 두 구절은 우리가 주님에 관해 배우려 하지 않거나 그분이 옳다고 한 일련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행복이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부해 온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다음의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자.

- * 다윗은 누구였는가?
- * 우리는 그가 시편을 작성하지 않았음을 어떻게 아는가?
- * 시편이란 무엇인가?
- * 시편서에는 몇 개의 시들이 있는가?
- * 주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첫 번째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 * 두 번째 것은 무엇인가?
- * 세 번째 것은 무엇인가?
- * 우리는 그 대신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 * 우리가 주님의 충고를 받는다면, 우리는 무엇 같다고 하셨는가?
- * 사악한 자는 무엇 같다고 말씀하셨는가?

질문 정리

- 1) 왕국이 분단되기 전의 두 번째 왕은 누구인가?
- 2) 다윗의 특별한 재능은 무엇인가?
- 3) 다윗은 그가 쓴 것들에 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 4) 다윗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쓰인 책은 무엇인가?
- 5) 시편이란 무엇인가?
- 6) 유대인들은 시편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 7) 주님은 시편에 대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8) 우리는 시편 1편을 기억하는가?
- 9) “복된 자”란 무엇을 뜻하는가?
- 10) 행복해지고자 하면, 금해야하는 세 가지는 무엇인가?
- 11)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12) 선한 사람은 무엇에 비유되는가?
- 13) 악한 자는 무엇에 비유되는가?
- 14) 주님은 시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가?
- 15)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는가?

질문의 답

- 1) 다윗 2) 음악과 시 3)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4) 시편 5) 노래
- 6) 찬송가(hymns) 7) 시편은 주님께 관해 쓰여 있다고... 8) “복되어라...” 9) “행복한 자” 10)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11) “주님이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12) 나무(tree) 13) 겨(chaff) 14) 우리의 영적 상태와 필요성을 표현할 수 있게 해 주심 15) 주님이 법을 주신 것에 기뻐하고, 그것을 날마다 되새겨야 한다.

22

이사야를 부르심

머리말

본과에서는 성경의 예언서를 공부하게 된다. 따라서 대 예언서들의 역사적 개요를 간략하게 언급한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 그는 우찌야 통치 13년 또는 서기 전 780년쯤에 태어났으며, 예언자로서 그의 활동기간은 약 60년간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는 아모스, 호세아, 요엘 그리고 미가(소 예언서 부분)와 동시대에 존재한다. 이사야서는 크게 3부분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1장부터 35장까지의 예언들이다. 두 번째는 36장에서 39장까지의 히즈키야 왕의 역사적 전말에 관한 것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로 분류된다.

예레미야는 힐기야의 아들이다. 그는 아나돗(Anathoth)이라는 베냐민 지파 영토에서 태어났으며 사제 중의 한사람이다. 그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4마일 정도 떨어진 북쪽에 위치한다. 대부분의 다른 예언서와 달리 이 책은 예레미야라는 개인에 관한 언급이 많다. 그는 젊은 시절에 고향에서 살았으며 예언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이로 인해 혹독한 시달림을 겪었다. 그가 처음 모습을 나타낸 때는 이사야 시대에서 약 130년 후였다. 그는 하느님이 내린 직분을 그의 고향땅에서 약 41년간 수행했고, 그 후는 이집트에서 예언했다.

에제키엘은 예루살렘이 붕괴되기 약 11년 전 즉 서기 전 599년에 여호야김과 그의 시종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다. 포로들은 유프라테스강 줄기의 하나인 「그발」강가에 서 식민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는 「델아브」에 집이 있었고 결혼도 했었다. 그는

타향 생활 15년째 되던 해(B.C 593)에 예언하기 시작했으며, 예루살렘 붕괴 후 16년 동안 예언직분을 수행했다. 그는 타향살이 동안 줄곧 백성들에게 존경 받았고, 많은 장로들 역시 그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는 타향생활 중에 자연사했다, 그의 무덤은 바그다드에서 좀 떨어진 「케펠(Kefel)」에 위치했고, 수많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그곳을 방문했다. 그는 다니엘과 엇비슷한 시대의 인물이었다.

다니엘은 유다 왕국 왕족의 일원으로 여호야김왕의 집권 3년째 되던 해 (604 B.C)에 느브갓네살 왕에 의해 바빌론으로 잡혀 갔다. 그는 세상적 부귀를 누린 유일한 히브리 예언자이기도 했다.

성서 본문: 이사야 6장

6장: 1. 우찌야왕이 죽던 해에 나는 야훼께서 드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의 옷자락은 성소를 덮고 있었다. 2. 날개가 여섯씩 달린 스랍들이 그를 모시고 있었는데, 날개 돌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돌로는 발을 가리우고 나머지 둘로 훤히 날아 다녔다. 3. 그들이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야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4. 그 외침으로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의 연기가 자욱하였다. 5. 내가 부르짖었다.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만군의 야훼, 나의 왕을 눈으로 뵈다니.....”

6.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뜨거운 돌을 불집게로 집어 가지고 날아 와서 7.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보아라, 이제 너의 입술에 이것이 닿았으니 너의 악은 가시고 너의 죄는 사라졌다.”

8. 그 때 주의 음성이 들려 왔다.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하고 내가 여쭙었더니 9. 주께서 이르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일러라.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말아라. 보기는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말아라.” 10.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며 눈을 뜨지 못하게 하여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 와서 성해지면 어찌 하겠느냐?”

11. 나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하고 여쭙었다. 주께서 대답하셨다. “도시들은 헐려 주민이 없고 집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없고 농토는 짓밟혀 황무지가 될 때까지다. 12. 야훼께서 사람을 멀리 쫓아 내시고 나면 이 곳엔 버려진 땅이 많으리라. 13. 주민의 십분의 일이 그 땅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들마저 상수리나무, 참나무가 짝히듯이 쓰러지리라. 이렇듯 짝히도 그루터기는 남을 것인데 그 그루터기가 곧 거룩한 씨다.”

해설

본문을 공부하면서 다음 질문에 답해 보자.

- * 이사야는 어느 왕의 통치시대에 살았는가?
- * 이사야는 환상 중에 누구를 보았는가?
- * 그는 주님의 보좌 위에 있는 무엇을 보았는가?
- * 왜 이사야는 벌벌 떨었는가?
- * 그의 입술은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는가?

유대인들은 오래 전부터 그랬듯이 성서의 구약만을 사용한다. 구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된다: 율법서와 예언서 그리고 신성시여겨지는 책들이다. 율법서란 모세의 책이라고도 하며 구약의 첫 다섯 권을 뜻한다. 예언서는 전기 예언서(Former Prophets)와 후기 예언서(Latter Prophets)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기 예언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역사서로 간주하는 책들로서 여호수아, 판관기,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들이다. 이 책들은 후기 예언서와 마찬가지로 예언자들을 통하여 쓰였다. 후기 예언서들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언서라고 여기는 책들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해당된다.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애가와 다니엘서는 예언서로 분류하지 않고 거룩한 책(Sacred Writings)또는 케투빔(Kethubim)이라 불리는 항목에 열 한 권의 다른 책들과 함께 분류하였다. 따라서 이 책들은 율법이나 예언서와 같은 영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새교회에서는 히브리 정경(canon)을 인정하며 더불어 시편서,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다니엘서를 추가한다.

대 예언서와 소 예언서는 예언자의 이름에 따라 불려진다. 대 예언서라는 단어에서

대(Major)는 부피가 크을 의미하며, 소 예언서는 그에 비해 부피가 적어서 소(Minor)라고 말한다. 따라서 모든 예언서는 동등하게 중요하다. 대 예언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그리고 다니엘서가 해당된다. 예레미야는 유다왕국이 포로가 되기 전 마지막 다섯 왕 시대에 예언했다. 그는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후에는 이집트에서 예언했고, 그곳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썼다.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유다 백성의 포로들 틈에 있었다, 에제키엘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예언했으며, 그곳 「그밭」 강가 근처에서 살았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예언했다. 출애굽기 30장 20절과 33장 20절을 읽어 보자. 이사야는 자신과 모든 백성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환상까지 보아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단의 불이란 주님으로부터 오는 순수한 이타적 사랑을 의미한다. 이사야의 입술은 하느님의 사랑이 접촉되면서 주님의 말씀들을 말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입술로 된 것이다. 이사야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느낀 순간은 바로 주님을 섬길 준비가 완료된 순간이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로 인해 겪게 될 어려운 시련 때문에 머뭇거릴 때가 많다. 이사야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 죄에 대해 그들이 싫어할 많은 것들을 말하도록 불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처럼 예언자의 직분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진짜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주님께서 세상에 주신 메시지가 이웃들에게 정말 값어치 있는 것임을 확신한다면 이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사야의 용기,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질문 정리

- 1) 예언자의 직분은 무엇인가?
- 2) 이스라엘 왕국에 보내진 큰 예언자는 누구인가?
- 3) 어떤 판관이 예언자였는가?
- 4)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 5)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예언서는 어떤 책들인가?
- 6) 예언서는 어떻게 분류되는가?
- 7) 왜 대 또는 소 예언서라고 부르는가?
- 8) 대 예언서는 몇 권인가?
- 9) 대 예언서의 책 이름들은 무엇인가?
- 10) 본문의 책 이름은 무엇인가?
- 11) 이사야는 언제, 어디서 예언했는가?
- 12) 이사야는 환상 중에 누구를 보았는가?
- 13) 거룩은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 14) 이사야는 왜 놀랐는가?
- 15) 주님은 이사야의 입술이 순수하게 되도록 어떻게 하셨는가?
- 16) 주님은 무엇을 물으셨는가?
- 17) 이사야는 뭐라고 답변했는가?
- 18) 예언자들의 선교란 무엇인가?
- 19)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 2) 엘리야 3) 사무엘 4) 율법서, 예언서, 기타서적
 5) 여호수아, 판관기, 사무엘, 열왕기 6) 대 예언서; 소 예언서 7) 책의 부피에 따라서 8) 네 권 9)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다니엘 10) 이사야서 11) 우찌야, 요담, 아하즈 그리고 히즈키야왕 시대에 유다에서 예언했다. 12) 주님 13) 여섯 날개 14) “불순한(unclean)” 입술 때문이다 15) 뜨거운 돌을 입에다 대었다 16)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17)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18) 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요구함 19) 주님의 환상을 볼 것, 겸손할 것, 성별 되어야 할 것, 그리고 자발적으로 섬길 것

23

활활 타는 화덕

머리말

앞서 공부했던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멸망되는 과정과 포로가 된 상황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바빌론에서 포로 출신이었던 다니엘이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포로라는 단순한 사실의 의미도 언급한다.

성 서 본 문: 다니엘 3장

3장: 1. 느부갓네살왕은 금으로 신상 하나를 만들어 바빌론 지방 두라 벌에 세웠다. 그 높이는 육십 척이요, 나비는 육 척이나 되었다. 2. 느부갓네살왕은 지방장관들과 대신들, 총독들, 고문관들, 재무관들, 판사들, 법률가들, 지방 모든 관리들을 자기가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도록 불러 들였다. 3. 그래서 지방장관들과, 대신들, 총독들, 고문관들, 재무관들, 판사들, 법률가들, 지방 모든 관리들이 느부갓네살왕이 세운 신상 앞에 나와 제막식에 참석하였다. 4. 그 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인종과 말이 다른 못 백성들은 들으시오. 4. 나팔, 피리, 거문고, 사현금, 칠현금, 통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거든 곧 엎드려 느부갓네살왕께서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을 하시오. 6. 누구든지 엎드리어 절하지 않으면 당장 활활 타는 화덕에 집어넣을 것이요.” 7. 그리하여 나팔, 피리, 거문고, 사현금, 칠현금, 통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인종과 말이 다른 못 백성들은 엎드리어, 느부갓네살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했다. 8. 이 때 어떤 바빌론 사람들이 나서서 유다인들을 고발하였다. 9. 그들은 느부갓네살왕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10. 임금님께서 영을 내리시어 나팔, 피리, 거문고, 사현금, 칠현금, 통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엎드리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1. 엎드리어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활활 타는 화덕에 집어넣는다고 칙령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12. 그런데 임금님의 칙령을 무시하고 임금님께서 위하시는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임금님께서 바빌론 지방 관리로 임명하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13. 느부갓네살은 몹시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왕 앞에 끌려 오자, 14. 느부갓네살이 물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는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고 내가 위하는 신을 섬기지 않았다니, 그게 사실이냐? 15. 이제라도 나팔, 피리, 거문고, 사현금, 칠현금, 통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는 대로 곧 엎드리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할 마음이 없느냐? 절하지 않으면 활활 타는 화덕 속에 던질 터인데, 그래도 좋으냐?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 줄 신이 과연 있겠느냐?”

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왕에게 대답했다. “저희는 임금님께서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할 마음이 없습니다. 17.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 주실 힘이 있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들을 활활 타는 화덕에 집어 넣으셔도 저희를 거기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18.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임금님의 신을 섬기거나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19.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을 듣고는 금방 안색이 달라지며 노기에 차서 화덕의 불을 여느 때보다 일곱 배나 뜨겁게 지피도록 하고, 20. 군인들 가운데서도 힘센 장정들을 뽑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활활 타는 화덕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하였다. 21. 사람들은 그들을 도포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활활 타는 화덕 속에 집어넣었다. 22. 왕명이 그만큼 급했던 것이다. 화덕이 너무나 달아 있었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넣던 사람들이 불길에 타 죽고 말았다. 23.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뽕뽕 묶인 채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졌다. 24. 그런데 느부갓네살왕이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 그는 벌떡 일어나 측근자에게

물었다. “뽕뽕 묶어서 화덕에 집어넣은 것이 세 명 아니었더냐?” 그들이 대답했다. “임금님, 그렇습니다.” 25. “그런데 네 사람이 아무 탈없이 화덕 속에서 거닐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나? 저 네 께 사람의 모습은 신의 모습을 닮았구나”하면서 26. 느부갓네살은 활활 타는 화덕 어귀에 가서 이렇게 외쳤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섬기는 자들아 어서 나오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화덕에서 나온 다음 27. 지방장관들과 대신들, 총독들, 왕의 측근들이 모여 와 그들을 살펴보니, 몸이 불에 데기는커녕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았고 도포도 눌지 않았으며 불길에 닿은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28.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신이야 말로 찬양받으실 분이구나”하며 느부갓네살은 외쳤다. “저들의 하느님께서, 어명을 어기면서까지 목숨 걸고 당신만을 믿고 저희의 신 아닌 다른 신 앞에서는 절하지도, 섬기지도 않는 이 신하들을 천사를 보내시어 구해 내셨구나. 29. 이제 나는 영을 내린다. 인종이나 말이 다른 못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신에게 욕된 말을 하지 못한다. 욕하는 자는 토막 내어 죽이고 그의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리라. 이처럼 자기를 믿는 자를 구해 줄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으리라.” 30. 그리고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바빌론 지방에서 더 높은 벼슬을 내렸다. 31. “인종과 말이 다른 천하 만민은 이 느부갓네살왕의 말을 들어라. 너희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빈다. 32.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표적을 너희에게 들려주는 것이 더없이 기쁘다. 33. 그가 보이신 표적은 놀라웠다. 그 베푸신 기적은 굉장하였다. 그는 영원히 왕위에 앉으시어 만대에 이르도록 다스릴 왕이시다.

해설

유다왕국은 악한 왕과 선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왕국의 왕은 모두 악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왕국은 더욱 악해져서 주님께 순종치 않았고, 주님 또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게 되었다. 마침내 그들은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해 동쪽 땅으로 끌려갔고, 외국인들이 그들의 땅을 채웠다. 주님의 지상생활 시대 때 사마리아인들은 그 외국인들의 자손이다. 이스라엘 왕국을 형성했던 열 지파는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잃어버린 지파들”이라고도 불린다.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다.

아시리아왕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복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당시 유다 왕은 왕 중에서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히즈키야였으므로 주님은 유다왕국을 구원하셨다. 그러나 그 뒤를 잇는 유다의 왕은 주님을 떠나게 되어 바빌론의 군대에 의해 정복되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그 땅의 중요한 인물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주님은 70년이 지난 후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들에게 약속하셨다.

바빌론 왕이 유다에게 첫 승리를 거뒀을 때, 그는 유다의 중요한 인물들을 잡아갔다. (열왕기하 24:11~16) 끌려간 이들 중에는 재능을 가진 4명의 왕족이 있었다. (다니엘서 1:1-7)

다니엘의 갈대아인 식의 이름인 벨트사살은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다. 이는 다니엘이 주님께 의해 예언자들 중의 일인이 되도록 뽑혔고, 그의 이름이 예언서의 책들 중 하나가 되었고 말씀 안에서 항상 다니엘이라 불리기 때문이다. 그 외의 다른 세 명은 갈대아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네 명 모두가 바빌론 왕을 섬기도록 훈련되었지만 그들은 주님께 신실했다. 그들의 신실함의 첫 증거는 그들이 훈련받을 때 제공된 왕의 풍요로운 음식을 거절한 것이다. 그들은 풍요로운 궁중음식 대신에 풀 종류(pulse)와 물만을 요구했다. “풀 종류(pulse)”란 야채류(vegetables) 혹은 씨리얼(cereals)의 옛말이다. 그들은 교육기간 내내 그것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궁중음식을 먹은 다른 젊은이들보다 더 건강했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오래전 요셉에게 주어졌던 능력 즉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 느부갓네살왕의 이상한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느부갓네살은 바빌론 전역을 통치하는 자로 다니엘을 임명했다. 또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요구했던 대로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에게도 높은 지위를 주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뽑내기를 좋아하고 거만했으며, 그의 명령을 사람들이 행하게 만들고 그것을 즐겼다.

주님은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하셨다. 이처럼 우리가 의를 위해 올바르게 행동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 또한 우리의 바른 삶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주님을 인식하고 경외 하도록 한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느님을 경외하게 된 것은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바른 신앙생활 때문이

었다.

다음의 질문에 답해 보자.

- * 그들의 히브리 이름은 무엇인가?
- * 그들은 바빌론에서는 뭐라고 불렀는가?
- * 느부갓네살은 무엇을 만들었는가?
- * 그는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 * 명령에 불복종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다고 했는가?
- *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에 어떻게 처신했는가?
- * 느부갓네살은 격노하여 어떤 명령을 했는가?
- * 그 결과 그의 부하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 * 느부갓네살은 불가마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 * 느부갓네살은 어떤 새 명령을 내렸는가?
- * 느부갓네살은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질문 정리

- 1) 유다왕국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2) 포로들 중 어느 왕족 청년이 성경을 썼는가?
- 3)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누구인가?
- 4) 주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그들을 해롭게 했는가?
- 5) 바빌론 왕은 누구인가?
- 6) 느부갓네살은 무엇을 만들었는가?
- 7) 그는 무슨 명령을 내렸는가?
- 8)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 절했는가?
- 9) 느부갓네살은 세 청년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는가?
- 10) 그들은 불에 태워졌는가?
- 11) 불가마 안에서 세 청년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 12) 불가마에 세 청년을 던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13) 느부갓네살은 결국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질문의 답

- 1)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다 2) 다니엘 3)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4) 아님
5) 느부갓네살 6) 금 신상 7) 음악이 울려 퍼지면 금 신상에 절하라
8) 아님 9) 활활 타는 화덕에 던지라고 했다 10) 아님 11) 주님 12) 죽었다
13) 어느 누구도 주님에 대하여 욕된 말을 하지 못한다.

24

예언자 미가

머리말

본과는 소 예언서에 관한 공부의 준비라고 할 수 있다. “소 예언자들”과 “소”라 불리는 이유를 알아본다. 그리고 본문 6장 8절을 읽고 의미를 파악해 보자.

성 서 본 문: 미가서 6장

6장: 1. 잘 들어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일어나 산악을 향해 변명해 보아라. 할 말이 있거든 언덕들에게 말해 보아라.” 2. 산악은 야훼의 논고를 들어라. 땅의 주춧돌들은 귀를 기울여라.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을 걸어 논고를 펴신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죄상을 밝히신다. 3. “내 백성이라는 것들아, 대답해 보아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으며, 너희에게 무슨 못할 일을 했느냐? 4.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앞장세워 종살이하던 데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5. 내 백성이라는 것들아, 모압 왕 발락이 꾸민 계략과 브올의 아들 발람이 한 말, 시냇에서 길갈에

이르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래도 이 야훼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6. “높이 계시는 하느님 야훼께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번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7. 수양 몇 천 마리 바치면 야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거역하기만 하던 죄를 벗으려면, 만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죽을 죄를 벗으려면, 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8.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 9. 야훼께서 이 성읍에 외치시는 소리, 유다 지파는 들어라. 이 성읍에서 사는 무리들은 들어라. 12. 남을 등쳐 치부한 것들아, 거짓말만 내뱉는 도시 놈들아, 말끝마다 사기를 하는 것들아, 들어라. 10. “천벌 받을 것들, 부정한 되로 부정 축재한 것들을 나 어찌 용서하겠느냐? 11. 자루에는 엉터리 추를 넣어 가지고 다니며 맞지도 않는 저울을 쓰는데 어떻게 죄 없다고 하겠느냐? 13.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치리라. 그런 죄를 보고 어찌 멸망시키지 않겠느냐? 15. 너희는 심어도 거두지 못하고 올리브기름을 짜도 몸에 발라 보지 못하며 포도를 짜 술을 빚어도 마시지 못하리라. 14.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먹은 것마저도 살이 되지 않으리라. 살아 보려고 버둥거리려도 빠져 나갈 길 없고, 빠져 나가더라도 칼에 맞아 죽으리라. 너희는 오므리의 정책을 따르고 16. 그 아들 아합 왕조의 시정을 그대로 본 따며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멸망시키리니, 사람들은 그 끔찍스런 꼴을 보고 빈정거리며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해설

* 어느 죄가 오늘 본문에서 지적되었습니까?

* 이러한 죄에 대한 벌이 무엇이라고 미가는 말합니까?

미가서는 우리에게 선한 생활을 위해 요구되는 명백하고 단순한 사항들을 요약해서 가르치고 있다. 미가는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즈 그리고 히즈키야의 통치시대에 살았고, 이는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와 거의 같은 시대에 속한다. 미가는 당대 백성들의

죄들 중 일부를 지적하고 있다.

본문의 6절부터 8절까지 읽어 보자. 오늘날의 사람들은 양식, 기름, 번제 할 동물을 교회로 가져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자식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가 시대의 백성들이 오늘날의 우리는 아주 다른 것은 아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대부분의 시간과 물질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쓰기를 좋아한다. 또한 우리는 예배참석을 잘 지키고 헌금하며 자선을 위한 기부도 종종 함으로써 마치 스스로가 아주 선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기도 한다. 주님은 미가를 통해서 진정한 선한 생활(good life)은 가끔 남의 눈에 주목되는 특별한 선한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일상 속에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선함에 관계된 우리의 삶에는 세 가지 면이 있다. 행동 면에서 우리는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 즉, 우리는 모든 일에 정직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 면에서 우리는 자비를 사랑해야 한다. 즉, 기꺼이 은덕에 보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친절을 베풀며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험한 일을 당했다고 복수심을 품는 것이나, 마땅히 베풀어야 할 때 아까워서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 언제나 남을 도울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느님과 걷는 것 즉 조심스럽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이는 선한 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 즉 우리가 흠이 많고 잘못을 행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주님께 대해 지속적으로 배워 나가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주님이 가르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행동하고자 한 것을 고집하는 대신 주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함을 심정으로 깨달아야 한다.

미가 시대로부터 칠백년 이상 지나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은 미가가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발견했던 과오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발견하셨다. 그리하여 주님은 선한 생활을 위해 그들에게 똑같은 규율을 주셨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미가서 5장 2절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6절까지를 읽어 보자.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구절들을 읽다보면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성서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며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실제적으로 한권의 책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적인 의미에서 구약은 주님께 대한 진정한 삶을 보여준다. 주님은 율법과

예언을 성취(fulfill)하기 위해 오셨는데, 이는 지속적인 성경공부를 통해 이해할 것이다.

질문 정리

- 1) 본문의 예언서의 이름은 무엇인가?
- 2) 미가는 분단된 두 왕국 중 어느 곳에서 예언했는가?
- 3) 미가는 세 왕의 통치 시대에 예언했다. 세 왕은 누구인가?
- 4) 주님은 왜 예언자를 보내셨는가?
- 5) 미가 예언시대에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은 무엇인가?
- 6) 백성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 했는가?
- 7) 미가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 8) “to do justly”는 어떤 의미인가?
- 9) “to love mercy”는 어떤 의미인가?
- 10) “to walk humbly with thy God”은 어떤 의미인가?
- 11) 선한 생활에 대한 요구 사항은 우리 삶의 어떤 세 가지 단계에 있어야 하는가?
- 12) 왜 미가의 예언에서 이 세 가지 순서로 말씀이 주어졌는가?

질문의 답

- 1) 미가(Micah) 2) 유다 3) 요담, 아하즈, 히즈키야 4) 백성들의 잘못을 경고해 주기 위해서이다. 5) 속이고, 거짓말하고, 모독함 6) 희생 제물 7) 공의를 행하며(to do justly), 자비를 사랑하며(love mercy), 겸손히 주님과 동행함(walk humbly) 8)공정하고 정직함 9) 친절하고 도와주며 용서함 10)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에 참석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함 11) 행위(conduct), 생각(thought), 의지(will) 12) 우선, 행위를 바르게 하고, 그것을 통해 생각을 깨끗케 하는 단계로 발전한 후에야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의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5

성전의 재건

머리말

성전의 재건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성막의 가구와 재건에 관한 근본적 계획을 고찰한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 কে 또한 사라져 더 이상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 허용된 것은 모두 주님이 거룩한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태어나셔야만 했기 때문이다.

성서 본문: 하께서 1장

1장: 1. 다리우스왕 제 이년 유월 초하루였다. 야훼께서 예언자 하개를 시켜 스알디엘의 아들 즈루빠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사제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2. 만군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백성은 아직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3. 야훼께서 예언자 하개를 시켜 하신 말씀은 이러하다. 4. “너희는 어찌하여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아랑곳없이 벽을 널빤지로 꾸민 집에서 사느냐? 5.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어떻게 지내 왔는지 돌아보아라. 6. 씨는 많이 뿌렸어도 수확은 적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성이 차지 않고, 입어도 따듯하지 않으며,

아무리 벌어 들여도 밀 빠진 독에 물붓기다. 7.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나의 성전을 지어라. 나는 그 집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나 야훼의 말이다. 8.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어떻게 지내 왔는지 돌아보아라.

9. 많이 거두려니 했지만, 거두고 보니 얼마나 되더냐? 집에 들여 온 것마저도 내가 날려 버리리라. 만군의 야훼가 그 곡절을 일러 주리라. 너희가 나의 성전 무너진 것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제 집만 짓느라고 바빠 돌아다닌 탓이다.

10. 그러니, 하늘이 이슬을 내릴 성싶으냐? 땅이 소출을 낼 성싶으냐? 11. 나는 평지에도 산에도 가뭄이 들라고 선포하였다. 땅은 밀도, 포도주도, 올리브기름도, 밖의 어떤 소출도 내지 않아 사람도 짐승도 모두 배를 곯게 되었다. 너희가 손이 닳도록 한 일이 모두 허사가 되었다!” 12. 스알디엘의 아들 즈루빠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사제와 그밖에 살아남은 모든 백성은 저희의 하느님 야훼께서 보내신 예언자 하깨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야훼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13. 그래서, 하깨는 야훼의 특사로서 야훼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였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나 야훼의 말이다.” 14. 야훼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즈루빠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사제와 그 밖에 살아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래서, 그들은 저희의 하느님, 만군의 야훼의 성전에 들어 가 일을 시작하였다. 15. 때는 유월 이십사일 이었다.

해설

- * 어떤 히브리 예언자가 바빌론에서 강력한 능력을 발휘했습니까?
- * 그 예언자의 세 친구들은 누구입니까?
- * 이 친구들이 무슨 일로 극히 위험한 지경에 처하기도 했습니까?
- * 그들을 누가 구해 냈습니까?
- * 그 결과 바빌론의 왕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 주님은 귀환한 백성에게 어느 예언자를 보내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습니까?
- * 백성들의 성전 재건이 지연된 진짜 이유가 뭐라고 하깨는 말했습니까?
- * 그리하여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유다의 백성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갔지만, 노예 같은 비참한 대우는 받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주님께서 70년이 지나면 고향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으므로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을 읽어 보자.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강제 이송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페르샤가 바빌론의 통치자가 되었다. 이후 유다의 왕들은 느부갓네살왕의 시정을 따랐으며, 여호와가 그들이 경외해야 할 하느님이심도 인식하고 있었다. 주님은 고레스왕의 심정에 이러한 인식을 강하게 심으셔서 히브리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할 수 하도록 종용하셨다. 이에 대한 것은 에즈라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에즈라서는 내적 의미는 없지만, 우리에게 포로 신세에서 귀환하는 백성들의 사정을 잘 알려 준다.

에즈라서 16장까지의 성전재건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황폐된 채 버려진 성전의 터를 보았을 때, 그들은 먼저 성전 재건을 약속하는 제물을 바쳤다. 그 후 그들은 각각 그들의 땅에 집을 짓고 작물을 가꾸기 위해 흩어졌다. 그 뒤 십칠 개월 후,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수확을 기념하는 축제를 갖기 위해 모였다. (레위기 23:33-36 참조) 그때 그들은 번제를 위한 큰 제단을 쌓았고, 그들은 다음 해에 성전의 기초를 닦았다. 그러나 그들은 사마리아인 (과거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고 대신 강제 이주시킨 사람들)과 곤란한 일을 겪게 되면서 약 16년 동안 성전 짓기를 미루었다.

백성들은 주님의 질책이 있는 뒤 예언자의 말에 순종하여 4년 만에 성전재건을 마쳤다. 고레스왕은 과거 느부갓네살왕이 강취했던 성전 예배를 위한 금과 은 집기들을 되돌려 주었다. 그러나 궤(ark)는 결코 되돌아오지 않았다. 궤는 솔로몬의 지성소(Holy of Holies) 안에 보존되어 왔다. 그러나 성전이 파괴되었을 당시 궤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관한 기록은 전혀 찾을 수 없다. 백성들과 더불어 주님의 나타나심은 궤를 통해 있어 왔다. 따라서 바빌론에서 귀환 후의 유다 백성들은 궤의 부재로 인해 더 이상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이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장차 유다 백성 사이에서 거룩한 땅으로 강림할 것이라고 예언해왔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주님의 강림은 약 사백여 년이 지난 후 있게 되는데, 이 세월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 없다. 이 세대에 대한 유일한 기록들은 성경에 포함된 에즈라서와 느헤미야서이다. 이 책들은 유다 백성들의 귀환과 그 과정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이들 외에 이 시대에 관련이 있는 성경의 책들은 하깨, 즈가리야, 말라기서이다. 예언자들은 귀환 후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들 중 소수의 선한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했다.

그들은 성전이 완성된 뒤 과일절을 기념했고, 이후에 국가생활 형태로 정착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어떤 외국 세력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들은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에도 그들의 왕(헤로데)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로마 총독의 통치하에 있었다.

질문 정리

- 1) 어떤 통치자 때에 유다 백성들의 귀환이 허용 되었는가?
- 2) 그들의 포로생활은 얼마동안 지속되었는가?
- 3) 고레스왕은 귀환하려는 백성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 했는가?
- 4) 왕은 귀환 백성들에게 무엇까지 되돌려 주었는가?
- 5) 귀환자들은 성전재건의 지연 원인으로 어떤 것을 핑계 삼았는가?
- 6) 어떤 예언자가 핑계 많은 백성을 일깨우기 위해 보내졌는가?
- 7) 예언자는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멈춘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 8) 성전의 금과 은 집기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9) 유대인들이 거룩한 땅에 되돌아가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고레스 2) 70년 3) 성전을 재건하라고 4) 성전에서 강탈해왔던 금과 은 집기들 5) 아직은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6) 하깨(Haggi) 7) 자신들의 안락에 더 관심이 있었다. 8) 어떻게 올바르게 사느냐에 관한 말씀의 가르침 9)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유대주의의 재 건립과 성전재건을 위함이다.

26

주님이 세상에 오시다

머리말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연속적인 성서임을 주지해야 한다. 신약과 구약 사이는 약 400여 년이라는 시간적 공백이 있었다. 그 기간 동안 유대 민족은 거룩한 땅에 정착함과 더불어 옛날의 예배를 재건했다. 모든 신약 성서의 공부는 구약성서의 내용에 의존되어 연속된다. 따라서 우리는 신, 구약 관계의 중요성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이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뤄져 있듯이, 우리는 지상에서의 주님의 삶에 관해 공부할 때에도 주님의 이중적 본성 즉 아버지로부터 온 신성(the divine)과 신성을 옷 입힌 마리아로부터 온 유한한 인성(the finite humanity)을 기억해야 한다.

성서 본문: 마태복음 1장 18-25절, 2장 13-23절

1장: 18.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같이 살기 전에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19.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도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과혼하기로 마음먹었다. 20.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어라.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하고 일러 주었다. 22. 이 모든 일로써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23.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24.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일러 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였다. 25.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지내다가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그 아기를 예수라고 불렀다.

2장: 13. 박사들이 물러 간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알려 줄 때까지 거기에 있거라”하고 일러 주었다. 14. 요셉은 일어나 그 밤으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15.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다. 이리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6.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박사들에게 알아 본 때를 대증하여 베들레헬과 그 일대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여 버렸다. 17.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18. “라마에서 들려오는 소리, 울부짖고 애통하는 소리, 자식 잃고 우는 라헬, 위로마저 마다는구나!”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9. 헤로데가 죽은 뒤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20.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이미 죽었으니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하고 일러 주었다. 21. 요셉은 일어나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 왔다. 22. 그러나 아르켈라오가 자기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다시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래아 지방으로 가서 23. 나자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그를 나자렛 사람이라 부르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해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공부하자.

* 성서는 어떻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가?

- *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성경의 어떤 부분인가?
- * 말라기서 3장과 4장에는 무엇에 관한 예언이 있는가?
- * 신약 성서는 어떤 큰 사건과 더불어 시작되는가?
- * 동방박사들의 출신지는 어느 곳인가?
- * 그들은 주님의 탄생을 어떻게 알았는가?
- * 그들은 거룩한 땅으로 가는 행로를 어떻게 발견 했는가?
- * 그들은 주님에게 무슨 선물을 가져 왔는가?
- * 그들은 왜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않았는가?
- *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를 누구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 * 이 사항은 요셉에게 어떻게 밝혀졌는가?
- *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인용한 예언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발견된다.
- * 이 예언에서 주님은 어떻게 불렸는가?
- * 임마누엘의 의미는 무엇인가?
- * 주님은 요셉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셨는가?
- * 주님은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 *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헤로데는 무슨 행동을 저질렀는가?
- * 오래 전 누가 이집트에 내려갔었는지 기억하는가?
- * 그들은 왜 그곳으로 갔는가?
- *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어느 구역에 속했는가?
- * 나자렛은 어느 영토에 있었는가?
- * 이집트에서 나자렛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것을 요셉은 어떻게 알았는가?
- * 요셉은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 * 본문 1-2장에서 주님은 몇 번이나 요셉의 꿈에서 말씀하셨는가?

본문은 주님 자신에 관한 것과 이집트로 피신하신 것에 대해 알려준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었지만, 주님의 친아버지는 아니었다. 예수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이며, 그리스도는 “기름 부어진 자”란 뜻이다. 그리스도는 그리스어(Greek word)로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에 해당된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이름들을 알고, 그들의 의미 또한 이해해야 한다.

본문은 동방박사의 출발을 있게 한 사건과 주님이 꿈에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주로 한다. 당시의 유다는 로마황제의 통치 아래 있었고 헤로데가 왕이었다. 따라서 헤로데왕은 로마에 공물을 바치며, 그 지역 내에 있는 로마 총독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그는 당시 다른 유대 지도자와 마찬가지로 하느님 여호와에게 아주 신실한 체했고, 과거 솔로몬과 스룹바벨의 성전 위치에 아주 큰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이 성전은 다음 대 왕에 가서야 완성되었고, 그것은 성전 중에서 규모가 가장 컸다. 그러나 헤로데는 선한 왕이 아니었으며, 성전을 지은 것 또한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였다.

백성들은 구약성서에 있는 많은 예언들을 통해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타민족의 압제 하에서 벗어나 큰 국가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헤로데 또한 이러한 예언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를 발견하면 돌아 갈 때 꼭 자신에게도 알려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그의 진심이 아니었다. 그는 유대의 왕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바램으로 유대교의 믿음에 충실한 척했다.

이집트는 특수한 기후 조건으로 고대 세계의 곡식 창고였다. 많은 국가들은 양식이 부족할 때 그곳에서 양식을 사거나 얻어 갔다. 우리의 마음 역시 육체와 같은 양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더욱 발전하려고 하면,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말씀에서의 이집트는 지식이 저장될 수 있는 마음의 평면 즉 기억적 지식을 의미한다. 기억적 지식이란 교회 혹은 학교 등으로부터 배워서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된 각종 지식을 뜻한다. 주님은 아기였을 때 이집트로 내려갔으며, 이로 인해 헤로데로부터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 이는 주님 또한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처럼 배워야 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mind)을 채운 지식 중 특별한 것은 구약성서에 관한 글자적인 지식이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주님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구약성서를 인용하셨음을 주목해야 한다.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까지는 구약성서의 마무리 후부터 사오 백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이 있었다. 바빌론에서 귀환한 유대 백성 후손들은 상당히 많았고, 그들은 거룩한 땅 전역에 흩어져 살았다. 그 땅에는 외국인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이방인”이라고 불렸다. 이방인이란 유대교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 땅에는

로마 황제의 명을 받들기 위한 병사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있었다. 사마리아인들은 아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대신 그 땅에 거주하도록 이동시킨 사람들의 후손으로, 그리스인들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국가의 사람들도 섞여 살았다. 그들은 특히 북쪽 지방에 많이 거주했다. 당시 거룩한 땅은 남쪽의 유다, 중부의 사마리아 그리고 북쪽의 갈릴래아 세 지역으로 나뉘었다. 성서지도를 참조하면 이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님은 나자렛에서 거의 성장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지상 생활 마지막 3년 동안 갈릴래아 해변가 가버나움에서 거주하셨으며, 큰 축제 때와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 때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다. 주님의 생애와 연결되는 네 장소 즉 베들레헴, 나자렛, 가버나움 그리고 예루살렘을 기억하도록 하자.

질문 정리

- 1) 성경은 크게 어떻게 나뉘는가?
- 2) 글자상의 역사로 구약성서는 어떤 국가에 대한 것인가?
- 3) 이스라엘 민족은 몇 지파인가?
- 4) 그 땅의 큰 두 부분에 정착된 국가는 무엇인가?
- 5) 이스라엘 왕국에 속했던 백성들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 6) 어떤 나라가 유다 백성을 포로가 되게 했는가?
- 7) 유다 백성은 얼마나 오랫동안 바빌론에 붙잡혀 있었는가?
- 8) 포로가 된 백성 중 일부는 귀환했는데, 이것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 9) 귀환한 백성은 무엇을 다시 지었는가?
- 10) 신약 시대의 거룩한 땅은 어떻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었는가?
- 11) 예수는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 12) 예수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 13)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 14) 주님은 요셉의 꿈에서 어떻게 아기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5) 당시 유다의 왕은 누구인가?

- 16)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하느님은 요셉에게 무엇을 지시하셨는가?
- 17) 헤로데 왕은 왜 주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 18) 헤로데는 이를 어떻게 실행했는가?
- 19) 요셉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언제였는가?
- 20) 요셉의 가족은 어디에 정착했는가?

질문의 답

- 1)신약과 구약성서 2)히브리인 국가 3)열 두 지파 4)이스라엘, 유다 왕국 5)아시리아로 끌려갔다 6)바빌론 7)70년 8)유대주의의 재 건립 9)성전 10)갈릴래아, 사마리아, 유다 11)베들레헴 12)마리아 13)하느님 14)예수 15)헤로데 16)이집트로 피신하라고 하심 17)자기 왕권을 뺏길까봐 18)베들레헴에 있는 어린 사내 아기들을 죽였다 19)헤로데가 죽은 때이다 20)나자렛

27

동방 박사의 방문

머리말

이 공과는 절기를 위한 특별 공과이다. 이 공과에서는 기초 1반을 제외하고 지적해주어야 할 것은 말씀에서 동방의 박사의 이름이나 그 수가 몇 명인지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단지 말씀에서 세가지 선물이 말해진 것으로 미루어 아마 현인들(박사들)의 숫자도 셋일 것 같다는 대중의 추측이 이어져 오다가 전통으로 굳혀진 것 뿐이다. 이 세 명에게 주어진 이름, 가스팔(Gaspar), 멜키울(Melchior), 벨다살(Balthazar) 역시 전설적일 뿐인바, 말씀의 일부로 오인해서는 안된다. 성탄절의

많은 연극 혹은 이야기들은 이러한 전통에 기반 한다. 우리는 성경 교육과정 처음부터 (어린 아이들을 포함) 성경과 전통(tradition)을 구분하여 알아야 한다. 이는 성경과 전통의 혼동은 시간이 지나면 고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서 본문: 마태복음 2장

2장: 1. 예수께서 헤로데왕 때에 유다 베들레헬에서 나셨는데 그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2.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하고 말하였다. 3.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왕이 당황한 것은 물론, 예루살렘이 온통 술렁거렸다. 4. 왕은 백성의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 놓고 그리스도께서 나실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5.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유다 베들레헬입니다. 예언서의 기록을 보면, 6. ‘유다의 땅 베들레헬아, 너는 결코 유다의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영도자가 너에게서 나리라’고 하였습니다.” 7. 그 때에 헤로데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정확히 알아보고 8. 그들을 베들레헬으로 보내면서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나도 가서 경배할 터이니 찾거든 알려 주시오”하고 부탁하였다. 9. 왕의 부탁을 듣고 박사들은 길을 떠났다. 그 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아이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10. 이를 보고 그들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11. 그 집에 들어 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12.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느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13. 박사들이 물러 간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로데가 아이를 찾아 죽이려 하니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알려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하고 일러 주었다. 14. 요셉은 일어나 그 밤으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14.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6.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 알아 본

때를 대중하여 베들레헬과 그 일대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여 버렸다. 17. 그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18. “라마에서 들려오는 소리, 울부짖고 애통하는 소리, 자식 잃고 우는 라헬 위로마저 마다는구나!”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9. 헤로데가 죽은 뒤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 20.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이미 죽었으니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하고 일러 주었다. 21. 요셉은 일어나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 왔다. 22. 그러나 아르켈라오가 자기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다시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래아 지방으로 가서 23. 나자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그를 나자렛 사람이라 부르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해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공부하자.

- * 우리는 누구의 탄생을 기념하는가?
- * 그분은 언제 세상에 오셨는가?
- *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그분의 출생과 삶에 관해서 배웠는가?
- * 성경은 어떻게 둘로 구분되는가?
- * 주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 * 주님이 태어나실 때 누가 그분을 찾았는가?
- * 그들은 어디서 왔는가?
- * 그들은 주님이 태어나셨음을 어떻게 알았는가?
- * 박사들은 처음에 어디로 갔는가?
- * 당시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였는가?
- * 헤로데는 그들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았는가?
- * 박사들은 주님이 계셨던 집을 어떻게 발견했는가?
- * 그들은 어떤 선물을 주님께 드렸는가?
- * 박사들은 왜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 * 헤로데는 왜 주님이 계신 곳을 알기 원했는가?
- * 주님의 천사는 요셉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했는가?
- * 구약성서에서 이집트로 갔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 * 헤로데는 주님을 왜 죽이려고 했는가?
- * 헤로데는 어떤 참혹한 일을 저질렀는가?
- * 요셉이 이집트에서 귀환했을 때 어디로 주님을 모셨는가?

태초의 사람들은 악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처럼 자유로운 선택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인도자를 주님으로 삼거나 혹은 스스로를 인도자로 여기는 것은 그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이기적인 방도를 선택하게 되어 점차 악하게 되었다. 결국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은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게 되어 후에 선하게 살고자하는 이들까지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게 되었다. 이리하여 주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 세상으로 오셔야만 했다. 주님의 강림에 관한 첫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찾을 수 있다.

구약성서는 인류의 점차적인 영적 하향에 관한 이야기다. 신약성서는 주님에 의해 영적 회복이 이뤄지고, 인간이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다. 주님은 이 이야기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네 명에 의해 각기 쓰인 네 권의 복음서를 주셨다. 「복음(Gospel)」이란 “좋은 소식(good news)”라는 뜻이다. 주님의 삶은 선행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다.

베들레헴(Bethlehem)이란 “빵의 집, house of bread”라는 뜻이다. 성경에서 잘 알려진 두 사람 즉 베냐민과 다윗은 그곳에서 태어났다. 주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주님이 다윗의 뿌리에서 태어나도록 선택하셨다고 누가 복음서에 쓰여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주님이 인간의 영혼에 자양분이 되는 빵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육체가 좋은 음식을 섭취해야 함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주님으로부터 선함을 받아 섭취해야함을 뜻한다. 우리는 이를 떠올리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기도해야 한다.

민수기 24장 15-19절을 읽어 보자. 17절의 예언은 고대 말씀의 한 부분으로, 박사들이 살고 있는 동방의 먼 나라에서 말씀의 일부로서 전해 내려왔다. 그 지역 출신의

발람은 아주 이기적이어서 습득한 지식을 마술을 만드는데 사용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주님을 환영하며 경배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동방 지역의 선한 사람들은 늘 별을 지켜보고 있었다.

율법학자들은 구약성서를 읽고 쓸 수 있었다. 그들의 일상 업무는 구약성서를 읽고 베끼는 것이었다. 그들이 인용했던 예언은 말라기서 5장 2절에서 볼 수 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종을 상징하며, 이는 우리가 주님에게 드려야 할 선물들이다. 우리는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을 때, 주님께서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인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질문 정리

- 1) 성탄절은 누구의 생일인가?
- 2) 주님은 언제 세상에 오셨는가?
- 3) 그분은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 4) 주님 외에 누가 그곳에서 태어났는가?
- 5) 박사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 6) 왜 그들이 오게 되었는가?
- 7) 그들은 별의 의미를 어떻게 알았는가?
- 8) 그들은 먼저 어디로 갔는가?
- 9) 헤로데는 박사들이 찾는 곳을 어떻게 알았는가?
- 10) 박사들은 주님이 탄생하신 정확한 장소를 어떻게 발견했는가?
- 11) 그들은 어떤 예물을 주님께 바쳤는가?
- 12) 박사들은 왜 헤로데에게 되돌아가지 않았는가?
- 13) 요셉은 주님을 어디로 피신시켰는가?
- 14) 요셉은 어떻게 지시를 받았는가?
- 15) 헤로데는 어떤 참혹한 짓을 행했는가?
- 16) 주님을 거룩한 땅으로 다시 모시도록 요셉에게 언제 말해졌는가?
- 17) 그들은 어디를 거주지로 정했는가?

- 18) 첫 성탄절 날 주님은 어떤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19)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세 가지 선물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예수 2) 각 년도가 해당됨 3) 베들레헴 4) 베냐민, 다윗 5) 동쪽 6) 별을 보았기 때문 7) 상응에 관한 고대 지식으로 8) 예루살렘 9) 율법 학자들이 예언서에서 발견했다 10) 별의 인도로 11) 금, 유향, 몰약 12) 꿈에 지시를 받았기 때문 13) 이집트 14) 꿈으로 15) 베들레헴 주위의 모든 사내아이들을 죽였다 16) 헤로데가 죽은 후 17) 갈릴래아의 나자렛 18) 그분 자신 19) 사랑, 믿음, 순종

28

세례를 받으신 주님

머리말

세례자 요한에 관한 면모를 살피기 위해 마태복음 11장 7-15절과 14장 1-12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11절을 읽어 보자. 또한 누가복음 1장 5-20절과 39-45절 그리고 57-80절, 누가복음 3장 10-14절, 요한복음 1장 19-30절, 이사야 40장 3절 그리고 말라기 4장 5-6절을 읽고 본문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를 하자.

성서본문: 마태복음 3장

3장: 1.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2.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 왔다!”하고 선포하였다. 3.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4.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다. 5. 그 때에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유다 각 지방과 요르단 강 부근의 사람들이 다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 가서 6. 자기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다. 7. 그러나 많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 독사의 족속들이! 닥쳐 올 그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 주더냐? 8.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써 보여라. 9.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는 말은 아예 할 생각도 말아라. 사실 하느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10.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11.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은 나보다 훌륭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12. 그분은 손에 키를 드시고 타작마당의 곡식을 깨끗이 가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13.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래아를 떠나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 오셨다. 14.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하며 굳이 사양하였다. 15.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하고 대답하였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께서 하자시는 대로 하였다. 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홀연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에 내려오시는 것이 보였다. 17. 그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 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해설

다음 질문을 통해 본문을 공부해 보자.

- * 주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 * 주님은 마태복음 첫 장에서 어떤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셨는가?

- * 그 이름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 * 요셉은 헤로데로부터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 어디로 갔는가?
- * 주님의 전달자의 이름은 무엇인가?
- * 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 세례자 요한은 어디에서 살았는가?
- * 그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가?
- * 그는 무슨 음식을 먹고 살았는가?
- * 그는 그에게 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
- * 요셉과 마리아는 되돌아 온 뒤 어디에서 살았는가?
- * 그는 어느 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가?
- * 요한은 주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했는가?
- * 요한은 처음에 왜 주님에게 세례 베풀기를 원치 않았는가?
- * 주님이 세례 받으신 후 무슨 광경이 나타났는가?
- * 하늘로부터의 음성은 무엇을 말했는가?

이사야 40장 3절과 말라기 3장 1절을 읽어 보자. 본문은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성서 사전에서는 “요르단강 (the descender, 하강)은 팔레스틴의 강으로 헐몬 산의 높은 기슭에서 시작해 사해의 머리 부분까지 연결된 약 200마일 정도 길이의 강이다. 여리고 앞 쪽은 얇은 개울이며, 요르단 강의 개울같이 얇은 곳에는 두 개의 전통적 장소가 있다. 주님은 두 개울 목 중에서 세례 받으셨다고 추측된다. 성서에서의 언급은 없지만 위쪽 개울물로 추측된다. 후에 사도 요한과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 세례가 베풀어진 곳도 두 장소 중 하나일 것이다.”라고 설명된다.

성령은 주님 자신의 영에 대한 이름이다. 물은 진리를 그리고 불은 사랑을 상징한다. 물세례란 우리가 주님의 진리에 따라 우리 생활을 깨끗하게 만들고자 하는 표시이다. 이는 우리의 지난 잘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며 발견된 것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게 보인다. 이것이 바로 회개이다. 이런 과정 후에, 주님은 우리의 지성과 심정 속에 그분의 사랑하는 영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채워 주신다. 이리하여 우리는 의를 행하며 행복해 진다. 잘못된

행위 혹은 습관 등은 불행만을 자초하기 때문에 이 외의 것으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 이는 세례자 요한이 “그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주님 앞에 와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한 이유이기도 하다.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회개하거나 의를 행하지 않고 죄의 벌만을 피하기 원했다. 요한은 그들이 회개하고 의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될 수 없다고 확고히 말했다. 우리 역시 잘못을 행한 후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며 벌을 피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그것이 잘못으로 판명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고통 받게 된다. 이는 회개가 아니며 어떤 선도 있을 수 없다. 12절을 읽고 알곡과 쪽정이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주님은 그분이 세상에 오심이 삶의 올바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요한이 세례를 베풀도록 종용하셨다. 주님 위에 내려 온 비둘기는 그분의 완전한 순진성을 표현한다. 그분은 실제로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도 잘못을 행하도록 시험 받으셨고, 우리와 같이 진리로 그것과 맞서야만 하셨다.

예수의 혼(Soul)은 하느님 자신이었다. 그러나 그분이 세상에 계신 동안은 자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리었다. 이는 우리와 같이 신성하지 않은 마음과 몸으로 그분 자신을 옷입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 1) 주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 2) 주님은 헤로데로부터 구원되기 위해 어느 곳으로 피신하셨는가?
- 3) 주님의 공생애는 몇세에 시작 되었는가?
- 4) 누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보내졌는가?
- 5) 세례자 요한은 어떤 옷을 걸치고 있었는가?
- 6) 그의 음식은 무엇인가?
- 7) 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8) 그는 어디서 세례를 베풀었는가?
- 9) 요한이 말한 세 가지 세례란 무엇인가?

- 10) 누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왔는가?
- 11) 예수를 보고 요한은 무엇을 느꼈는가?
- 12) 주님은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 13) 주님이 세례 받으신 후 하늘로부터 내려 온 것은 무엇인가?
- 14) 하늘로부터의 음성은 어떻게 말했는가?

질문의 답

- 1) 베들레헴 2) 이집트 3) 30세 4) 세례자 요한
- 5) 낙타 털옷에 가죽 띠 6) 메뚜기와 들 풀 7) 회개하라! 8) 요르단 강
- 9) 물, 성령, 불세례 10) 예수 11) 자신의 무가치함
- 12) “이렇게 해야... 하느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이...”
- 13) 비둘기 14)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29

시험을 받으신 주님

머리말

본과의 내용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문제로 여겨질 것이다. 우리는 각자에게 오는 시험을 똑바로 보고 굳세게 싸워나감을 배워갈 때만이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의를 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바람은 총명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 허사가 된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주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이를 고치려거나 제지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때로 그것을 단행하기 위해 심한 꾸지람이나 매를 들지만 쉽게 교정하지 못하기도 한다. 우리는 본과를

통해 시험은 지옥에서 오는 것이며 각 사람의 지성과 심정을 장악하기 위한 악령과 천사들의 싸움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싸움의 결정적 요소는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성서: 마태복음 4장 1-11절

4장: 1. 그 뒤에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2. 사십 주야를 단식하시고 나서 몹시 시궁창하셨을 때에 3. 유혹하는 자가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4. 예수께서는 “성서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하고 대답하셨다. 5.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 내려 보시오. 성서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 너를 시중들게 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지 않았소?” 하고 말하였다. 7. 예수께서는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는 말씀도 성서에 있다”하고 대답하셨다. 8. 악마는 다시 아주 높은 산으로 예수를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 주며 9. “당신이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하고 말하였다. 10.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성서에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하시지 않았느냐?”하고 대답하셨다. 11. 마침내 악마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들었다.

해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공부하자.

- * 세례자 요한은 누구인가?
- * 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 주님은 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셨는가?
- * 어떤 징조가 하늘로부터 있었는가?

- * 하늘로부터의 음성은 뭐라고 말했는가?
- * 본문에서 세 가지 시험은 무엇인가?
- * 본문 4절과 7절 그리고 10절에서 주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답을 찾아보자. 이 대답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 “..... 쓰여 있나니”라는 답변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 * 신명기 8장 3절과 6장 16절 그리고 6장 13절을 읽어 보자.

주님은 우리와 같이 지상에 계셨을 때 잘못을 행하도록 유혹되었다. 본문은 주님이 시험을 받은 내용이다. 또한 성경에서 그분이 시험되어졌다고 언급된 유일한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목 역시 어린 시절부터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전 생애를 통해 접하고 극복된 각기 다른 종류의 시험들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비유임을 이해해야 한다.

악마는 “극악한” 어떤 한 개인을 지칭하지 않는다. 선 보다는 악을 사랑하기를 선택한 저 세상의 모든 자들 즉 지옥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악마라고 부른다. “악마”란 악의 모든 권세를 의미한다. 성경에서의 “사탄”은 거짓의 모든 권세를 뜻한다.

주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주야로 단식하셨다. 우리는 한번쯤 자신의 마음을 선하게 혹은 전보다 더 낮게 하겠다고 결심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심을 지키는 것이 과히 쉽지 않음도 느꼈을 것이다. 이 상태는 주님이 광야에서 단식 하셨음과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다. 이것은 결심을 하고 과거에 즐기던 나쁜 습관들을 금하고 살다보면 숨통이 막혀 터질 듯 갑갑하게 느끼는데, 이때에 누군가가 과거의 나쁜 습관들 중 하나를 해도 괜찮다고 유혹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이뤄진 장소가 왜 광야인지에 대한 이유를 이해할 것이다.

주님은 성경으로부터의 인용문으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이는 우리가 시험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생각하면 잘못된 것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님은 말씀 안에 계시고 그분의 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정 속으로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극복해야할 특수한 결점들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것들

과 반대되어 말하고 있거나 금지를 명하는 구절들을 찾아 익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될 때마다 그 구절들을 암송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암송해야 하며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을 때까지 암송할 필요가 있다. 그 구절을 기억하며 반복해서 말하는 노력 자체가 우리의 잘못된 마음상태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우리는 시험이 극복될 때 올바른 행동에 행복을 느끼게 된다. 본문의 11절을 읽어 보자. 우리는 시험을 이겼을 때 특별한 종류의 행복과 만족감을 갖게 된다. 또한 우리는 우리 곁에 천사가 가까이 있음과 우리가 느낀 행복이 바로 천사가 느끼는 행복임도 알게 된다.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 잘못된 것을 행하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지옥을 선택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가 올바른 것을 행하려고 결정하면, 우리는 천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누가 왔었는가?
- 2) 세례자 요한은 어디에서 살았는가?
- 3) 그는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 4) 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5) 주님이 세례 받으러 오시자, 요한은 뭐라고 말했는가?
- 6) 주님은 뭐라고 답변 하셨는가?
- 7) 주님이 세례 받으시자, 하늘로부터 무엇이 내려왔는가?
- 8) 하늘의 음성은 뭐라고 말했는가?
- 9) 세례 받으신 후 주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 10) 주님은 광야에서 얼마 동안 계셨는가?
- 11) 거기서 누가 주님을 시험했는가?
- 12) 첫 시험은 무엇인가?
- 13)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 14)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 15) 매 시험마다 주님은 어떻게 답하셨는가?

- 16)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도록 유혹될 때 재빨리 사용할 수 있는 두 마디의 말은 무엇인가?
 17) 시험이 끝나자 누가 와서 주님을 시중들었는가?

질문의 답

- 1) 세례자 요한 2) 유다 광야 3)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음
 4) 회개하라! 5) “제가 선생님께 세례 받아야 합니다.” 6)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7) 비둘기 8)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9) 광야 10) 40일 11) “악마”
 12) 돌이 빵이 되게 해 보라 13) 스스로 뛰어 내려 보라 14) 악마에게 절해보라
 15) “성서에 ...라고 쓰여 있다” 16) “사탄아 물러가라!” 17) 천사

30

주님의 첫 제자들

머리말

본과를 통해 제자와 사도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 두자.

성서: 마태복음 4장 12-25절

4장: 12.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다시 갈릴래아로 가셨다. 13. 그러나 나자렛에 머물지 않으시고 즈불룬과 납달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14.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 15. “즈불룬과 납달리, 호수로

가는 길, 요르단강 건너편, 이방인의 갈릴래아. 16. 어둠 속에 앓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겠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리라”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7.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전도를 시작하시며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 왔다”하고 말씀하셨다. 18. 예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걸어가시다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아 형제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의 어부로 만들겠다.”하시자 20.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갔다. 21. 예수께서는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 이번에는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셨는데 그들은 자기 아버지 제베대오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22.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22. 그들은 곧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예수를 따라 갔다. 23. 예수께서 온 갈릴래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24.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지자 사람들은 갖가지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예수께 데려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도 모두 고쳐 주셨다. 25. 그러자 갈릴래아와 데카폴리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온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해설

본문을 공부하면서 다음 질문에 답해 보자.

- * 주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 * 가버나움이란 어디에 위치하는가?
- * 시몬이란 이름 외에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은 무엇인가?
- * 주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부르셨을 때, 그분은 그들이 어떻게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가?
- * 제 24절에는 어떤 다른 병 증세가 기술되어 있는가?
- * 어떤 병이 의지 평면에 속하는가?
- * 어떤 병이 생각 평면에 속하는가?
- * 어떤 병이 행동 평면에 속하는가?

*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며 가르치시는가?

주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기 위해 나자렛에서 요르단 강으로 가셨을 때 그분의 나이는 약 30세였다. 그 후, 그분은 광야에서 40일간 계셨고 나자렛으로 되돌아가시지 않았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4장 16-32절을 통해 알 수 있다. 갈릴래아 호수가의 도시 가버나움은 그분의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의 중심지였다.

갈릴래아 호수는 복음서에서 꽤 비중 있는 지역이다. 물은 진리를 상징하고, 바다는 기억 안에 모여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 바다 안에 있는 고기들은 이 같은 지식에 대한 우리의 애착(affection)을 묘사한다. 주님께서 갈릴래아 호수가에 있는 도시를 공생애 동안의 주거지로 삼으신 것에 담긴 의미는 지식을 구하고 배워서 진리를 깨달아 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함이다. 그리고 우리는 꼼꼼이 생각한 결과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것 혹은 자기가 사랑해야겠다는 것을 기억 안에서 발견하고자 한다. 이것은 고기잡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첫 네 제자들이 어부였음을 주목해야 한다. 마태복음 16장 13-18절을 보면, 시몬이 또 다른 이름을 어떻게 얻었는지 알 수 있다. 베드로란 돌 또는 바위를 의미한다. (요한복음 1:42) 첫 네 제자들이 어부였다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길으로 보기에겐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지식과 인간적 판단에 의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주님이 가려내심을 뜻한다. 주님이 그들 중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신 첫 4명은 사도들이 되었다. 사도(apostle)란 “파견되는 자, one sent forth”라는 뜻이다. 주님은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회의 기초가 세워지도록 하셨다. 그러나 사도들은 처음에는 제자였다. 제자(disciple)란 배우는 자, 생도(learner 혹은 pupil)에 해당된다. 그들은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동행해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보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랐다. 제 23절은 주님이 공생애에 하셨던 세 가지에 대해 알려 준다.

병의 증세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삶의 세 가지 평면 즉 의지와 생각과 행동 면에서 곤란을 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성서지도를 통해 거룩한 땅을 살펴보면 가버나움의 위치를 알 수 있다. 본문 25절에는 지도에 있는 여러 장소가 언급된다. 데카폴리스(Decapolis)는 “열 개의 도시들”이란 뜻이다. 그 도시들은 요르단 강 동쪽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양쪽 구역이 접해지

곳에 위치한 로마의 성읍들에 관한 이름이다.

많은 사람들은 치료받기 위해 주님을 따랐다. 그러나 4명의 제자들은 아프지 않았다. 그들은 왜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선했으며 약속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어서 주님을 보자 그분이 메시아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주님을 따르고 그분에게 배우는 것 외에 바라는 것이 없었다.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자신의 길만 옳다고 고집하며 자신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한다. 다른 한 부류는 올바른 것을 찾아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한다. 우리 각자는 두 부류 중 어디에 속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주님은 먼 옛날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부르셔서 자신을 따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주님은 그들 네 제자를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어 가르치실 준비를 완료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들 네 명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첫 제자가 되고 나아가 그분의 사도가 되어져 갈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배우고 감화 받게 하는데 쓰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가르침을 살아내어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사도의 삶이 되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주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어떤 바다 근처에 주거지를 두셨는가?
- 2) 그분이 사신 곳의 이름은 무엇인가?
- 3) 주님이 부르신 첫 제자들은 누구인가?
- 4) 그들의 직업은 무엇인가?
- 5) 그들은 부름 받을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6) 주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7) 주님이 부르시자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 8) 주님의 공생애를 구성하는 세 가지 형태는 무엇인가?
- 9)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형태는 무엇인가?

10) 주님을 따른 수많은 무리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질문의 답

- 1) 갈릴래아 2) 가버나움 3)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4) 어부
5) 그물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다. 6) “나를 따라 오라” 7) 즉각 따라 나섰다.
8) 가르침, 전도하심, 병을 고치심 9) 마귀 들린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
10) 사방 각처에서 왔음

31

산 위에서의 설교

머리말

산 위에서의 설교 규모를 가늠해 봄으로써 세심하게 공부하는 기회를 가져보자.
그리고 최소한 마지막 비유는 기억하도록 하자.

성서: 마태복음 5, 6, 7장

5장: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왔다. 2. 예수께서는 비로소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치셨다. 3.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4.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5.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6.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7.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8.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뵈게 될 것이다. 9.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10.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1.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 없어 밖에 내버려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15. 등불을 켜서 뒷막으로 덮어 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 둔다. 그래야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16.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17.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18. 분명히 말해 두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일 점 일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19. 그러므로 가장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어기거나,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20.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1.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재판관을 받아야 한다’고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22.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관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 법정에서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더러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23.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24.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 가 화해하고 나서 돌아 와 예물을 드리라. 25. 누가 너를 고소하여 그와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서 일른 화해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형리에게 내 주어 감옥에 가둘 것이다. 26. 분명히 말해 둔다.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풀려 나오지 못할 것이다. 27.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28.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29. 오른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 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30. 또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 던져 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31. “또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면 그에게 이혼장을 써 주어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 32.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면, 이것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33. “또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께 맹세한 것은 다 지켜라’고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34.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느님의 옥좌이다. 35.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땅은 하느님의 발판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그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다. 36.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나 검게 할 수 없다. 37. 너희는 그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38.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양갓음하지 말아라.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또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겹옷까지도 내 주어라. 41. 누가 억지로 오 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 리를 같이 가주어라. 42.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의 칭을 물리치지 말아라.” 43.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44.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45.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46.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47. 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남보다 나올 것이 무엇이나?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48.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6장: 1. “너희는 일부러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다.” 2.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말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3.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그 자선을 숨겨 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5. “기도할 때에도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6.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 주실 것이다.” 7.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느님께서 들어 주시는 줄 안다. 그러나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벌써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9.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10.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11.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13.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4.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15. 그러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16.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얼굴을 하지 말아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그 기색을 하고 다닌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17. 단식할 때에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18. 그리하여 단식하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네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19. “재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먹거나 녹이 슬어 못쓰게 되며 도둑이 뚫고 들어 와 훔쳐 간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서는 좀먹거나 녹슬어 못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 와 훔쳐 가지도 못한다. 21.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22.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며 23.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만일 네 마음의 빛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24.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25.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26.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먹여 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27.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일 수 있겠느냐? 28.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29. 그러나 온갖 신성화 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 입지 못하였다. 30.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나?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31.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32.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33.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34.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7장: 1.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 받지 않을 것이다. 2.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3.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들어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네 눈의 티를 빼내어 주겠다’고 하겠느냐? 5. 이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 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 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7.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8.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려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9. 너희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10.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11.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12.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14.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 드는 사람이 적다.” 15.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털을 쓰고 너희에게 나타나지마는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 있다. 16. 너희는 행위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마련이다.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19.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20. 그러므로 너희는 그 행위를 보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21. “나더러 ‘주님, 주님’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22. 그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하고 말할 것이다. 23. 그러나 그 때에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다.” 24.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25. 비가 내려 큰물이 밀려오고 또 바람이 불어 들이쳐도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26. 그러나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27. 비가 내려 큰물이 밀려오고 또 바람이 불어 들이치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다. 29.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기 때문이었다.

해설

성경에는 산에서 있었던 굉장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계명이 시나이 산에서 주어졌던 것, 주님이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 가셨던 것, 주님의 변모하신 모습을 그분의 가까운 제자들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 그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 엘리야가 제안한 대결 그리고 그 대결이 가르멜 산에서 있었던 일 등이 그 예다. 산꼭대기란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높은 상태에 있는 것 즉 우리가 주님에게 가까이 있을 때를 뜻한다. 우리는 그때에 일상생활을 내려다보며, 자연적 삶과 영적 삶의 진정한 위치를 알게 된다. 주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분의 가르침이 필요함을 보시고 그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는 주님이 군중을 보았을 때, 그들의 육신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보셨기 때문이다.

산 위에서의 주님의 설교를 여느 책들과 비교하면 그리 긴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주 많은 내용과 본문이 주고자하는 교훈들이 담겨 있다. 우리는 본문 5장부터 7장까지의 각 장에는 특별히 잘 알려진 단원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5장의 여덟 가지의 복, 6장의 주님의 기도 그리고 7장의 황금률에 대한 가르침은 신앙인으로서 명심해야 할 것들이다.

본문은 복(blessing)으로 시작된다. “복 있음(blessed)”은 시편 1편에서 배운 바와 같이 “행복”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주님이 본문에서 “복 있는...”이라고 명명하신 서술들이 실제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행복(happy)이 쾌락(pleasure), 출세, 대중적 인기, 부유함 혹은 막강한 영향력 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들을 소유 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을 때가 허다하다. 이는 행복이 주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이다. 주님으로부터 온 행복은 우리의 심정 속에서 느껴지는 그분의 이타적인 영이다. 우리가 자신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이들이 자신을 위해 뭔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잘 안된 일들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 할 때는 행복할 수 없다. 자신을 잊고 타인을 돕기를 사랑하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준다. 이것이 복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이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특질들을 우리 속에 발달시키고 싶다면, 산상 설교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그 의미를 새겨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행함으로써 그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심정 안에 분노와 원망이 체류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줄 때, 용서와 친절함이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 타인들이 우리를 칭찬한다고 자신 마저도 자기를 칭찬하려 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세상적 성공 보다 선하게 처신해 가려는데 먼저 신경써야 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에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과오를 먼저 찾아보려 하지도 않고 남의 과오부터 들먹거리려는 안 될 것이다.

비유에서 집이란 우리의 인격을 말한다. 우리의 집을 세워야 할 반석이란 주님의 진리이다. 모래는 우리 자신의 견해 또는 삶의 길을 알기 위해 주님의 진리를 탐구치 않은 이들의 견해이다. 비나 홍수 그리고 바람이란 우리의 삶에 들이 닥치는 시련이나 시험을 말한다. 이러한 시련과 시험 모두는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모두 똑같이 오고 있다.

문답으로 정리

- *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비유가 있는가?
- * 그 비유는 무엇인가?
- * 폭풍이 불었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되었는가?
- *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떠했는가?
- * 군중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놀랐는가?
- * 왜 주님은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었는가?

질문 정리

- 1) 주님은 세례 받으신 후 어디로 가셨는가?
- 2)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 3) 매 시험 때마다 주님은 악마에게 어떤 형식으로 대답 하셨는가?

- 4)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 5) 산 위에서의 설교는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 6) 복 있음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 7) 주님은 우리가 늘 예상하는 것과 같은 복을 열거하셨는가?
- 8) 주님은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가르치셨는가?
- 9) 산 위에서의 설교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10) 6장에서의 유명한 단원은 무엇인가?
- 11) 7장에서는 유명한 단원은 무엇인가?
- 12) 황금률의 구절을 기억하는가?
- 13) 산 위에서의 설교는 어떤 비유로 마무리되는가?
- 14) 우리의 집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 15) 집을 세우기 위한 안전한 반석은 무엇을 뜻하는가?
- 16) 인간의 견해는 왜 모래와 같은가?
- 17) 주님은 왜 권위를 갖고 말씀하실 수 있었는가?

질문의 답

- 1) 광야 2) 시험 받으셨다 3) “성서에... 라고 씌였나니...” 4) 산 위에서의 설교
- 5) 복(blessings), Beatitude 6) 행복(happy) 7) 아님 8) 주님 9) 3장
- 10)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11) 황금률 (the Golden Rule)
- 12) 성서참조 (마태 7:12, 누가 6:31) 13)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14) 우리의 인격 15) 말씀에서 온 진리 16) 흔들리고, 떠내려가고... 통일된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17) 그분은 권위를 가졌기 때문이다

32

주님의 공생애

머리말

본문은 주님의 공생애를 간략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다.

성서: 마태복음 8장

8장: 1.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뒤따랐다. 2. 그 때에 나병환자 하나가 예수께 와서 절하며 “주님, 주님은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하고 간청하였다. 3.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렇게 해 주마. 깨끗하게 되어라”하고 말씀하시자 대뜸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4.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정해 준 대로 예물을 드려 네 몸이 깨끗해진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여라”하고 말씀하셨다. 5. 예수께서 가파르나움에 들어 가셨을 때에 한 백인대장이 예수께 와서 6. “주님, 제 하인이 중풍 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하고 사정하였다. 7.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 주마”하시자 8. 백인대장은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9. 저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하고 대답하였다. 10.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감탄하시며 따라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어떤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11. 잘 들어라. 많은 사람이 사방에서 모여 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함께 잔치에 참석하겠으나 12. 이 나라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13. 그리고 나서 백인대장에게 “가 보아라.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간에 그 하인의 병이 나았다. 14.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 가셨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마침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었다. 그것을 보시고 15. 예수께서 부인의 손을 잡으시자 그는 곧 열이 내려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께 시중들었다. 16. 날이 저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마귀 들린 사람을

많이 데려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 한 마디로 악령을 쫓아내시고 다른 병자들도 모두 고쳐 주셨다. 17. 이리하여 예언자 이시야가, “그분은 몸소 우리의 허약함을 맡아 주시고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셨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8. 예수께서는 둘러서 있는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다. 19. 그런데 한 율법학자가 와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 가겠습니다.”하고 말하였다. 20.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하고 말씀하셨다. 21. 제자 중 한 사람이 와서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하고 청하였다. 22.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 두고 너는 나를 따라라”하고 말씀하셨다. 23.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따라 올랐다. 24. 그 때 마침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뒤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25. 제자들이 곁에 가서 예수를 깨우며 “주님, 살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하고 부르짖었다. 26.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겁이 많느냐?”하시며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사방이 아주 고요해졌다. 27.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래져서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하는가?”하며 수군거렸다. 28.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마귀 들린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를 만났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29.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하느님의 아들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하고 소리 질렀다. 30. 마침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놓아끼르는 돼지 떼가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31. 마귀들은 예수께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들 속으로나 들여보내 주십시오.”하고 간청하였다. 32. 예수께서 “가라”하고 명령하시자 마귀들은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 떼는 온통 비탈을 내리달려 바다에 떨어져 물속에 빠져 죽었다. 33. 돼지 치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읍내로 달려가서 이 모든 일과 마귀 들렸던 사람들의 일을 알렸다. 34. 그러자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와서 예수를 보고는 저희 고향에서 떠나 가 달라고 간청하였다.

해설

주님의 공생애는 크게 가르치심과 전도하심 그리고 병을 치료하심으로 구성된다. 본문은 주님의 병 고치심에 대해서 몇 가지를 기술하고 있다.

주님은 한 가지 조건으로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이는 본문의 2절, 3절, 10절 그리고 31절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 치료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그들을 고치실 수 있음을 믿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을 메시아로서 하느님의 능력을 지닌 분으로 믿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적을 지켜 본 모든 이가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을 읽어 보자.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아픔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자연적인 것이다. 우리는 많은 질병이 청결치 못함, 해로운 음식의 섭취 혹은 잘못된 거주 습관으로 인해 야기됨을 알고 있다. 물론 사고로 인한 질병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는 질병들도 있다. 홍역이 만연한다고 모든 어린이가 홍역을 치르는 것은 아니다. 또 사고가 여기저기서 터진다 해도 누구에게나 그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느님의 법률에 순종하며 타인에게 조심해 보려고 노력하는 이들은 많은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순종과 세심한 분별력은 지성과 심정에 속하는 자질(quality)이다. 우리는 질병의 경우에도 영적 원인의 측면에서 전혀 감지 못할 때가 아주 흔하다. 그러나 결과에는 언제나 원인이 있으며, 주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주님은 세상에 계셨을 때 기적을 행하셔서 심정이 선한 이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주님은 그들의 건강한 육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두 가지 이유로 기적을 수행하셨다. 즉, 그분을 믿고자 하는 이들의 믿음을 강건케 하기 위함과 말씀의 기록을 위해서였다. 각 기적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청할 때 우리의 영혼에 수행해 주실 수 있는 어떤 선한 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실제적 비유들이다. 나병, 중풍, 열병 그리고 귀신 들림 같은 병들이 각각 영적 약함을 묘사함을 상기한다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하지 못할 때, 올바른 것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분개함으로 인해 화가 머리끝까지 오를 때 혹은 내 정신이 우왕좌왕하여 어떤 역경 속으로 빠지려 할 때 등등 그 예는 아주 많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영적 병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인지

때로 우리는 “아, 도저히 나는 해낼 능력이 없는 인물이야”, “나는 그저 그런 인간으로 태어났을 뿐이야.” 혹은 “내 팔자가 이러니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런 상황 속에서 태어나져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풍랑을 잠잠케 한 기적은 주님이 자연 세계를 초월하는 능력을 가졌음을 보여 주신 것이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신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로 보였다. 우리는 자연계의 법칙이 진실로 자연을 위한 하느님의 법칙이라는 것과 그 법칙이 언제나 하느님에게 속해 있음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기적에는 한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관한 비유를 기억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본문에서의 풍랑(storm)도 이와 같은 의미이다.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언제나 시험이라는 풍랑을 고요케 해주신다.

질문정리

- * 기적이란 무엇인가?
- * 본문에는 몇 개의 기적이 있는가?
- * 그 중 어떤 것이 병을 고치는 기적에 해당되지 않는가?
- * 비유에서 폭풍은 무엇을 묘사하는가?

질문 정리

- 1) 주님의 공생애 중에 그분이 행하신 세 가지는 무엇인가?
- 2) 본문은 주님의 세 가지 일 중 주로 무엇에 해당되는가?
- 3) 기적이란 무엇인가?
- 4) 주님이 고치신 질병들은 무엇인가?
- 5)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지닌 어떤 병을 낫게 하셨는가?
- 6) 주님은 백인대장의 하인을 어떻게 낫게 하셨는가?
- 7) 주님은 제자들과 어디로 가셨는가?

- 8) 바다 한 가운데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 9) 사람들이 주님을 깨우자,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0) 주님은 바다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 11) 각기 다른 질병들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2) 주님이 병을 치료 하시게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었는가?
- 13) 주님은 지상에 계신 동안 왜 기적을 수행하셨는가?
- 14) 오늘날의 우리는 왜 기적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가?

질문의 답

- 1) 가르침, 전도, 병 고침 2) 병 고침 3) 주님에 의해 행해진 굉장한 일들
- 4) 나병, 중풍, 열병, 귀신들린 자 5) 열병 6) 그분의 말씀으로 7) 배를 타셨다
- 8) 풍랑을 만났다 9)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겁이 많으냐”
- 10)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11) 영혼의 약함과 결점들
- 12) 주님이 낮게 해 주신다는 믿음을 환자가 지녀야 했다.
- 13)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에 기적들이 기록되게 하시려고
- 14) 믿음을 강요당할 염려가 크기 때문이다.

33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

머리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하면 반드시 죽기 전에 우리들 속에 천국이 와 있어야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진리의 씨를 받아

잘 키우게 될 때 우리 속의 천국이 점진적으로 발달되어 감을 언급한다.

성서: 마태복음 13장

13장: 1. 그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더니 2.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 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그대로 모두 호숫가에서 있었다. 3.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로 나갔다. 4.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5.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싹은 곧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6. 해가 뜨자 타 버려 뿌리도 붙이지 못한 채 말랐다. 7. 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맺은 열매가 백배가 된 것도 있고 육십 배가 된 것도 있고 삼십 배가 된 것도 있었다. 9.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10. 제자들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저 사람들에게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묻자 11.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하였다. 12. 가진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하게 되겠지만 못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13.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14. 이사야가 일찍이,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15.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니,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 서서 마침내 나한테 온전하게 고침을 받으리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16.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17. 나는 분명히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들으려고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18. “이제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내포한 뜻을 들어 보아라. 19.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20. 또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곧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21.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 가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22.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23.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사람은 백 배 혹은 육십 배 혹은 삼십 배의 열매를 맺는다.” 24.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길 수 있다. 25.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26. 밀이 자라서 이삭이 낫을 때 가라지도 드러났다. 27.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밭에 뿌리신 것이 좋은 씨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28. 주인의 대답이 ‘원수가 그랬구나!’ 하였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을 뽑아 버릴까요?’ 하고 종들이 다시 묻자 29. 주인은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30.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어 불에 태워 버리게 하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게 하겠다.’ 고 대답하였다.” 31.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에 비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겨자씨를 뿌렸다. 32.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싹이 트고 자라나면 어느 푸성귀보다도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 와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33.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밀가루 서 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어떤 누룩에 비길 수 있다.” 34.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군중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35. 그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내가 말할 때에는 비유로 말하겠고 천지 창조 때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36. 그 뒤에 예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들어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그 밀밭의 가라지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했다. 37. 예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다. 38.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요 가라지는 악한자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다. 39.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40. 그러므로 추수 때에 가라지를 뽑아서 묶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끝 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41. 그날이 오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모조리 자기 나라에서 추려내어 42. 불구덩이에 처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43. 그 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44.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45. “또 하늘나라는 어떤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에 비길 수 있다. 46.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47.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쳐서 온갖 것을 끌어 올리는 것에 비길 수 있다. 48. 어부들은 그물이 가득차면 해변에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추려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 49. 세상 끝 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나타나 선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50. 불구덩이에 처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51.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 한 말을 다 알아 들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예” 하고 대답하였다. 52.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낡은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53. “예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 곳을 떠나 54. 고향으로 가서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며 “저 사람이 저런 지혜와 능력을 어디서 받았을까? 55. 저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56. 그리고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저런 모든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생겼을까?” 하면서 57. 예수를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도 고향과 제 집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58.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별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다.

해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공부해 보자.

- * 비유란 무엇인가?
- * 본문에는 몇 가지의 비유가 있는가?
- * 첫 비유를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는가?
- * 우리는 언제나 옳고 그름을 즉각적으로 알게 되는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은 짧은 이야기를 선호하며 그것은 또한 쉽게 기억된다. 성경 공부를 통해 비유에 대하여 읽고 공부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비유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준비가 되면 그 의미들을 깨닫게 된다. 본문의 “군중”은 비유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으므로, 주님이 그들에게 준 모든 비유는 그저 이야기에 불과했다.

우리는 천국을 선한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장소 정도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주님은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본문의 비유들은 천국이 우리들 안에서 발달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첫 번째 과정은 씨가 뿌려져야 한다. 첫 번째 비유의 씨 뿌리는 자란 주님을 뜻한다. 씨란 “하늘의 말씀” 즉 하느님의 말씀에서 온 진리이다. 모든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를 듣는다. 씨의 향방은 하느님의 진리를 인정함과 그 진리에 순종함에 따라 결정된다. 주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진리가 겨자씨 같이 아주 작아 보일지라도 그 씨는 우리 삶 안에서 성장하여 장차 큰 나무 즉 우리에게 기둥이 되는 원리로 자랄 가능성을 담고 있음을 보여 주신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받아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 심어져서 우리 안에 천국이 발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다.

성경의 가라지는 독(毒)보리의 일종으로 밀처럼 보이는 가짜 밀이다. 가라지는 밀과 같이 자라나지만 그것의 알맹이에는 독성이 있다. 우리는 잘못인줄 모르고 어떤 것을 행하거나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선하고 참된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만 온다. 반면, 악하고 거짓된 모든 것은 지옥으로부터 온다. 우리에게 선과 악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때가 서서히 오는데, 이는 밀밭의 가라지가 충분히 자라기 전에 쉽게 식별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수확기 즉 끝에 가서는

가라지들을 제거해야만 한다. 주님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좋은 길로 여겼던 인생의 길이 고난과 시험으로 빠지게 되는 길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가라지(tare)"임을 인식하고 즉시 제거해야 한다.

본문 속의 다른 비유들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고 스스로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보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스스로 읽고 공부하고 깨닫게 되면, 이러한 모든 비유들은 큰 값을 치르고 산 진주의 비유처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곳까지 이르게 해준다. 진주란 하느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도록 자신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치운다는 것은 지식에 기초한 자신의 사상과 이기적 바램을 천국적 인격을 소유하기 위해 모두 포기한다는 뜻이다. 본문의 마지막 비유는 죽어 저 세상에 들어 갈 때 이 세상에서 선한 상태였으면 천국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악하였으면 지옥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됨을 명백히 보여준다. 우리는 사후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음을 명심해 두어야 한다.

질문 정리

- 1) 비유란 무엇인가?
- 2) 주님은 왜 언제나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 3) 본문의 비유들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4) 본문의 첫 비유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5) 주님은 왜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설명해 주셨는가?
- 6)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 7) 씨란 무엇인가?
- 8) 각기 다른 종류의 땅이란 무엇인가?
- 9)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살려면, 먼저 천국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 10) 본문에는 몇 가지의 비유가 있는가?
- 11) 그 비유들을 간단히 나열해보라.
- 12) 가라지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 13) 비유 전체가 주는 일반적 교훈은 무엇인가?
 14) 값진 진주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속뜻을 가진 이야기 2)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깊은 뜻을 지녔기 때문이다.
 3)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이다. 4) 씨 뿌리는 사람
 5) 그들은 열심히 배우려고 했다. 6) 주님 7) 말씀에서 온 진리
 8) 각양각색의 마음들 9) 우리 속에 먼저 있어야 한다. 10) 일곱 개
 11) 씨 뿌리는 사람, 가라지, 겨자씨, 누룩, 보물, 진주, 그물의 비유
 12) 우리가 우리의 악을 한 번에 극복할 수 없는 이유를 가르쳐 준다.
 13) 천국적 인격의 발달 14) 주님에 관한 지식과 인식

34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머리말

주님의 열 두 제자, 특별히 첫 네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언급한다. 그리고 「변모(transfigure)」의 의미를 본문의 구절들을 통해 공부한다.

성서 본문: 마태복음 17장

17장: 1. 옛새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만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 가셨다. 2. 그 때 예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하여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셨다. 3. 그리고 난데없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4. 그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께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하고 말하였다. 5. 베드로의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6.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너무도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다. 7.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 일어나라”하고 말씀하셨다. 8. 그들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을 때는 예수밖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9.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하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10. 그 때에 제자들이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11. 예수께서는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을 것이다. 12. 그런데 실상 엘리야는 벌써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사람의 아들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하고 대답하셨다. 13. 그제야 비로소 제자들은 이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해설

다음의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공부하자.

- * 계명들은 어디에서 주어졌는가?
- * 팔 복은 어디에서 주어졌는가?
- * 높은 산에 오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주님은 어떤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는가?
- * 주님의 외모는 어떻게 변했는가?
- * 그들은 주님과 함께 누가 있음을 보았는가?
- * 베드로는 무엇을 하기를 원했는가?

- *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는 동안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 * 빛나는 구름으로부터 무슨 소리가 들렸는가?
- * 주님은 세례자 요한에 관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고대 히브리인들은 율법을 모세로, 예언들은 엘리야로 표현했다. 제자들에게 보여진 환상은 주님이 과거 율법과 예언서들 안에서 약속된 진정한 메시아임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육체적 눈이 아닌 영적 눈으로 환상을 보았고, 천국에서 천사들이 그분을 뵈는 것 같이 실존하신 그분을 보았던 것이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주님의 모든 여행길을 따라 다닌 동반자로서 그분이 행하신 수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목격했다. 따라서 그들은 주님만이 진실한 메시아임을 확신했다. 베드로의 믿음에 대한 고백은 16장 13-18절을 보면 알 수 있다. 18절에 언급되는 “바위(rock)”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그가 선언 했던 위대한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라는 진리를 뜻한다. 이 진리는 천국에의 입장을 가능케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뵈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진리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그분의 생애를 공부하며 그분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면, 우리 역시 주님이 선택한 세 명의 제자들과 같이 되어 진정한 영화로움과 아름다움 속에 계신 그분을 만날 수 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주님과 함께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혼란스러워 했다. 초막(tabernacle)이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환상으로 인해 주님과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도 예배되어야 한다고 착각했다. 그 후, 제자들은 주님만을 보게 되었을 때 그분만이 예배되어야 함을 실감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환상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라기 4장 5-6절을 읽어 보자. 엘리야와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와 사람들이 그로 인해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사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례자 요한이 말라기서의 예언을 성취시켰음을 알려 주셨지만, 그들은 이를 잊고 있었다. (마태복음 11:14)

질문 정리

- 1) 주님이 처음 선택하신 네 제자는 누구인가?
- 2) 누가 주님의 변모하신 모습을 보았는가?
- 3) 변모란 무엇을 뜻하는가?
- 4) 변모하시는 모습을 어디서 보았는가?
- 5) 환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누가 대화하고 있었는가?
- 6)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제안했는가?
- 7) 제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무엇인가?
- 8) 그 뒤 제자들은 누구를 보았는가?
- 9) 그들이 본 것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당부하셨는가?
- 10) 제자들은 주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가?
- 11) 주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 12) 모세와 엘리야는 왜 주님과 함께 보여 졌는가?
- 13) 본문에서 세례자 요한이 거론된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 2) 베드로, 야고보, 요한
- 3) 얼굴이 바뀜
- 4) 높은 산
- 5) 모세, 엘리야
- 6) 세 초막을 지읍시다.
- 7) 빛나는 구름과 소리
- 8) 예수님만 보았다
- 9)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 10)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나이까?”
- 11) 세례자 요한이 예언을 성취시켰다
- 12) 주님이 율법과 예언들을 구체화(embody) 하여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 13) 회개를 가르치심 (첫 단계)

35

종려 주일

머리말

본과는 교회 절기 공부로 분류 되는데, 이는 특별한 날로 지키는 주일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여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성서: 마태복음 21장 1-27절

21장: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벧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2. 이렇게 이르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 보아라. 그러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터인데 그 새끼도 곁에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3. 혹시 누가 무어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습니다.’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곧 내어 줄 것이다.” 4. 이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5. “시온의 딸에게 알려라. 네 임금이 너에게 오신다. 그는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타시고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6.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일러 주신 대로 7.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겹옷을 엮어 놓았다. 예수께서 거기에 올라앉으시자 8. 많은 사람들은 겹옷을 벗어 길에 퍼 놓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아 놓기도 하였다. 9. 그리고 앞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환성을 올렸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10.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시민이 들떠서 “이분이 누구냐?”고 물었다. 11. 사람들은 “이분은 갈릴래아 나자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요”하고 대답하였다. 12.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으로 들어 가 거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다 쫓아 내시고 환금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13. 그리고 그들에게 “성서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리라’고 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하고 나무라셨다. 14. 그 때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에 있던 소경들과 절름발이들이 앞으로 나오자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15.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며 성전 뜰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치밀어서 16. 예수께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들립니까?”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들린다. ‘주께서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하고 대답하셨다. 17.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성밖에 있는 베다니아로 가서서 밤을 지내셨다. 18. 이튿날 아침에 예수께서 성안으로 들어오시다가 마침 시장하시던 참에 19. 길가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로 가셨다. 그러나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무화과나무는 곧 말라 버렸다. 20.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그렇게 당장 말라 버렸습니까?”하고 물었다. 21.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이 무화과나무에서 본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22.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23.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하고 물었다. 24. “나도 한 가지 물어 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25. 요한은 누구에게서 권한을 받아 세례를 베풀었느냐? 하늘이 준 것이냐? 사람이 준 것이냐?”하고 반문하시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그 권한을 하늘이 주었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26. 사람이 주었다고 하면

모두들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니 군중이 가만있지 않을 테지?”하고 의논한 끝에 27. “모르겠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하고 말씀하셨다.

해설

지상에서의 주님 삶의 마지막 주 첫 날을 기념하는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른다. 나귀 위에 타는 것은 왕이나 판관들의 관습이었다. 나귀의 타박타박 걷는 모습 즉 그것은 믿음직하게 걷기는 하나 고집이 세서 주인이 지시대로 가려하지 않는 고집이 센 동물이다. 나귀는 자연적 이성 또는 “상식(common sense)”을 뜻한다. 이렇게 나귀로 표현되는 본성은 항상 땅만 쳐다보며 결코 하늘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귀로 표현되는 본성의 특징이라면 세상적인 일들에만 아주 큰 관심을 보이고 잘 어울려서 그 이상의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타심이 이기심보다 우월하며 슬기로운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어렵게 여긴다. 우리의 상식은 “이타심은 나 자신에게 어떠한 혜택도 주지 않아.”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나귀가 말하는 이론의 서두이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신 나귀새끼 (colt)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였다. (누가 19:30) 이는 보다 높은 원리들 아래에 자연적 이성을 두는 권능을 가져오신 첫 번째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의미한다. 즈가리야 9장 9절을 보면, 주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음을 알 수 있다.

주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을 왕으로 환호하며 나귀 타신 그분의 길에 그들의 겂옷이나 종려나무가지를 깔기도 했다. 이는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을 묘사한다. 우리의 “겂옷(garment)”이란 우리의 느낌을 입힌 생각들을 의미한다. 종려나무가지란 우리의 구세주로서 주님을 믿음을 뜻한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하느님이며 왕으로서 인식한다면, 우리 안의 모든 사상들은 그분의 진리의 심판에 복종해야 한다.

비둘기는 제물로서 사용되었다. 율법은 제물로 사용된 동물이나 새들이 모두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비둘기를 제물로서 성전으로 가져 왔다. 사제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져온 제물에서 흠을 발견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것을

사게 만드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었다. 또한 사제들은 성전 헌금을 “성전의 돈(shekel of the sanctuary)”으로 바꾸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 돈은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었다. 환전상들은 돈을 바꿔주고 그 값(fee)을 챙겼다. 주님이 인용하신 구절들은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볼 수 있다.

대사제나 율법 학자들은 그들 외에 어느 누구도 칭찬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님이 대중적 인기를 갖게 됨을 매우 두려워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인용하셨다. 시편 8편 2절을 읽어 보자. 이는 종교가 열매 맺는 선한 행위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영혼에 있게 되는 것을 묘사한다. 당시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 그분은 수차례 스스로를 구해내셨듯이 그때에도 자신을 구해내셨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그분의 일을 마무리 짓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시키기 위해 필요했음을 알고 계셨다.

질문 및 요점정리

- *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가?
- * 주님은 어느 도시로 입성하셨는가?
- * 그분은 무엇을 타고 계셨는가?
- * 주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 * 주님은 밤을 보내기 위해 어디로 가셨는가?
- * 그곳에는 주님의 친구들이 있었다.
- * 요한복음 11장 1-5절까지와 누가복음 10장 38-39절을 읽어 보자.
- * 주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질문 정리

- 1) 오늘은 무슨 날인가?
- 2) 이 날은 무엇을 기념하는가?
- 3) 예루살렘 입성 때에 주님은 무엇을 타셨는가?
- 4) 제자들은 나귀 위에 무엇을 놓았는가?

- 5) 주님이 나귀를 타시자 그분 앞에 사람들은 무엇을 뿌렸는가?
- 6) 군중들은 뭐라고 외쳤는가?
- 7) 주님은 입성하신 후 어디로 가셨는가?
- 8) 그곳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 9) 성전에 관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0) 이외에 주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 11) 주님은 밤을 어디서 보내셨는가?
- 12)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었는가?

질문의 답

- 1) 종려주일 2) 주님의 의기양양한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 3) 나귀 4) 그들의 겹 옷 5) 종려나무 가지와 겹옷 6) 호산나 7) 성전 8) 환전상과 비둘기 장수를 내쫓으셨다 9)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10) 소경들과 절름발이들을 고쳐 주셨다
- 11) 베다니아 12)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6

주님의 지상 마지막 주간

머리말

주님의 심문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관한 사건의 순서를 글자적으로 확실히 이는데 중점 한다. 십자가란 주님의 선함과 진리가 모든 악의 권세를 정복한 승리를 상징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주님의 승리는 우리가 그분의 안내를 받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으면

우리 역시 악의 정복이 가능함을 암시한다. 배반에 관한 내용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그분을 배반하는 것임을 염두 하자. 그리고 과월절 축제 동안에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은 과월절을 대신하는 기독교회를 위한 것임도 기억하자.

성서: 마태복음 26; 27장

26장: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2. “너희가 알다시피 이제 이틀만 있으면 과월절이 되는데 그 때에는 사람의 아들이 잡혀 가 십자가형을 받게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3. 그 무렵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가야파라는 대사제 관저에 모여 4. 흥계를 꾸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5. 그러면서도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만은 피하자”고 하였다. 6. 그 때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는데 7.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탁에 앉으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8. 이것을 본 제자들은 분개하여 “이렇게 낭비를 하다니! 9. 이것을 팔면 많은 돈을 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텐데”하고 말했다. 10. 예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 여자는 나에게 야릇한 일을 했는데 왜 괴롭히느냐? 11.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언제까지나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12.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13. 나는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14. 그 때에 열 두 제자의 하나인 가리옷 사람 유다가 대사제들에게 가서 15.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 주면 그 값으로 얼마를 주겠소?”하자 그들은 은전 서른 닢을 내주었다. 16. 그 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 줄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17.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께서 드실 과월절 음식을 어디에다 차렸으면 좋겠습니까?”하고 물었다. 18. 예수께서는 이렇게 일러 주셨다. “성 안에 들어가면 이러 이리한 사람이 있을 터이니 그 사람더러 ‘우리 선생님께서 자기 때가 가까왔다고 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댁에서 과월절을 지내시겠다고 하십니다’고 말하여라.” 19. 제자들은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과월절 준비를 하였다. 20.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열 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21. 같이 음식을 나누시면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22. 이 말씀에 제자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하고 물었다. 23.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바로 나를 배반할 것이다. 24. 사람의 아들은 성서에 기록된 대로 죽음의 길로 가겠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한 그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25. 그 때에 예수를 배반한 유다도 나서서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하고 묻자 예수께서 “그것은 네 말이다”하고 대답하셨다. 26.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받아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하시고 27. 또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그들에게 돌리시며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28. 이것은 나의 피다.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29. 잘 들어 두어라.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 날까지 결코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하고 말씀하셨다. 30. 그들은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31.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오늘 밤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32.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갈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그 때 베드로가 나서서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하였다. 34.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35. 베드로가 다시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하고 장담하였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36.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니라는 곳에 가셨다.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하시고 37. 베드로와 제베대오의 두 아들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38. 예수께서 근심과 번민에 싸여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와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같이 깨어 있어라”하시고는 39.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40. 기도를 마치시고 세 제자에게 돌아 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나? 41.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시며 한탄하셨다. 42. 예수께서 다시 가서서 “아버지, 이것이 제가 마시지 않고는 치워질 수 없는 잔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하고 기도하셨다. 43.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시니 그들이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지쳐서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44. 하는 수 없이 제자들을 그대로 두시고 세 번째 가서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45.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 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자, 때가 왔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 손에 넘어 가게 되었다. 46.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 줄 자가 가까이 와 있다.” 47.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열 두 제자의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를 따라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몰려 왔다. 48. 배반자는 그들과 미리 암호를 짜고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붙잡아라.”고 일러두었던 것이다. 49. 그는 예수께 다가 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하고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었다. 50. 예수께서 “자 이 사람이야, 어서 할 일이나 하라”하고 말씀하시자 무리가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51. 그 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 버렸다. 52.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그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53.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열 두 군단도 넘는 천사를 보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54.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한 성서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고는 55. 무리를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전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는 나를 잡지 않다가 지금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란 말이나? 56.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언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이루려고 일어난 것이다.” 그 때에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달아났다. 57.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아 대사제 가야파의 집으로 끌고 갔는데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58.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사제의 관저에까지 가서 일의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 경비원 들 틈에 끼어 앉아 있었다. 59. 대사제들과 온 의회는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60. 많은 사람이 와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두 사람이 나타나서 61. “이 사람이 하느님의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하고 증언하였다. 62. 이 말을 듣고 대사제가 일어나 예수께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렇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할 말이 없는가?”하고 물었다. 63.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내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분명히 대답하여라. 그대가 과연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하고 물었다. 64. 예수께서는 그에게 “그것은 너의 말이다”하시고는 “잘 들어 두어라.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 편에 앉아 있는 것과 또 하늘의 구름 위에 오는 것을 볼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65. 이 말을 듣고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느님을 모독했으니 이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방금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소? 66.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하고 묻자 사람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하고 아우성쳤다. 67.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어떤 자들은 빵을 때리면서 68.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맞추어 보아라.”하며 조롱하였다. 69. 그 동안 베드로는 바깥뜰에 앉아 있었는데 여종 하나가 그에게 다가 와 “당신도 저 갈릴래아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군요.”하고 말하였다. 70.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무슨 소린지 나는 모르겠소.”하고 부인하였다. 71.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가로 나가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자렛의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오.”하고 말하였다. 72.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73. 조금 뒤에 거기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 오며 “틀림없이 당신도 그들과 한 께요. 당신의 말씨만 들어도 알 수 있소”하고 말하였다. 74. 그러자 베드로는 거짓말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하고 잡아떼었다. 바로 그 때에 답이 울었다. 75. 베드로는 “답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하신 예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

27장: 1. 이른 아침에 모든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를 죽일 계획을 짜고
2. 그를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넘겨주었다. 3. 그 때에 배반자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자기가 저지른 일을 뉘우쳤다. 그래서 은전
 서른 닢을 대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며 4.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배반하여 그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 나는 죄인입니다”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대가 알아서 처리하라”하고 말하였다. 5. 유다는 그 은전을 성소에 내동댕이치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6. 대사제들은 그 은전을 주워 들고 “이것은 피
 값이니 현금 께에 넣어서는 안 되겠소”하며 7.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용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8. 그래서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의
 밭”이라고 불린다. 9.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정한
 한 사람의 몸값, 은전 서른 닢을 받아서 10. 주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용기장의
 밭 값을 치렀다”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1.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네가 유대인의 왕인가?”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은 네 말이다”하고 대답하
 셨다. 12. 그러나 대사제들과 원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13. 그래서 빌라도가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 죄목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는데
 그 말이 들리지 않느냐?”하고 다시 물었지만 14. 예수께서는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15. 명절이 되면 총독은 군중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관례가 있었다. 16. 마침 그 때에 (예수)바라빠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17.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누구를 놓아 주면 좋겠느냐?
 바라빠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하고 물었다. 18. 빌라도는 예수가 군중
 에 끌려 온 것이 그들의 시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다. 19. 빌라도가 재판관
 을 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전갈을 보내어 “당신은 그 무죄한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간밤에 저는 그 사람의 일로 꿈자리가 몹시 사나왔습니다.”하고 당부하
 였다. 20. 그 동안 대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바라빠를 놓아 주고 예수는
 죽여 달라고 요구하게 하였다. 21. 총독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놓아 달라는
 말이나?”하고 묻자 그들이 “바라빠요”하고 소리 질렀다. 22.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하자 모두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하고 소리 질
 렸다. 23. 빌라도가 “도대체 그 사람의 잘못이 무엇이나?”하고 물었으나 사람들은 더
 악을 써가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하고 외쳤다. 24. 빌라도는 그 이상 더 말해
 보아야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기세가 보였으므로 물을 가져다가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너희가 맡아서 처리하여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하고 말하였다. 25. 군중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하고 소리쳤다. 26.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빠를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내어주었다. 27.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전 부대원을 불러 모아 예수를 에워쌌다. 28.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대신 주홍색 옷을 입힌 뒤 29. 가시로 왕관을 얹어 머리에 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린 다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다인의 왕 만세!”하고 떠들며 조롱하였다. 30.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다. 31.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그 겂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32.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만나자 그를 붙들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33. 그리고 골고타 곧 해골산이라는 데에 이르렀을 때에 34. 그들은 예수께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주었으나 예수께서는 맛만 보시고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35.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갖고 36. 거기 앉아 예수를 지키고 있었다. 37. 그리고 예수의 머리 위에 죄목을 적어 붙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의 왕 예수”라고 적혀 있었다. 38. 그 때에 강도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그 하나는 예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달렸다. 39.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40. “성전을 헐고 사흘이면 다시 짓는다면 자야, 네 목숨이나 건져라. 네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하며 모욕하였다. 41. 같은 모양으로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도 42. “남은 살리면서 자기는 못 살리는구나.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래.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고말고. 43. 저 사람이 하느님을 믿고 또 제가 하느님의 아들입네 했으니 하느님이 원하시면 어디 살려 보시라지.”하며 조롱하였다. 44.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를 모욕하였다. 45. 낮 열 두시부터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46. 세 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이다. 47. 거기에 서 있던 몇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말하였다. 48. 그리고

그 중의 한 사람은 곧 달려 가 해변을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끝에 꽂아 예수께 목을 축이라고 주었다. 49.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시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 주나 봅시다.”하고 말하였다. 50. 예수께서 다시 한 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51. 바로 그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52. 무덤이 열리면서 잠들었던 많은 옛 성인들이 다시 살아났다. 53.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54.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지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하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55. 또 거기에는 멀리서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여자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갈릴래아에서부터 예수께 시종들며 따라 온 여자들이었다. 56. 그 중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있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베대오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57.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태아 사람인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였다. 58.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 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쾌히 승낙하여 내어 주라고 명령했다. 59.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고운 베로 싸서 59.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러 무덤 입구를 막아 놓고 갔다. 61. 그 때에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62. 그 날은 명절을 준비하는 날이었다. 그 다음 날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몰려 와서 63. 이렇게 말하였다. “각하, 그 거짓말장이가 살아 있을 때에 사흘 만에 자기는 다시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64. 그러니 사흘이 되는 날까지는 그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서 감추어 놓고 백성들에게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떠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심한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65. 빌라도는 그들에게 “경비병을 내어 줄 터이니 가서 너희 생각대로 잘 지켜보아라.”하고 말하였다. 66.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

해설

다음의 질문 및 요점을 기억하며 공부하자.

- * 주님은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입성하셨는가?
- * 군중들은 그분을 어떻게 느꼈는가?
- * 어린이들은 뭐라고 소리쳤는가?
- * 주님은 군중의 감정이 그리 길지 않을 것임을 알고 계셨다.

마태복음 20장 17-19절을 읽어 보자.

주님은 그분의 마지막 주일의 월요일과 화요일을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보내셨다. 그분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은 바리새인, 서기관 혹은 대제사장들에 의해 휘저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수요일에 아주 강해져서, 그 때 주님은 성에 오시지 않았다. 이는 주님이 성에서 주무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밤에 주님은 예루살렘 근처 작은 마을인 베다니아로 가서 친구인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자로의 집에서 머무셨던 것이다. 그 후 주님은 목요일 저녁에 그분에게 일어날 일을 아시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과월절을 기념하시기 위해서 성으로 오셨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빵은 나의 몸이고 이 포도주는 나의 피”라고 하셨다. 그분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 순간에도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자신은 우리의 느낌(feeling)들과 생각(thought)들이다. 진정한 주님의 “몸과 피”는 그분의 선함(goodness)과 진리(truth)이다. 그래서 성찬식이 거행될 때는 주님의 이타적 사랑을 심정에 받고 그분의 진리를 지성에 받음을 상징한다.

우리가 어떤 육체적 재난에서 벗어나거나 육체적 고통에서 치료되기를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바램이 첨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각자를 위해 최선의 것을 아시며 그렇게 해주시고 있기 때문이다.

유다는 스스로가 행한 일을 깨닫고 밖으로 나가 목매달아 자살했다. 이것은 우리가 종종 잘못을 알면서도 행하며 그 일이 실제로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지만 실상 실제적 결과의 악함을 보고 소스라치게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주님의 심문과 십자가에 달리시는 부분의 이야기를 세세히 읽어 보자. 유다 지역에는

주님 당시에도 왕과 제사장이 있었으나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다. 따라서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다. 주님의 심문은 거짓 심문이었다.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 했던 증언과 그분의 답변들을 읽는다면, 그분이 사형당해야 할 어떤 증거도 없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단지 주님을 믿기를 거절했을 뿐이다. 그들이 주님을 죽음에 처하게 만든 진짜 이유는 그들이 그분이 메시아라는 그분의 서술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분이 삶의 진정한 길을 말씀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바꾸고 싶지 않았고,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들의 이기심 또한 눌러 버리고 싶지 않았다.

본문은 우리의 삶이 구원되기 위해서 우리를 잘못되게 한 시험조차도 주님의 힘으로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십자가는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시험을 이기신 주님의 마지막이며 완전한 승리를 표시한다. 우리가 시험 당해질 때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께 도움을 청하면,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문답으로 정리

- * 과일절은 무엇을 기념하는가?
- * 주님은 저녁 식사 동안 어떤 새로운 기념일을 제정하셨는가?
- * 주님은 저녁 식사 후 기도하기 위해 어디로 가셨는가?
- * 그분의 기도는 무엇이였는가?
- * 누가 주님을 배반했는가?
- * 주님은 그가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가?
- * 주님은 왜 그를 못하게 막지 않으셨는가?
- * 무엇이 유다로 하여금 그의 가장 좋은 친구를 배반하도록 유혹했는가?
- * 주님이 붙잡히시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 베드로는 무엇을 했는가?
- * 주님은 어떻게 죽음에 놓이셨는가?
- * 그분의 옷을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 * 그분의 시신은 어디에 놓여 졌는가?
- * 그분이 부활하시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가 있었는가?

질문 정리

- 1) 종려주일에 무엇이 발생했는가?
- 2) 주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오셨는가?
- 3) 주님은 마지막 과일절 음식을 드신 후에 어떤 새로운 기념일을 설립하셨는가?
- 4) 주님은 열 두 제자 중 하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5) 제자들 각자는 뭐라고 물었는가?
- 6) 어떤 제자가 주님을 배반했는가?
- 7) 유다는 주님을 어떻게 배반했는가?
- 8) 주님이 붙잡히시자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 9)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는가?
- 10)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 11) 그는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 12) 베드로에게 자신의 예수에 대한 부인에 관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한 것은 무엇인가?
- 13) 주님은 누구 앞에서 처음으로 심문 받았는가?
- 14) 누가 주님의 사형선고를 내렸는가?
- 15) 빌라도는 군중에게 어떤 선택의 기회를 주었는가?
- 16) 주님은 어떻게 사형에 처하게 되었는가?
- 17) 그분의 시신은 어떻게 묻혔는가?
- 18)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질문의 답

- 1)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 2) 과일절을 지키기 위해서
- 3) 성찬식(Holy Supper)
- 4) “나를 배반하리라”
- 5) “그게 저입니까?”
- 6) “가리옷 사람 유다(Juda Iscariot)”
- 7) 키스함으로
- 8) 도망갔다
- 9) 주님을 부인함
- 10) 아님
- 11) 세 번이나 부인했다
- 12) 닭의 울음
- 13) 가야파라는 대제사장
- 14) 빌라도, 로마제국 총독,
- 15) 예수를

석방할 것이냐? 혹은 바라빠냐? 16) 십자가에 달리심 17)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에 모셨다 18) 무덤에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두었다

37

부활하신 주님

머리말

종려주일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부분까지의 줄거리를 간략히 정리하며 시작한다. 종려주일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그분은 이틀 동안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에는 성밖의 베다니아로 가셔서 그분의 친구들인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자로의 집에서 머무셨다. 목요일 저녁 주님은 성으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과월절을 기념하셨다. 이때에 주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셨는데, 이는 과월절 대신 기독교계에서 거행되는 기념일이다. 주님은 만찬 후에 기도하시기 위해 겔세마니 동산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들이 그분을 붙잡았다. 그분은 대제사장 가야파, 헤로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심문받으셨다. 그들은 그들이 사용한 거짓 증거 외에는 어떤 결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요구했고, 금요일에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다.

성서: 마태복음 28장

28장: 1.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2.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 그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다. 3.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처럼 빛났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 4. 이 광경을 본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 떨다가 까무러쳤다. 5. 그 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찾고 있으나 6.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아라. 7. 그리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터이니 거기에서 그분을 뵈게 될 것이오’하고 알려라. 나는 이 말을 전하러 왔다.” 8. 여자들은 무서우면서도 기쁨에 넘쳐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무덤을 떠나 급히 달려갔다. 9.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께서 그 여자들을 향하여 걸어 오셔서 “평안하냐?”하고 말씀 하셨다. 여자들은 가까이 가서 그의 두 발을 붙잡고 엎드려 절하였다. 10.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래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11. 여자들이 떠나간 뒤에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성안으로 들어 가 그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대사제들에게 낱낱이 보고하였다. 12. 대사제들은 원로들과 만나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많은 돈을 집어 주며 13. “너희가 잠든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시체를 훔쳐 갔다고 말하여라. 14.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도록 하여 주겠다”하고 말하였다. 15.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16. 열 한 제자는 예수께서 일러 주신 대로 갈릴래아에 있는 산으로 갔다. 17.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뵈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18.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시대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해설

다음 질문과 요점을 떠올리며 공부하도록 하자.

- * 우리는 부활 주일의 앞 주간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 이 날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 * 그분은 어떻게 환영되셨는가?
- * 그분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 * 무덤을 보러 간 그녀들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 * 누가 주님이 일어나셨다고 그녀들에게 말했다는가?
- *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 왔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 * 이들이 떠나갔을 때, 그들은 누구를 만났는가?
- * 그분은 그녀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 종교 지도자들은 진실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짓을 행했는가?
- * 주님을 믿고 싶지 않은 이들은 지금도 그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
- * 주님은 어디서 제자들과 만나서 말씀하셨는가?

제자들은 주님이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인정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다를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들 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바뀌게 하는 왕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며칠도 안 되어 주님께에서 고개를 돌리고 그분을 죽게 했다. 주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 동안 그분의 시신은 무덤 안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일요일 이른 아침에 그분을 사랑했었던 여인이 무덤에 왔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만이 여인들이 그분의 시신에 바를 향을 가져온 사실을 말해 준다.

네 복음서에 있는 부활의 사건은 조금씩 다르다. 네 복음의 모든 사건은 실제로 발생했다. 두 사람이 한 가지 사건을 보더라도 세부사항을 똑같이 기억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서의 모든 말씀이 주님께 의해 영감 되어졌음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네 복음서 기자의 마음에 그분이 기록되어지기 원하신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이 장차 내적 의미 면에서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하면, 부활에 관한 각 복음서의 이야기에 담긴 각각의 특별한 교훈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모든 제자들은 그분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들은 그분이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다시는 그분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들은 되돌아가서 과거 직업을 다시 행했다. 그들이 포기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의 일부는 기억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새 소식, good news”를 전파 할 강함을 갖지는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회도 존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그분이 진짜 “부활과 생명” (요한복음 11:25)이심을 입증하시기 위해 죽음을 통과하셨다. 그리하여 주님은 육체적 죽음이 삶의 전진하는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과 죽음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입증하셨다. 어떤 이가 여러분에게 “나는 사후의 삶을 믿을 수 없어. 아무도 되돌아 와서 그것에 관해 말해 주지 않았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그에게 “그렇지 않아. 주 예수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시기 위해 되돌아 오셨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의 시대에 거룩한 땅은 세 구역, 즉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래아로 나뉘어 있었다. 거룩한 땅은 천국적 인격을 그려주는데, 그 안에 세 가지의 부분이 있는 것이다. 유다는 우리의 심정 또는 의지 부분을, 사마리아는 우리의 지성 또는 이해성 부분을 그리고 갈릴래아는 우리의 행동 부분을 그린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들은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기 원한다면 진리인 것을 생각하며 뜻할 뿐 아니라 올바른 것을 반드시 행해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만나자고 지정한 곳은 산 위였다. 높은 산 위에 오르면 아래의 넓은 땅을 내려다 볼 수 있고, 주변의 거리 관계 또는 전체적 시야로 볼 때 각 지점이나 길들의 관계를 훤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은 높은 관점, 즉 영적인 관점을 그린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산 위에서, 즉 높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만이 주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함께 하신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높은 관점을 갖게 해 준다. 그 이유는 부활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의 시작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삶은 영원한 삶에서 행복하기 위해 쓰여 질 것들을 주님의 감독 하에 준비하는 삶에 불과함을 알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지 40일 후 주님의 승천이 거행되었다. 누가복음 24장 50-53절에 이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비록 우리가 신체적 눈으로 그분을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는 그분이 약속하신 사항이기도 하다. 우리 역시 과거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분의 부름을 받아 내 이웃에게 새 소식, 즉 하느님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으며 천국에 관하여 가르쳐 주셨다는 소식을 알리는 일의 일부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질문 정리

- 1) 본문에서 언급된 날은 어떤 날인가?
- 2) 우리는 왜 부활주일을 지키는가?
- 3) 사람들은 왜 주님을 왕으로 환영한지 며칠도 채 안 되어 그분에게서 등을 돌렸는가?
- 4) 주님은 왜 목요일 저녁에 다시 성으로 들어 가셨는가?
- 5) 주님은 어떤 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 6) 우리는 성주간 중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요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7)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후 그분의 시신은 어떻게 되었는가?
- 8) 누가 부활주일 아침 무덤에 먼저 왔는가?
- 9)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 10) 천사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1) 천사는 주님이 제자들을 어디서 만날 거라고 말해 주었는가?
- 12) 여인들은 달려갔을 때 누구를 만났는가?
- 13)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이 불신임되도록 어떤 음모를 꾸몄는가?
- 14)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 15)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래아에서 만났을 때, 그분에 대해 하신 첫 말씀은 무엇인가?
- 16)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17)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격려는 무엇인가?
- 18) 주님은 왜 갈릴래아에 있는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하셨는가?

19) 여인들이 왜 부활에 대해 제일 먼저 배웠는가?

질문의 답

1) 부활주일 2)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이다 3) 그들이 시기심 많은 종교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4) 과일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5) 금요일 6) Good Friday 7) 새 무덤에 놓여졌다 8) 여인들 9) 열린 무덤 10) 그분은 다시 사셨다 11) 갈릴래아 12) 예수 13) 경비병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퍼트리게 했다 14) 죽은 후 우리는 다시 살게 된다 15)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6)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17)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18) 갈릴래아 = 일상생활 (outer, everyday life) 산 = 생각의 높은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 다시말해 생각의 높은 상태인 영적 관점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때 주님은 우리와 만나실 수 있기 때문. 19) 진리에 대한 우리의 애착은 외적 증거들이 의심을 조장하더라도 존속되기 때문이다.

38

요한의 환상

머리말

요한계시록과 복음서의 연결을 언급한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 후 대략 40여 년이 지난 AD.70년 경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마지막으로 「디도(Titus)」하의 로마 군인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리하여 기독교인들은 산산이 흩어져 소아시아와 그 너머 까지 흩어졌다. 그래서 초대 교회들이 소아시아에서 발달되었다. 초심자들은 사도 요한과 세례자 요한을 혼동치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계시록은 그리스어로 묵시록

(Apocalypse)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베일이 벗겨짐(unveiling) 혹은 밝혀짐(revelation)을 의미한다.

성서: 요한 계시록 1장

1장: 1.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느님께서 곧 일어날 일들을 당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리스도에게 계시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당신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려 주셨습니다. 2.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것, 곧 내가 본 모든 것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 일들이 성취될 시각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4.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그분과 그분의 옥좌 앞에 있는 일곱 영신께서, 5. 그리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죽음으로부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며, 땅 위의 모든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화를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6. 우리로 하여금 한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또 당신의 하느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서 영광과 권세를 영원무궁토록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7. 그분은 구름을 사용하여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입니다. 땅 위에서는 모든 민족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8.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9. 여러분의 형제이며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환난을 같이 겪고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같이 견디어 온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를 증언한 탓으로 파트모스라는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10. 나는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뒤에서 울려 오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11. 그 음성은 나에게 “네가 보는 것을 책으로 기록하여 에페소, 스미르나, 베르가모, 티아디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이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어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2. 그래서 나는 누가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려고 돌아 섰습니다. 돌아 서서

보았더니 황금등경이 일곱 개 있었고 13. 그 일곱 등경 한가운데에 사람같이 생긴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14.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또는 눈같이 희었으며 눈은 불꽃같았고 15. 발은 풀무불에 단 놋쇠 같았으며 음성은 큰 물소리 같았습니다. 16. 오른손에는 일곱별을 쥐고 계셨으며 입에서는 날카로운 쌍날칼이 나왔고 얼굴은 대낮의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17. 나는 그분을 뵈자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나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18. 살아 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었지만 이렇게 살아 있고 영원무궁토록 살 것이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내 손에 쥐고 있다. 19. 그러므로 너는 네가 이미 본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20. 네가 보는 내 오른손의 일곱별과 일곱 황금등경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일곱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고 일곱 등경은 곧 일곱 교회이다.

해설

어떤 세 제자가 변모하신 주님을 보았는가? 요한은 주님의 변모가 있는 뒤 오랜 후에 그분에 대한 경이로운 환상을 가졌다. 그때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 거의 60여 년이 지난 때이다. 요한은 그때까지 생존한 유일한 사도였고 아주 늙었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로마인들에 의해 파괴되었고, 기독교인들은 소아시아 혹은 더 먼데까지 흩어졌다. 초대 기독교회들은 소아시아 지역에 조직되어 있었다. 요한은 에페소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였다. 그 교회는 아마 그곳에서 타교회들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하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요한은 소아시아의 서쪽 24마일쯤 되는 에게해에 있는 작은 파트모스 섬으로 유배되었다. 어떤 성서 사전은 “이 섬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남쪽 언덕 위는 크라운 형식이 되어 전망이 좋은데 이곳에 ‘John the Divine’이라는 이름을 낳게 한 수도원이 건립되어져 있다. 조금 더 올라가면 동굴이 있는데 거기서 성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고 전통(tradition)은 말한다.”라고 설명한다.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있었다. 즉, 그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영계 안의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도록 준비 되었다. 그는 그 음성이 그의 뒤로부터 울리는 듯해 그것을 보도록 준비 되었고 그 음성을 향해 돌아섰다. 이는 그분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기 전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하여 먼저 돌아서야 됨을 말해준다. 알파와 오메가란 그리스어의 첫 번째와 마지막 알파벳에 해당된다. 여러분은 교회의 성단에 있는 가구들에서 이 글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Α, Ω"라고 쓴다.

환상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로서 알았던 사람이 하느님 자신이었음을 보여 주었다. 스웨덴북은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인식 못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나, 이 지식을 죽기 전 배우지 못했던 선한 이들은 저 세계에서 훈육되어질 수는 있다”라고 말한다. 물론 이 지식을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 이유는 하느님에 관한 진짜 진리로 우리의 삶을 기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진정한 교회는 세상에 빛을 주는 진리를 받드는 등경(등잔대, lampstand)과 같다. 천사란 “전달자(messenger)”라는 뜻이다.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위해 요한에게 메시지가 주어졌다. 그는 사실 이미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혹은 복음, 즉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알려준 전달자가 되어 있었다. 우리 역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려 노력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의 전달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분의 전달자가 된다면, 우리는 저 세상으로 옮겨질 때 틀림없이 천사가 될 것이다.

질문정리

- * 일주일 중 어느 요일에 요한에게 환상이 주어졌는가?
- * 그 음성이 요한에게 말한 첫 번째는 무엇인가?
- * 환상과 더불어 요한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해졌는가?
- * 그는 주님 주위에 있는 무엇을 보았는가?
- * 주님은 어떻게 옷을 입고 계셨는가?
- * 그분의 음성은 무엇 같았는가?
- * 그분의 오른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는가?
- * 일곱 등경은 무엇을 그리는가?

* 일곱 별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 정리

- 1) 복음서에는 어떤 두 요한이 있는가?
- 2) 어느 요한을 통하여 복음서가 기록되었는가?
- 3) 주님이 죽으신 뒤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는가?
- 4) 초대 기독교회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 5) 복음서 외에 어느 책이 요한에 의해 쓰였는가?
- 6) 요한에게 계시가 주어질 당시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 7) 요한은 처음에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 8) 그는 돌아섰을 때 맨 처음 무엇을 보았는가?
- 9) 일곱 황금등경 한 가운데에는 누가 서 있었는가?
- 10) 주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 11) 그분은 오른 손에 무엇을 쥐고 계셨는가?
- 12)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3) 그분은 일곱 등경과 일곱 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4) 그분은 요한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
- 15) 이 환상에는 왜 여러 차례 빛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

질문의 답

- 1) 세례자 요한, 사도 요한 2) 사도 요한 3) 모두 파괴 되어졌다
- 4) 소아시아 5) 요한 1,2,3서; 계시록 6) 파트모스섬 7)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 8) 일곱 황금등경 9) 부활하신 주님 10)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 11) 일곱 별 12)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13) 교회들과 천사들
- 14) 환상을 받아써라 15) 신성한 진리가 권능이 있음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임

39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

머리말

본문에서는 어린이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제시되는 공통점이 언급된다. 각 메시지에 있는 공통점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

- (1) 주님에 대한 환상 중 일부가 거론된다.
- (2) 선을 행하도록 교회에 명령한다.
- (3) 각 교회의 특별한 악들을 견책하고, 그것이 시정되지 않음으로 인한 악들을 보여준다.
- (4) 각 교회가 그들의 악을 멀리할 때 따르는 보상을 제시한다.
- (5) “들을 귀 있는 자는...”라고 끝맺으며 각 교회가 순종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성서: 요한계시록 2, 3장

2장: 1. 에페소 교회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시고

일곱 황금등경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2.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으며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를 사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허위를 가려 낸 일도 잘 알고 있다. 3.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어 냈으며 낙심하는 일이 없었다. 4.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버린 것이다. 5.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빛나갔는지를 생각하여 뉘우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만일 그렇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등경을 그 자리에서 치워 버리겠다. 6. 그러나 네가 잘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 너는 니콜라오프의 소행을 미워하고 있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7.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나는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8. 또 스미르나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죽었었지만 살아 계신 분이 말씀하신다. 9. ‘나는 네가 겪은 환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요하다. 네가 유대인으로 자칭하는 자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이다. 10. 네가 장차 당할 고통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하여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려 하고 있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월계관을 너에게 씌워 주겠다. 11.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승리하는 자는 결코 두 번째 죽음의 화를 입지 않을 것이다.’ 12. 베르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날카로운 쌍날칼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13. ‘나는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 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건히 믿고 있다. 또 나의 진실한 증인 안디바스가 사탄이 살고 있는 그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날에도 너는 나에게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14. 그러나 나는 너에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중에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사주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죄짓게 하였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게 하였으며 음란한 짓을 하게 하였던 자다. 15. 또 너희 중에도 니콜라오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16. 그러므로 뉘우쳐라. 만일 뉘우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17.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한다.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감추어 둔 만나를 주겠고 또 흰돌도 주겠다. 그 돌 위에는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은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18. 티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불꽃 같은 눈과 놋쇠 같은 발을 가지신 분, 곧 하느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19. ‘나는 네가 한 일들을 잘 알고 있고 네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네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20.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 여자는 예언자로 자처하며 내 종들을 잘못 가르쳐서 미혹하게 했고 음란한 짓을 하게 했으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게 하였다. 21. 나는 그 여자에게 뉘우칠 시간을 주었지만 그 여자는 자기의 음행을 뉘우치려고 하지 않는다.

22. 이제 나는 그 여자를 고통의 침상에 던지겠다. 그리고 그 여자와 간음하는 자들도 뉘우치지 않고 그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버리겠다.

23. 그리고 그 여자의 자녀들을 죽여 버리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각각 행한 대로 갚아 주겠다. 24. 그러나 티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여자의 가르침을 받아 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비밀을 배우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으니 25.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단단히 간직하고 있어라. 26. 승리하는 자, 곧 나의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자에게는, 여러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27. 그는 쇠지팡이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28.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로 다스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셋별을 주겠다. 29.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3장: 1. 사르디스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하느님의 일곱 영신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네가 살아 있다는 말이 있지만 실상 너는 죽었다. 2. 그러므로 깨어 나거라. 너에게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힘을 북돋아 주어라. 나는 네가 하는 일이 내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3.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

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 그것을 굳게 지켜라. 그리고 네 잘못을 뉘우쳐라. 만일 네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나타날지를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4. 그러나 사르디스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하얀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 5. 승리하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결코 지워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6.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7.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네 힘은 비록 미약하지만 너는 내 말을 잘 지켰으며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일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를 위해서 문을 열어 놓았다. 그리고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 9. 사탄의 무리에 속하는 자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떠들어 대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로 하여금 너에게 나와서 네 발 앞에 엎드려 너를 경배하게 하겠으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10.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너는 잘 지켰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앞으로 온 세계에 환난이 닥쳐 올 때에 나는 너를 보호해 주겠다. 11. 내가 곧 갈 터이니 너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 아무에게도 네 월계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라. 12. 나는 승리하는 자를 내 하느님의 성전기둥으로 삼을 것이며, 그가 다시는 그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내 하느님의 이름과 내 하느님의 도성의 이름, 곧 하늘에서 내 하느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로운 이름을 그 이기는 자 위에 새기겠다. 13.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14. 라오디게이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아멘이시며 진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며 하느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15.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라리 네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16. 그러나 너는 이렇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기만 하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17.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네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18.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권고한다. 너는 나에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나에게서 흰 옷을 사서 입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떠라. 19.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히 노력하고 네 잘못을 뉘우쳐라. 20.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21. 승리하는 자는 마치 내가 승리한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옥좌에 앉은 것같이 나와 함께 내 옥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22.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해설

다음의 질문에 답하며 공부해 보자.

- * 계시록의 책에 기록된 환상은 어디서 주어졌는가?
- * 누구에게 그리고 언제 이 환상이 주어졌는가?
- * 환상의 첫 시작은 무엇이었는가?
- * 주님은 요한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 * 일곱 별이란 무엇이라고 말해졌는가?
- * 일곱 등경은 무엇이었는가?

성서 지도에서 본문의 일곱 성읍을 찾아보자. 요한은 에페소의 교회를 맡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일곱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환상을 가질 때 유배되어 있던 섬을 지도에서 찾아보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사업은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진리를 들어 올려서 인간의 마음에 빛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각 교회는 일종의 등경과 같으며 각기 나름대로의 영적 특성, 즉 교회와 천국 그리고 주님과 연결되는 살아있는 영을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 교회들의 “천사”이며 “전달자”이다. 요한의 메시지는 각 교회 안에 있는 살아있는 영에게 주어졌다.

일곱 교회들은 오늘날의 교회처럼 서로 달랐다. 각각은 미덕과 함께 결점도 지녔다. 주님은 그들의 미덕을 칭찬 하셨고 그들의 결점은 꼬집어 주셨다. 주님은 그들이 결점을 극복하면 그 교회에게 특별한 약속을 해 주셨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들 안에 위선이 있기는 했지만, 그 교회들 중에서 가장 신실한 교회로 기술된다. 주님은 그 교회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하셨고, 오로지 교회의 진리와 선함만을 굳게 지키라고 당부하셨다. 우리는 주님께서 굳게 지키는 자들에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새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주목해야 한다.

반면, 라오디게이아 교회는 심하게 견책 되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미적지근함” 때문이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삶으로 그냥 그렇게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미적지근한 것임을 염두 해야 한다. 미적지근한 상태에는 그것이 가장 쉬운 삶인 것처럼 보이기 마련이다. 주님은 이런 인생의 무리들에게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그들의 마음의 문은 언제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진리에 대해서 닫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문을 열고 그들의 길을 바꾼다면 가장 큰 약속 중의 하나를 그들에게 주신다고 하셨다. 사실 쉬운 길이 눈앞에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주님의 길, 즉 언뜻 보기에 무척 힘든 길처럼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의지를 갖는 것은 무척 힘들다. 따라서 이 시험을 극복한 승리는 가장 큰 보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는 열심히 노력하며 정의만을 꾸준히 추구해온 이들이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음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3장 13절을 읽어 보자. 우리는 귀를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말해지는 것을 언제나 듣는 것은 아니다. 듣는다 함은 순종을 의미한다. 우리가 선하게 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에게 들음이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순종함 또한 따르게 된다.

질문 정리

- 1) 누가 계시록에 기술된 환상을 보았는가?
- 2) 요한은 어디서 이 환상을 보았는가?
- 3) 그는 환상의 처음에서 누구를 보았는가?

- 4) 요한은 주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 5) 요한은 주님 주위에 있는 무엇을 보았는가?
- 6) 주님은 일곱 등경이 무엇이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셨는가?
- 7) 일곱 교회는 어디에 있었는가?
- 8) 본문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9) 이 메시지들의 비슷한 점은 무엇인가?
- 10) 그들은 어떻게 달랐는가?
- 11) 어느 교회가 가장 신실하다고 기술되는가?
- 12)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메시지에서 문은 어떻게 있다고 했는가?
- 13) 라오디게이아 교회는 무엇이 나쁘다고 했는가?
- 14) 이 교회에 대해서 문은 어떠한다고 말했는가?
- 15) 각 메시지는 어떤 말로 끝맺는가?
- 16)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7) 본문 2장과 3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호소하고 있는가?

질문의 답

- 1) 사도 요한 2) 파트모스 섬 3) 부활하신 주님 4) 제 1장 23-26절을 읽어 보자.
- 5) 일곱 등경 6) 교회들 7) 소아시아 8)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
- 9) 선을 칭찬하고 결점들이 지적되며 약속이 뒤 따른다
- 10) 각기 다른 결점과 보상이 있음 11) 필라델피아 교회 12) 열려있다 13) 미적지근한 것 14) 닫혀있다 15) “들을 귀가 있는 자는...”
- 16) 들었으면 순종하라 17) 문을 닫는 것 혹은 여는 것은 우리의 자유이다.

40

거룩한 성

머리말

요한의 환상이 마무리되는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의 이름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에서 붙여졌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과 기쁨을 더해 줄 것이다. 환상의 요점을 엄두 하고, 말씀의 시작에서 말씀을 끝맺고 있는 본문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성서공부 제 1권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와 자아의 인도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있게 되는 우리 안의 선의 발달 혹은 악의 발달과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1, 22장

21장: 1. 그 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2.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 그 때 나는 옥좌로부터 울려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느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느님이 되어서 4.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짚음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5. 그 때 옥좌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하고 말씀하신 뒤 다시금 “기록 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6.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7. 승리하는 자는 이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8. 그러나 비겁한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 흉측스러운 자와 살인자와 간음한 자와 마술장과 우상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장자들이 차지할 곳은 불과 유향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 다.” 9. 마지막 일곱 가지 재난이 가득히 담긴 일곱 대접을 손에 든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그 신부를 너에게 보여 주겠다”하고 말했습니다. 10. 그리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 가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에 싸여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12.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 두 대문이 있었고 그 열 두 대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있었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13.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14. 그 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열 두 사도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15.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대문들과 성벽을 재려고 금으로 만든 측량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6.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했고 그 길이와 넓이가 같았습니다. 그가 측량자로 그 도성을 재어 보았더니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이 만 이천 스타디온 이었습니다. 17. 또 그가 성벽을 재어 보았더니 사람의 자로 백 사십 사 척이었습니다. 이 자는 천사의 자이기도 했습니다. 18.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온통 맑은 수정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9. 그 성벽의 주춧돌은 갖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으로, 둘째는 사파이어로, 셋째는 옥수로, 넷째는 비취옥으로, 20. 다섯째는 홍마노로, 여섯째는 홍옥수로, 일곱

째는 감람석으로, 여덟째는 녹주석으로, 아홉째는 황옥으로, 열째는 녹옥수로, 열한째는 청옥으로, 열두째는 자수정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21. 또 열 두 대문은 열 두 진주로 되어 있었고 각각의 대문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22. 나는 그 도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바로 그 도성의 성전이기에 때문입니다. 23. 그 도성에는 태양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 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기에 때문입니다. 24. 만국 백성들이 그 빛 속에서 걸어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은 그들의 보화를 가지고 그 도성으로 들어 올 것입니다. 25.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종일토록 대문들을 닫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26.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 나라의 보화와 영예를 그 도성으로 가지고 들어 올 것입니다. 27. 그러나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그 도성으로 들어 가지 못하고 흉측한 짓과 거짓을 일삼는 자도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도성에 들어 갈 수 있는 자는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뿐입니다.

22장: 1. 그 천사는 또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좌로부터 나와 2. 그 도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열두 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3. 이제 그 도성에는 저주받은 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좌가 그 도성 안에 있고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4. 그 얼굴을 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하느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5. 이제 그 도성에는 밤이 없어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6. 그 천사가 또 나에게 “이 말씀은 확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주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곧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보여 주시려고 당신의 천사를 보내셨다.”하고 말했습니다. 7. 그러자 주님께서 “자, 내가 곧 가겠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8.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나서 나에게 이것들을 보여 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9. 그러자 그는 “이러지 말아라. 나도 너나 네 형제인 예언자들이나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중에 지나지 않는다. 경배는 하느님께 드려라.”하고 말했습니다. 10. 그는 이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때가 가까 왔으니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아라. 11.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어라. 올바른 사람은 그대로 올바른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라.” 12.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자기 행적대로 갚아 주기 위해서 상을 가지고 가겠다. 13. 나는 알파요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14. 생명의 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얻고 성문으로 그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이 빠는 사람은 행복하다. 15. 개들과 마술장이들과 음란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일삼는 자들은 다 문 밖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16.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모든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에서 돋은 그의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17.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소서!”하고 외칩니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마시십시오. 18.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말해 둡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실 때에 이 책에 기록된 재난도 덧붙여서 주실 것입니다. 19. 또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떼어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 대한 그의 몫을 하느님께서 떼어 버리실 것입니다. 20. 이 모든 계시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21. 주 예수의 품위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해설

다음 질문에 답하며 본문을 공부하자.

- * 계시록은 어떤 환상으로 시작되는가?
- * 이 계시는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 * 왜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메시지가 필요했는가?

- * 메시지들은 어떤 말씀으로 끝을 맺는가?
- * 그는 하느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무엇을 보았는가?
- * 그 강가에 무엇이 자라고 있었는가?
- * 여러분은 성서 어느 부분에서 이 강과 생명나무를 처음 읽었는가?
- * 천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시록 전체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진정한 그림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보도록 조금씩 인도된다. 처음에는 우리의 행동 면에서, 그 다음 우리의 생각 면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깊고 깊은 심정 속을 보도록 인도 된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과정이라고 불린다. 우리가 자신 속에 결점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빛으로 가져가 밝히 살펴본 뒤 정복하고자 주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 우리는 머지않아서 하느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한다. 즉,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이 세상의 삶을 꾸러 가는 동안 있는 길고도 오랜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면, 우리는 주님이 인도 하시는 길을 따라 그 거룩한 성에 도착된다.

이 책의 마지막이며 성서 자체로도 마지막 부분인 본문은 천국에서 하느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이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이 성의 이름을 따라서 부른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교회는 열려진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 21장 11-27절의 성에 대한 열거 사항들은 매우 아름다워서 반복해서 읽게 된다. 각 세부 사항에는 경이로운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상응에 관해 배울 때 더욱 이해될 것이다.

제 22장에는 성 내에 있는 것에 대한 환상이 요한에게 주어지고 있다. 창세기 2장 8-17절을 읽어 보자. 이는 대 예언서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에제키엘서 47장 1-12절도 읽어 보자.

물은 진리에 대한 그림이다. 큰 강이란 말씀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흐르는 진리를 상징한다. 진실로 진리를 원하는 사람만이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제 21장 17절을 읽어 보자.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0-14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읽어 보자. 강가에서 자라는 생명나무는 우리의 아름다운 원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음을 믿는 것이다. 그것의

열매는 순수한 선함을 뜻한다. 22장 14절을 읽고, 어떻게 진실로 선하게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22장 11절에서는 이 세계를 지나 저 세계를 감이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음을 가르치고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하는 진리는 바로 ‘지상의 삶에서 악한 자들은 영들의 세계에서 깨어날 때도 악할 것이요, 지상의 삶에서 선한 자들은 계속해서 선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죽은 후에 자기의 심정을 바꿀 수 없다. 올바른 것을 배우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이루어짐으로, 한 번 선택한 것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게 된다. 22장 8절과 9절을 읽어 보자. 어떤 교회는 천사들이 이 세상의 남녀와 아주 다른 별개의 창조물인 것처럼 가르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천사는 요한에게 그도 말씀의 가르침을 순종해왔던 예언자 중의 하나라고 말한다.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를 타인에게 말 또는 행동으로 전달할 때는 모두 다 천사들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천국의 아름다운 천사들이 되는 것이다. 거룩한 성은 주님의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건축된 삶을 그린다. 21장 16-17절을 읽어 보자. 흔히 듣는 말 가운데, “네모반듯한 사람(Square Shooter)”라는 표현이 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선한 삶은 정 입방체로 길이(진리)와 넓이(선) 그리고 높이(유용함)가 같음을 의미한다. 다시 설명하자면, 올바른 것을 이해함과 그것을 올바르게 행함 그리고 이해와 행함이 그 속의 목적과 균형을 취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삶의 근원과 방향을 주님에게서 찾는 것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그 성이 “사람의 자 즉 천사의 자”로 측량되었다고 말해졌다.

질문 정리

- 1) 주님의 메시지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가?
- 2) 라오디게이아 교회는 왜 가장 신랄한 비판을 받았는가?
- 3) 계시록 21장 2절의 성은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 4) 그 도성은 몇 개의 문을 갖고 있는가?
- 5) 천사들은 어떤 도구로 이 성을 측정했는가?

- 6) 이 성의 모양은 어떠했는가?
- 7) 그 성의 기초에는 무엇이 보였는가?
- 8) 이 성의 문은 무엇으로 되어 있었는가?
- 9) 이 성은 누구로 인해 밝혀지고 있는가?
- 10) 누가 그 성에 들어가는가?
- 11)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무엇이 보였는가?
- 12) 그 강가에서는 무엇이 자랐는가?
- 13) 생명나무와 강에 대해서 어디에서 공부했는가?
- 14) 요한이 경배를 드리려 하자 천사는 뭐라고 말했는가?
- 15) 우리는 성서의 마지막 절을 주로 어디서 사용하는가?

질문의 답

- 1)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지적하며, 경고하고 약속을 주고 있다.
- 2) 극복해내기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3) 새 예루살렘 4) 열두 문 5) 금 자 (gold reed) 6) 네모 반듯 했다. (foursquare)
- 7) 보석들 8) 진주 9) 주님 10) 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이
- 11) 생명수의 강 12) 생명나무 13) 에덴의 동산 14) 하나님을 경배하라
- 15) (예배의 끝) 기도문에서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Matthew 25:21

